

1월 추천도서

(종합자료실)



- 도서명 : (일반) 한 학기 한 권 읽기
- 저 자 : 송승훈 외 5인
- 출판사 : 서해문집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029.8-한391ㅅ

[책소개] '책 읽는 교실'을 꿈꾸는 모든 교사를 위한 실천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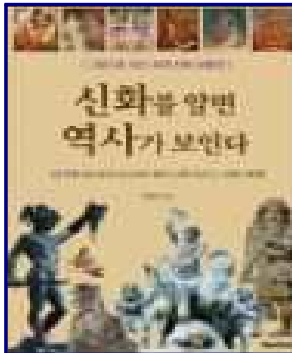
이 책은 새 교육과정인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일선 교사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열 가지 독서수업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제까지 출간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들과의 차별점은, 독서수업 방법을 체계적으로 모형화해 국어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와 교사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은 특정한 교과 영역이라기보다, 범교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쉽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놓았다. 교사마다 독서교육 경험, 역량, 상황이 다르기에 자기 여건에 맞게 수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도서명 : (일반) 배려
- 저 자 : 한상복
-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199.1-한51ㅂ

[책소개]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

이 책은 너와 내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의 길임을 보여주는 한국형 자기계발 우화다. 주인공 위는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온 현대인의 상징이다. 위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혼자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내가 먼저 베풀며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도 느낄 수 있다.



- 도 서 명 : (일반) 신화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
- 저 자 : 최희성 역음
- 출 판 사 : 아이템비즈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219-최98人

[책소개] 역사까지 상상하게 하는 인류문명 탐구서!


이 책은 5대양 6대주의 20여 개 신화를 아우른 전 세계 신화문명 서사시이다. 사실 신화에 담긴 이야기는 인간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한 생존과 초인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와 숭앙의 다양한 이야기가 내재돼 있다. 신화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같은 듯 다른 저마다의 결과 뿌리로 역사가 말하지 못하는 신비한 그 오랜 날로부터,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패자(敗者)들의 역사까지를 상상하게 하는 인류문명 탐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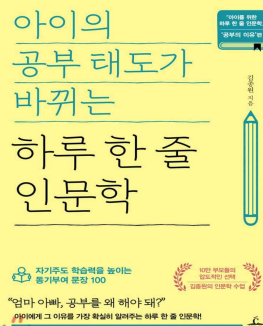
- 도 서 명 : (일반) 자이언트
- 저 자 : 피터 필립스
- 출 판 사 : 도서출판 다른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20.9-필239ㅈ김


[책소개]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 파워 엘리트 389명


이 책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글로벌 파워 엘리트 389명의 네트워크와 거기에 속한 개인에 대한 인명록이자 집중적인 연구서다. 저자인 피터 필립스는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기업과 단체에 속한 개인의 실명뿐 아니라 학력부터 경력, 재산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낱알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세계의 자본이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운용되는지를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트렌드 코리아 2020 • 저 자 : 김난도 외 • 출 판 사 : 미래의창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20.911-트233口
<p>[책소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0 전망</p> <p>이 책은 현대인들이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의 ‘멀티 페르소나’를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았다. 세분화·양면성·성장을 고루 포함하며 다른 아홉 가지 키워드를 버리처럼 잡아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매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 여러 모습에 집중하며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또 드러나지 않게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5060 소비자를 ‘오팔세대’라고 명명하고 세밀하게 분석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업글인간’ 트렌드를 살펴보고, 기업에게 자산이 된 팬심과 덕심으로 뚝뚝 뭉친 소비자들인 ‘팬슈머’ 등 2020년 떠오를 이슈를 전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 저 자 : 권혜선 외 • 출 판 사 : 서해문집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39.9-지17ㅅ
<p>[책소개] <인터스텔라>에서 <옥자>까지, 영화로 펼쳐보는 오늘의 환경 이슈</p> <p>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환경’과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인 환경과교육연구소가 기획하고 그 구성원들이 직접 쓴 이 책은 기후와 생태를 포함해, 인류의 모든 삶의 방식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실천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장서특성화-육아, 교육] (일반)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인문학 • 저 자 : 김종원 • 출 판 사 : 청림Life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98.1-김75ㅇ
<p>[책소개] 자기주도 학습력을 높이는 동기부여 문장 100</p> <p>아이의 학습 동기와 공부 의지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인문학 자녀교육법을 담은 책이다. 부모와 함께 동기부여 문장들을 읽고 쓰고 느낌을 이야기하며 아이가 왜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올바른 배움의 자세가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하루 한 줄 인문학 공부 노트》를 QR코드로 제공해 아이 스스로 오늘의 공부 목표와 체크 리스트, 실천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이의 학습 동기와 의지를 끌어올려주고 결국 배움의 가치와 즐거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클래식 브런치 • 저 자 : 정시문 • 출 판 사 : 부키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670.15-정59ㄱ
<p>[책소개] 클래식 음악의 명장면을 통해 음악의 ‘맛’을 음미한다!</p> <p>이 책의 일차적 목표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진수성찬을 즐기고 싶지만, 그와 관련된 매너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짐짓 망설이는 독자들에게 초대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맛보고 버리기에는 클래식 음악이 품고 있는 보물이 너무나도 아깝다. 탁월한 음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의미와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그 무게를 처음부터 떠안고 끙끙대며 출발할 필요는 없다. 시작은 우선 가볍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재미를 찾다 보면 어느새 대작에 담긴 의미와 가치 또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디디의 우산 • 저 자 : 황정은 • 출 판 사 : 창비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813.7-황73ㄷ
<p>[책소개] 세계라는 빗속에서 황정은이 건네는 우산 같은 소설</p> <p>넓고 탄탄한 독자층을 형성한 동시에 평단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황정은의 연작소설이다. 《d》라는 제목으로 다시 선보이는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웃는 남자》, 《문학3》 웹 연재 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를 묶은 소설집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와 2016~17년 촛불혁명이라는 사회적 격변을 배경에 두고 개인의 일상 속에서 혁명의 새로운 의미를 탐구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보고싶은 사람들 모두 보고 살았으면 • 저 자 : 안대근 • 출 판 사 : 달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814.7-안222ㄴ
<p>[책소개]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반짝이는 내 안의 북극성을 찾아나서는 시간</p> <p>이 책은 삶 가까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내밀하고 섬세하게 기록했다. 좋아하는 만큼 자꾸 미워하게 되는 엄마, 언제고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기억조차 희미해서 떠올릴 수는 없지만 보고 싶은 아빠, 마음을 다 바쳐 함께한 연인들 등 작은 사회 그리고 나아가 저자가 직접 사회에 발 담그며 경험해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잊기엔 너무 뜨거웠던 일들이 그에게 많다. 그들을 통해 세상을 알아갔고, 또 그들 덕분에 저자는 따듯한 어른이 되어 있다. 그들과 함께 머문 소중한 그 시간은 어떤 모양의 얼룩으로 남았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어 그는 소중한 선물처럼, 보석처럼 간직한다. 이 이야기들이 확장되어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내밀하게 축소되어 귀를 기울이게 되기도 한다.</p>	


2월 추천도서

(종합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명 : (일반) 마음의 사생활 • 저자 : 김병수 • 출판사 : 인물과사상사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186.5-김44ㅁ
---	---

[책소개]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위한 심리학

내 마음은 나도 모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의지를 강요하는 사회, 정상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고 쓸데 없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은 심리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양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에 관한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한다. 이 책은 심리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뒤집어,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줄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명 : (일반)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 저자 : 김병완 • 출판사 : 아토포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25.211-김44ㄴ
---	---

[책소개] 1000일 동안 온몸으로 체험한 기적의 도서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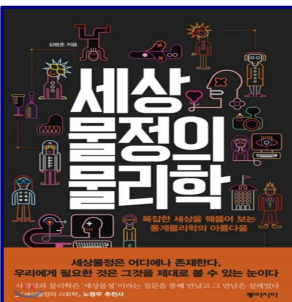
이 책에서 도서관은 가진 자들만의 특권이 아닌, “오히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같은 이들의 진정한 친구”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서관은 '마법 학교'였으며, 내세울 것이 많은 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였다.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중년의 평범한 남자가, 아무 경험도 없는 초년의 젊은이가, 아무 배경도 없는 노년의 어르신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독서뿐”이기에,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인생 최고의 낭비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저자의 도서관 예찬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도서관과 책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 도 서 명 : (일반) 엄마의 영화관
- 저 자 : 강안
- 출 판 사 : 궁리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78.9-강61ㅇ

[책소개] 가깝고도 먼 가족, 한 편의 영화로 공감하고 감동하다


이 책은 부모를 위한 영화, 아이를 위한 영화로 가족에게 말을 걸어오는 서른 한 편의 영화 이야기이다. 이 책은 관계와 소통 문제로 삶이 질척거린다고 생각할 때,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 영화라는 처방전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지혜를 발견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영화부터, 세상에 눈을 떠가는 자녀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까지 다양하다.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잇는 2시간의 기적! 온 가족이 영화 한 편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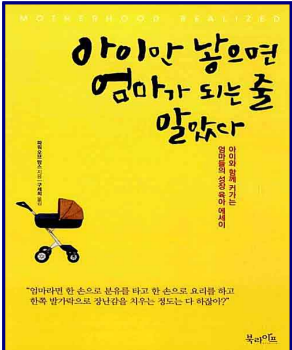



- 도 서 명 : (일반) 세상물정의 물리학
- 저 자 : 김범준
- 출 판 사 : 동아시아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420.04-김43ㅅ


[책소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계물리학의 아름다움

이 책은 통계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려내고 있다.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정의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 제시와 복잡한 세상의 사건들을 재미있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술, 아름다움, 뇌, 체질량지수, 자연스러움에 대한 문학적 감성이 묻어나는 말들로 담아냈다. ‘세상물정’의 세상 속 이야기들이 사회학과 물리학으로 멋지게 융합되어 세상의 이치를 인문학적 상상과 발상으로 과학을 통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흥미로운 주제의 선택과 재치있는 말솜씨에 자칫 딱딱하고 무거운 과학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 저 자 : 매슈 워커 • 출 판 사 : 열린책들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17.31-워823ㅇ이
<p>[책소개] "졸리면 자야 하고, 안 졸려도 충분히 자야 한다"</p> <p>이 책은 늘상 잠을 미루며 삶을 깎아먹는 이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장이자 그간 잃어버린 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부드러운 초대장이다. 손꼽히는 수면 의학 분야의 권위자 매슈 워커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암, 알츠하이머, 당뇨병 등에 취약해지고,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잘 때 생기는 놀랍고 유익한 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한다. 하루 8시간 수면은 인류 각자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자 인류 전체의 안전과 지속에 필수적인 요소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장서특성화-육아, 교육] (일반) 아이만 낳으면 엄마가 되는 줄 알았다 • 저 자 : 파워 오브 맘스 • 출 판 사 : 북라이프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98.104-파67ㅇ구
<p>[책소개] 아이와 함께 커가는 엄마들의 성장 육아 에세이</p> <p>이 책에서는 다양한 엄마들이 진솔한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바쁜 생활에 미쳐 잊고 살던 자신만의 취미를 되찾고 아이와 함께 공유하며 행복을 되찾았던 경험과 함께 엄마 스스로도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이후에 깨닫게 된 자신의 엄마에 관한 고마움, 아이를 낳고 홀로 된 듯한 우울증에 빠졌지만 조금씩 엄마의 모습을 갖춰나가며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등 이제 막 엄마라는 이름을 얻게 된 초보 엄마부터 여러 아이들을 키워낸 고수 엄마까지 '엄마'라는 이름 아래 모인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단어의 사생활 • 저 자 : 제임스 W. 페니베이커 • 출 판 사 : 사이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701.018-페219ㄷ김
<p>[책소개] 우리는 모두, 단어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p> <p>현재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연설과 기자회견은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이메일, 블로그, 인터넷 게시물, SNS, 자기소개글, 대입 논술,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 등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해 단어와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심리적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일종의 '단어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로서 글쓰기를 통한 치유 효과를 연구해오던 중 <단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저자는 사람들은 모두 말과 글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의 지문>을 남기며, 따라서 단어라는 단서만 있으면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정체성, 성격, 심리 상태, 학교 성적, 회사 생활,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미래의 행동>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저 자 : 김초엽 • 출 판 사 : 동아시아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813.7-김815ㅇ
<p>[책소개] 다섯 개의 위성이 뜨는 곳에서도, 지지 않는 마음</p> <p>표제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는 매력적인 ‘할머니 과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인물을 통해 소설은 어쩌서 어떤 고통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지, 생의 끝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만 묻는 듯하다. 문학상 이후 김초엽의 작품들은 더욱 확장된 세계를 그려낸다. 작가의 고민과 질문도 더 단단해진 듯하다. 다섯 개의 위성이 뜨는 행성에 홀로 남겨져 외계인과 조우하게 될지라도(「스펙트럼」), 고통 없는 유토피아에서 짐짓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도(「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를 알아야겠다고 용기 내는 마음,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말하며 지지 않는 마음, 분투하는 태도가 이 소설에 묻어 있다.</p>	



- 도 서 명 : (일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 저 자 : 앤드루 포터
- 출 판 사 : 문학동네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843.6-포833ㄴ김

[책소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앤드루 포터의 문장들!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우아하고 섬세한 문장, 서늘하면서도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로 국내 문학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숨은 명작으로 회자되던 이 책을 더욱 유려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재정비해 새롭게 선보인다. 깊은 마음을 나눠가졌음에도 결국 떠나야만 했던 로버트에 관한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는 헤더의 이야기를 담은 표제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다른 남자의 부인을 사랑하게 된 아내를 이해해야만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코네티컷》, 형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강가의 개》 등 인물들의 감정을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보며 그들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서늘하지만 마음을 담은 터치로 그려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 도 서 명 : (일반) 조선의 아버지들
- 저 자 : 백승종
- 출 판 사 : 사우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911.05-백58ㅈ

[책소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진정한 아버지다움


아버지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진 시대, 아버지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로 인해 사회 구조가 크게 변동하면서부터 시작된 오늘날의 가족해체 현상은 아버지의 위기를 낳은 변화의 산물인 것이다.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사회와 관계하는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지혜를 배운다. 이것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다. 아버지 자리가 사라진 시대는 아이들을 위해서나 아버지를 위해서나 위태롭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 시대에 조선시대 12명의 훌륭한 아버지의 삶을 통해 존경받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고,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 아버지들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지 그 가치와 특별한 훈육법을 생생히 들여다 보며,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진정한 아버지다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월 추천도서(종합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예술하는 습관 • 저 자 : 메이슨 커리 • 출 판 사 : 걷는나무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031-커239ㅇ이
---	---

[책소개]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만든 구체적 하루의 기록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대한 성취를 이룬 예술가들의 보통의 하루에서 찾고자 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에서 프리다 칼로까지, 지난 400년간 이름을 알린 여성 예술가 131명의 일상적인 루틴과 작업 습관들을 소개한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에 드는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지, 산책과 목욕, 이웃과의 티타임이 창의적 활동에 어떤 활력을 주는지 등 사소할지 모르지만 더없이 결정적인 습관들이다. 영업기밀과도 같은 각자의 '일하는 방식'은 위대한 인물들의 습관을 엿봄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 싶은 독자에게 매우 흥미로운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서 명 : (일반)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인간관계론 강의 • 저 자 : 앤디 몰린스키 • 출 판 사 : 홍익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189.2-몰239ㅎ임
---	--

[책소개] 인간관계에 서투러 혼자 변방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 심리학

이 책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부담스러운 소통의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준다.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직원을 해고하는 일, 나의 능력을 최대한 과대포장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 까다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일은 하나같이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다. 이런 부담의 벽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도망치는 것'이지만, 이 책의 저자는 도망칠수록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다만 내성적인 성향을 적극적으로 바꿔라, 극복하라는 기존의 조언 대신 몰린스키 교수는 내성적인 성격은 그대로 두고 조금의 기술을 사용하면 일상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 도 서 명 : (일반) 워런 버핏 라이브
- 저 자 : 대니얼 피켓, 코리 렌
- 출 판 사 : 에프엔미디어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27.856-픽823ㅇ이

[책소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33년간의 Q&A 지상 중계

이 책은 미국의 투자 자문회사 경영진 둘이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30년간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해 그 Q&A를 꼼꼼하게 받아 적어 정리한 책이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2016~2018년 주주총회 Q&A까지 부록으로 붙여, 명실상부 ‘버핏과 멍거의 모든 육성 답변’을 집대성했다.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훨씬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거장의 미공개 비망록을 훑쳐보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기록을 들추다 보면, 투자 노하우는 물론 인생의 지혜까지 얻게 된다.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면, 버크셔 주주총회 Q&A는 소수정예를 위한 ‘투자 특강’이라 할 수 있다.



- 도 서 명 : (일반) 한국의 논점 2020
- 저 자 : 고태봉 외
- 출 판 사 : 북바이북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40.911-한17ㄴ강

[책소개] 2020년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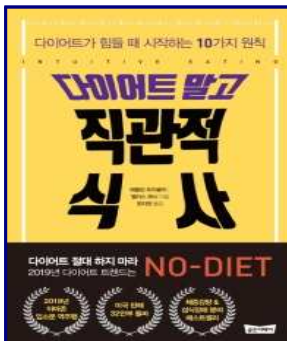
이 책은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와 균열의 모습을 파악하고, 전환의 시기에 개인과 사회가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에는 ‘위기와 전환’을 중심으로 삼아 국내 정치, 국제 질서,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섯 가지 논점들을 살폈다. 불신과 이권다툼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 격변하는 동아시아와 국제 질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일상생활의 변화, 인류 전체의 위협 요인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어느 것을 주시해야 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취하고 버려야 할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현실과 근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국 사회를 입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 도 서 명 : (일반) 세상을 바꾼 길들임의 역사
- 저 자 : 앨리스 로버츠
- 출 판 사 : 푸른숲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472.09-로43스김

[책소개] 인류의 생존을 이끈 선택과 협력의 연대기

앨리스 로버트는 인간이 길들임의 주체일 뿐 아니라 객체이며, 나머지 종들을 길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길들였다’는 참신하고도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또한 길들여진 종의 역사와 최신 유전학,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등 다가오는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망한다. “인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전망하는 탁월한 입문서”라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이다.



- 도 서 명 : (일반)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
- 저 자 : 에블린 트리볼리, 앨리스 레시
- 출 판 사 : 골든어페어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12.54-트239ㄷ정

[책소개] 다이어트가 힘들 때 시작하는 10가지 원칙

이 책은 다이어트 상담과 코칭을 해오던 두 영양전문가가 다이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한 직관적 식사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판을 낸 후 전 세계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과학적 검증 결과를 추가했으며, 17년간의 상담과 코칭, 치료 경험을 더해 개정판을 냈다. 직관적 식사(Intuitive Eating)란 누구나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능력인 본능적인 먹기를 이르는 말이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젖을 먹다 배가 부르면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는 모두 이러한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이어트나 강요, 지시 등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간다. 직관적 식사는 내부 신호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자신의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에 따라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죄책감 없이 즐기면서도 살이 빠지거나 찌지 않는 상태를 평생 유지하는 식습관이다. 직관적 식사로의 여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저자가 안내하는 과정을 참고하여 시도하다 보면 몸과 음식과의 투쟁이 끝나고 삶까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도 서 명 : [장서특성화-육아, 교육]
(일반) 참 쉽다 초등학교 입학준비
- 저 자 : 이은경
- 출 판 사 : 황금부엉이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98.124-이68초

[책소개] 1년 내내 펼쳐 보는 초등 1학년 학교생활 가이드북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다. 엄마의 마음이 급해진다. 한글도 다 못 땀고, 덧셈 뺄셈도 서툴다. 아이가 제자리에 앉아 수업은 제대로 들을지,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제대로 할지 걱정이다. 입학 후 엄마의 걱정은 더 많아진다. 학부모 봉사단체는 꼭 가입해야 하는지, 반 모임에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어디 물어보기 민망할 정도로 소소한 궁금증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 책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이다. 15년 차 초등 교사이자 학부모인 저자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 양쪽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공부 습관은 물론 엄마가 가져야 할 습관 등을 안내한다. 예비 초등 학부모는 물론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 도 서 명 : (일반) 화가의 출세작
- 저 자 : 이유리
- 출 판 사 : 서해문집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650.9-이67ㅎ

[책소개] 운명을 뒤바꾼 결정적 그림 이야기

예술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생기 넘치는 출발점으로 안내하는 『화가의 출세작』. 밀레, 뭉크, 쇠라... 이제는 누구나 알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장의 탄생을 알린 그림들이 있다. 이 책은 손끝에서 피어난 하나의 작품이 창조자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그 흥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출세작이 머금고 있는 낯선 아름다움의 원천을 추적한다. 일반적으로 출세작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출세작은 거장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방향타이자 그들이 가능성만 가득 찬 떡잎이었던 시기,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암담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심하고 발버둥친 결과다. 이 책에서 떨리는 첫걸음에 담겨 있는 순수한 열망과 위대한 꿈을 만나 볼 수 있다.



- 도 서 명 : (일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 저 자 : 이주란
- 출 판 사 : 문학동네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813.7-이77ㅎ

[책소개] 따스하고 섬세한 눈길로 천천히 흘러가는 삶을 들여다보는 소설!

2019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소설가 이주란의 두번째 소설집. 마치 연작처럼 보이는 아홉 편의 소설에는 현재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대체로 비슷한 길을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 아픈 어머니는 잠시 일을 쉬고 있고, 나는 학원 대신 작은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돌봐야 할 조카는 아직 어리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 中) 언니가 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내 마음이 더는 견디지 못하는지,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는다. 소설은 그저 과정에 놓인 자신의 일상을 수수하게 털어놓는다. 장을 보고 농담을 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말하고 가끔 넘어지면서 살고 싶다"라고, "정말 미안할 때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살 것이다"라고 다짐하는 소박한 사람들. 사철나무며 참새를 바라보며 걷는 봄 출근길의 마음을 짐작하며 꼭 소설 속 사람들처럼 어떤 다짐들을 되새기게 된다.



- 도 서 명 : (일반) 선물의 문화사
- 저 자 : 김봉기
- 출 판 사 : 느낌이있는책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911.05-김847ㅅ

[책소개] 조선을 이끈 19가지 선물

선물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선물은 빈한한 일상을 보완하는 하나의 경제방식이었기에 음식과 문구류, 의복과 가축 등 생활에서 소용되는 수많은 물건이 선물로 사용되었다. 이 책은 임금부터 사대부, 민초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인간사를 풍요롭게 이끈 19가지 선물을 담았다. 상대에게 소용될 것 같아서, 지금 시절에 좋은 물건이 생겼기에, 격려나 위로 등 특별한 뜻을 담아, 아니면 ‘그냥’ 보내온 선물은 시대를 들여다보는 좋은 창이자 인간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4월 추천도서(종합자료실)



- 도 서 명 : (일반) 검색의 즐거움
- 저 자 : 대니얼 M. 러셀
- 출 판 사 : 세종서적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004.584-러53ㄱ황

[책소개]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본격 구글링 가이드

이 책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다. 도시의 풍경이 보이는 사진으로, 실내에서 창밖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준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며 도움을 청한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오늘까지 꼭 찾아내야만 해요.” 자, 당신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색을 시작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 대니얼 러셀은 구글의 검색분야 연구과학자로, 말 그대로 진짜 구글링 전문가다. 저자는 먼저 사진 속에서 단서를 찾고, 사진을 찍은 건물, 심지어 층수와 회사 상호까지 알아낸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검색창은 답을 찾기 위한 스타트 라인일 뿐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검색의 기본기를 다지고,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검색 기술까지 내 것으로 만든다면 저자 못지않은 진짜 구글링 고수가 될 수 있다. 《검색의 즐거움》은 구글링 전문가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한 권이 될 것이다.



- 도 서 명 : [주제도서-청렴] (일반) 포청천과 청렴정직 문화
- 저 자 : 김지수
- 출 판 사 : 마로니에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193.2-김79표

[책소개] 청렴정신이 왜 필요한가

청렴이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화두가 된 지금, 이 책은 동양 전통역사철학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을 찾아 맑고 깨끗이 닦아 선보인다. 청렴에 대명사가 된 포청천의 사적과 일화를 필두로, 전통 법문화에서 뇌물죄와 청렴정신을 두루 살펴보며, 민본에 기초한 군주론과 공직관리의 참된 의미기능을 엿볼 수 있다. 이어 춘추전국시대에 청렴정직을 활짝 꽃피운 어진 정치가 및 관리 14인의 생생한 행적과 공덕을 역사실록에서 찾아내 유려하고 흥미진진한 필치로 그려내며, 의미심장한 귀감과 교훈을 선사한다.

21세기 화폐전쟁



- 도 서 명 : (일반) 21세기 화폐전쟁
- 저 자 : 노르베르트 헤림
- 출 판 사 : 올리시즈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27.2-헤239○박

[책소개] 아마존, 애플,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는 왜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가

세계는 지금 현금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현금결제를 어렵게 만들고 전체주의적 세계 통화로 향하는 시스템이 차곡차곡 구축되는 중이다.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가상화폐 통제 사회’는 우리의 자유를 한정하고 완전한 감시체제를 완성한다. 현금이 사라지는 편리함을 대가로 우리는 거대기업의 이윤에 ‘자유’를 헌납하는 셈이다.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은 첨단기술 전자결제 사업모델을 내세워 ‘현금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거대기업이 이렇듯 핀테크 사업 등에서 노리는 최종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문이나 안면·생체인식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가상)화폐’를 완성하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 그것을 향한 전제조건인 ‘현금 철폐’ 작전이 곧 ‘21세기 화폐전쟁’이다. 저자는 IT 및 금융기업, 거대재단, 정부와 기관들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 중인 거대한 디지털 금융 통제시스템의 내막을 고발한다.



- 도 서 명 : (일반) 매너의 문화사
- 저 자 : 아리 투루넨, 마르쿠스 파르타넨
- 출 판 사 : 지식너머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85-투237ㄱ이

[책소개] 매너라는 형식 뒤에 숨겨진 짧고 유쾌한 역사

우리는 매너를 중요하게 여긴다. 인사법, 식사예절, 음주, 대화, 이성끼리의 신호 교환 등 사회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매너가 존재한다. 매너는 문명화된 사회의 기호이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딘가 조금 이상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누구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이 책은 매너라는 눈앞에 드러나는 형식의 이면을 파고들어 ‘도대체 훌륭한 매너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핀란드 출신의 두 저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예의가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매너로 정착되었는지 유럽의 역사를 차근차근 훑으며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 도 서 명 : (일반)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 저 자 : 폴 헬핀
- 출 판 사 : 플루토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420.143-헬843ㅇ김

[책소개] 물리학을 바꿔놓은 두 사람, 아인슈타인과 슈뢰딩거의 이야기


이 책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구축하기까지의 과정, 슈뢰딩거가 파동방정식을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 다음 우연과 확률에 기반을 둔 양자역학을 대신할 이론과 우주의 모든 힘을 통합하는 통일이론을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두 과학자의 이후 연구과정을 소개한다. 여기에 두 과학자의 사생활 이야기도 의미 있게 곁들여진다. 너무나 유명한 슈뢰딩거의 여성편력도 소개되지만, 무엇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두 과학자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두 과학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천재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 역시 새삼 느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표준모형 등 통일이론의 후보들과 아인슈타인과 슈뢰딩거의 연구방법을 이어받은 후속 이론들도 소개한다.



- 도 서 명 : (일반) 계산하는 기계는 생각하는 기계가 될 수 있을까?
- 저 자 : 잭 코플랜드
- 출 판 사 : 에디토리얼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509-코848ㄱ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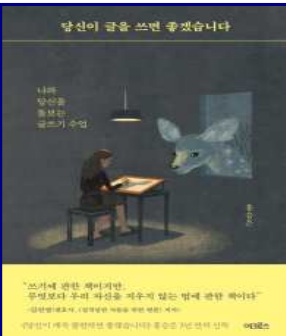
[책소개] 인공지능을 만든 생각들의 역사와 철학

다른 스마트한 기술들이 그러했듯 기술의 원리를 몰라도 기계의 사용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인공지능이 유별나게 공포와 불안, 비관적 전망을 자아내는 이유는 뭘까? 저자는,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하는 기계’로서 받아들이지 여부는 철학적 쟁점들을 검토한 후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간주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컴퓨터의 태동으로부터 시작해, 인공지능 제작을 목표로 눈부신 성과가 쏟아지던 시기의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이런 내용은 경험적 증거들에 대한 고증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기술적 원리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다뤄지지 못한다. 인공지능에 정통한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의 저작이 갖는 풍부한 내용성은 이 같은 저자의 학제적 역량에서 비롯한다. 책 전체는 저자의 논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장 이후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를 모사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한 결부될 수밖에 없는 비경험적 문제들을 다룬다.

	<p>• 도 서 명 : [장서특성화-육아, 교육] (일반) 아이가 집중하기 시작했다</p> <p>• 저 자 : 장필리프 라쇼</p> <p>• 출 판 사 : 북하우스</p> <p>•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p> <p>• 청구기호 : 598.142-라56ㅇ이</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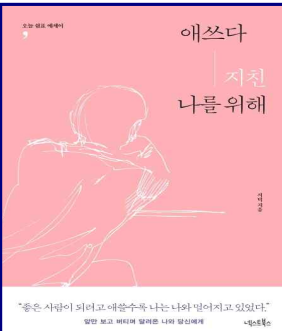
[책소개] 집중력을 키우는 단순한 습관

어린이 집중력 논의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화제작인 이 책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영상과 소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산만해지기 쉬운 세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집중력 개론서이자 안내서다. 저자는 좀처럼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마침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그림과 글을 그렸다. 1부 만화, 2부 심화 텍스트, 3부 Q&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중력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지 비법을 공개한다. 또한 "집중력은 누구나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며, 세상의 모든 산만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애를 먹는 부모 및 교사들을 독려한다. 저자의 가설과 방법론은 프랑스 초등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검증되면서 자국의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왔다. 이 책은 각종 시청각 이미지에 시달리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집중력 훈련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p>• 도 서 명 : (일반)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p> <p>• 저 자 : 홍승은</p> <p>• 출 판 사 : 어크로스</p> <p>•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p> <p>• 청구기호 : 802-홍58ㄷ</p>
---	--

[책소개] 나와 당신을 돌보는 글쓰기 수업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함께 글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알려주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한 안내서다. 책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보라고, 자기 삶을 글로 이야기해보라고 부추긴다. 저자는 쓰기의 근육을 단련하며 익힌 ‘글쓰기 요령’은 물론, 글쓰기가 불러온 삶의 변화 등 ‘쓰기의 가치’를 흡입력 있는 문장으로 들려주며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의 길로 이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느새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도 서 명 : (일반) 애쓰다 지친 나를 위해
- 저 자 : 서덕
- 출 판 사 : 넥스트북스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818-서223ㅇ

[책소개] 오늘 심포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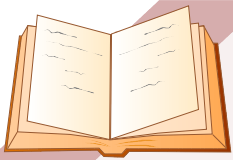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 애쓰며 살아간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감내하기도 한다. 힘들어도 왜 힘든 줄 모른 채 피곤함을 억누르고, 괴로워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운다. 그러니 늦기 전에 한 번은 돌아봐야 한다. 앞만 보고 버티며 애쓰다가 어느 새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 책은 카피라이터인 저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비로소 돌아보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저자처럼, 지금을 견디기만 하다가 정작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며,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지만 사실은 너무 애쓰며 사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 도 서 명 : (일반)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 저 자 : 김해경
- 출 판 사 : 정은문고
- 자료위치 :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911.07-김92ㅇ

[책소개] 한국 최초의 공원을 찾아서

경성에 전차가 다니고 처음 전등 불빛이 켜질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야말로 낭만이 흐른다. 멋진 신사모와 신식 양장을 갖춘 모던걸 모던보이가 양산을 쓰고 등장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대라고 말하는 20세기 초는 일제 강점기였다. 모던걸 모던보이와 더불어 도시빈민과 룸펜이 뒤섞여 공존하던 곳이 바로 공원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최초 공원은 어디일까. 각국공원? 파고다공원? 한국 공원의 역사가 130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흔적은 지금 찾기 힘들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시대는 시간 저편으로 흘러간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 우리의 공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찾아보자.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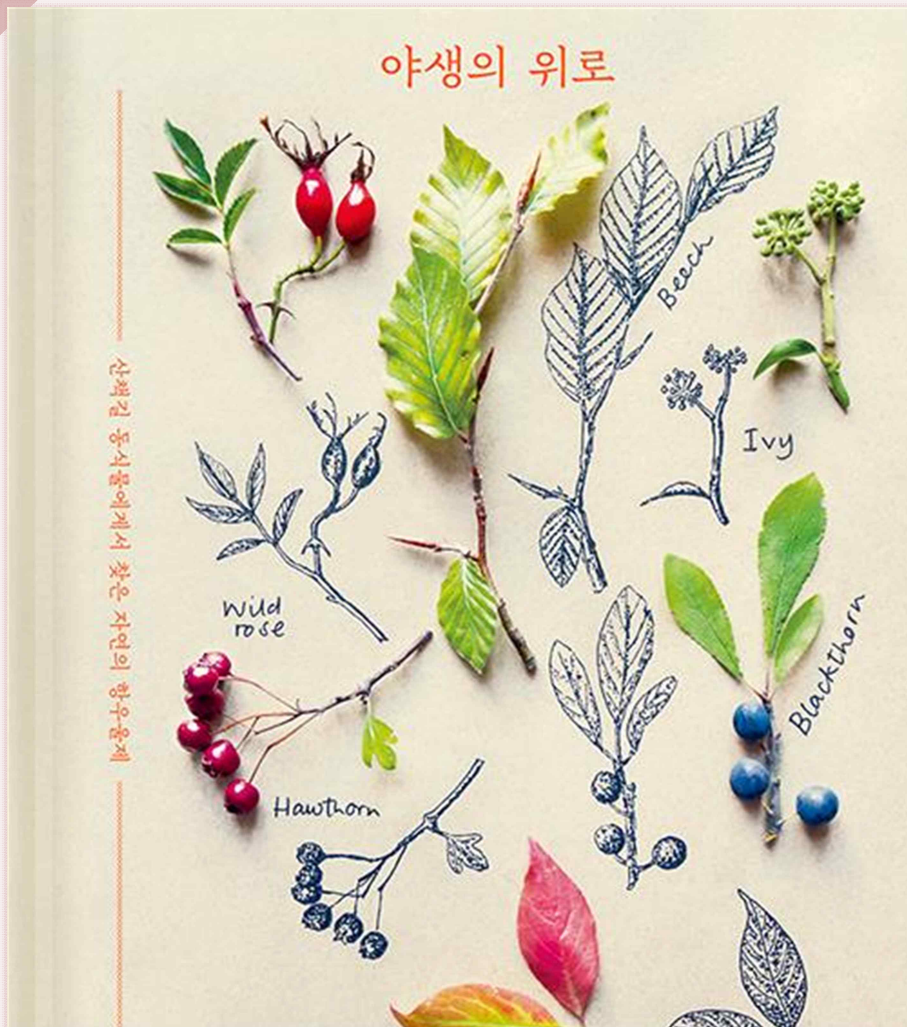
야생의 위로

|| 저 자 ||
에마 미첼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심심

|| 청구기호 ||
182.3-미813ㄸ신



산책길 동식물에게서 찾은 자연의 항우울제

【책소개】 산책길 동식물에게서 찾은 자연의 항우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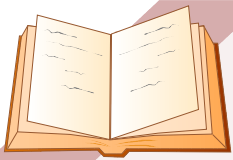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오랜 시간 겪어온 우울증에 관한 회고록인 동시에 그간에 만난 자연의 위안에 관한 일기다. 저자는 가벼운 무기력증에서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의 다양한 양상을 경험하며, 그런 시기마다 자신을 위로했던 자연의 모습을 생생한 글과 그림, 사진으로 옮긴다. 매일 산책길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고 사진으로 찍는 과정이 쌓여 가장 힘겨운 날에도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되어 주었다. 섬세한 문장과 함께 책의 갈피마다 조화롭게 배치된 사진과 스케치는 그가 보고 듣고 느낀 자연을 책을 통해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한다.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자연의 위로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정여울 작가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저자



사회
과학

서른 살 백만장자

서른 살 백만장자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극빈 소녀의 인생 역전



크리스티 선, 브라이언 황 지음
이경남 옮김

<어디든 포스트>

<비즈니스 인사이더>

<CNBC> 극찬

<CBC>

'On The Money'

450만 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작

“나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돈이 고갈되지 않는 10억짜리 포트폴리오

RHK

|| 저 자 ||

크리스티 선 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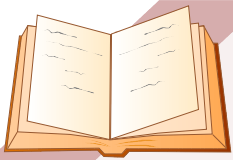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알에이치코리아

|| 청구기호 ||

321.833-원828사이

【책소개】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극빈 소녀의 인생 역전

전 세계 경제력 하위 1%에 속했던 가난한 중국 시골소녀가 서른 살에 상위 1%에 속하는 백만장자가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 것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친 것도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티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계산하고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게다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도 끄떡없을 백업플랜까지 갖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놀라운 건 은퇴한 뒤 3년째 일하지 않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음에도 자산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티는 당당하게 말한다. “장담하건대, 내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사회
과학

[주제도서] '청렴'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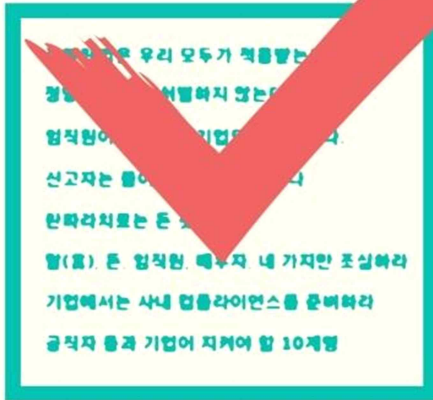
|| 저 자 ||
이철우

|| 발행연도 ||
2016

|| 출판사 ||
소담

|| 청구기호 ||
364.215-이8137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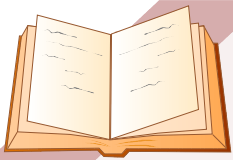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제2의 비선실세 막는 국민의 법, 김영란법!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은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의 친절한 가이드북

소담출판사

【책소개】 변호사가 제안하는 쉽고 간단한 김영란법 대응 지침서

이 책은 2016년 9월 28일 실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침서이다. '몰라서', '헛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할 일 없도록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대응 지침서! 우리 생활 속 많은 부분을 불편하게 금지하는 법이 아닌, 청렴하고 정직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인 법인 청탁금지법을 현직 변호사인 저자 이철우의 쉽고 전문적인 안내와 함께 차근 차근 알아보자.



자연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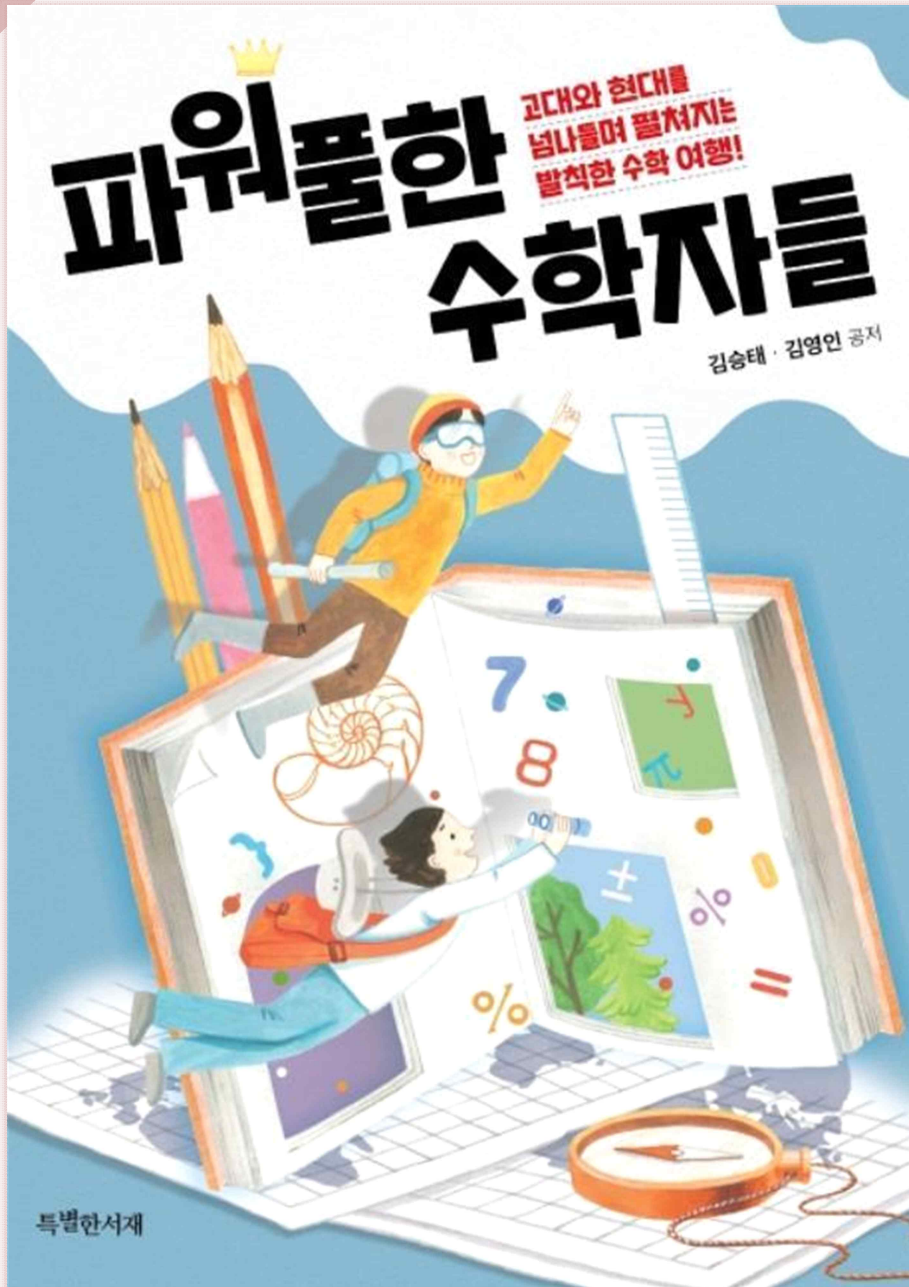
파워풀한 수학자들

|| 저 자 ||
김승태, 김영인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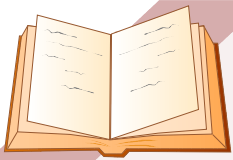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 출 판 사 ||
특별한서재

|| 청구기호 ||
410.99-김58프



【책소개】 고대와 현대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발칙한 수학 여행!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수학은 '셈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긴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같은 일상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수학이 일상과 맞닿아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우리 삶 속에 수학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수학의 기초를 세운 탈레스부터 최초로 수학 교과서를 만든 유클리드, 좌표평면을 발견한 데카르트, 그리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한 와일즈 등 21명 수학자의 에피소드를 통해 교과서 속 수학 개념들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누구'에 의해 발전되었는지 살펴본다.



기술
과학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

|| 저 자 ||
아마노 히카리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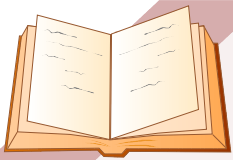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 출판사 ||
센시오

|| 청구기호 ||
598.1-아314김



【책소개】 아이의 두뇌를 살리는 대화, 망치는 대화

이 책은 평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별 부부 대화법 36가지를 담았다. 이 예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황을 망라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부부의 대화로 아이의 다섯 가지 능력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부모는 아이라는 그릇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릇을 키워줘야 한다. 그릇을 크게 만들 방법은 딱 하나. 평소에 들려주는 부모의 말이다.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은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릇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술

[장서특성화] '예술'

나의 문구 여행기

|| 저 자 ||
문경연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뜨인돌

|| 청구기호 ||
649.04-문14ㄴ

나의 문구 여행기

paris
berlin
barcelona
london
new york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용기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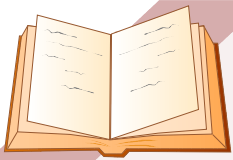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tokyo
shanghai

문경연 지음



【책소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용기에 대하여

문구 덕후라는 자부심으로 7개 도시 27곳의 문방구를 다녀 온 저자는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취향에 대해 정의내릴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 고민과 사유의 흔적들은 생생한 문구 사진들과 함께 수록된 일기와 메모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진 풍요로운 인생을 살자는 것. 저자가 문구를 재료로, 여행을 도구로, 그동안 내어놓지 못했던 '문구 여행'이라는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이유는 결국 이거다. <나의 문구 여행기>라는 제목에서 문구에 먼저 끌렸든, 여행에 먼저 닿았든, 이 이야기는 결국 '나'로 수렴하는 셈이다. 나만의 취미, 나만의 여행으로 꾸며 가는 삶. 그 삶의 꿈이 선명해지길 바라며, 출국장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애타는 마음으로 상상해 본다.



언어

영어 회화의 결정적 단어들

|| 저 자 ||
서영조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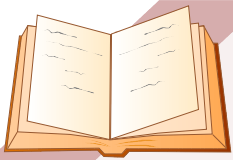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 출판사 ||
사람in

|| 청구기호 ||
747.5-서64ㄷ

【책소개】 주제별 회화 필수 단어와 메모리 부스터 이미지로
회화의 절반을 완성한다!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원어민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 대화에 쓰이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 급할 땐 단어만 정확하게 말해도 대화가 이어지고 통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은 정확하게 쓰기만 해도 회화가 되는 단어와 한국인들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궁금해 하는 단어들만 주제별로 쏙쏙 모아 실속 있게 정리하였다.





문학

[특집] '가정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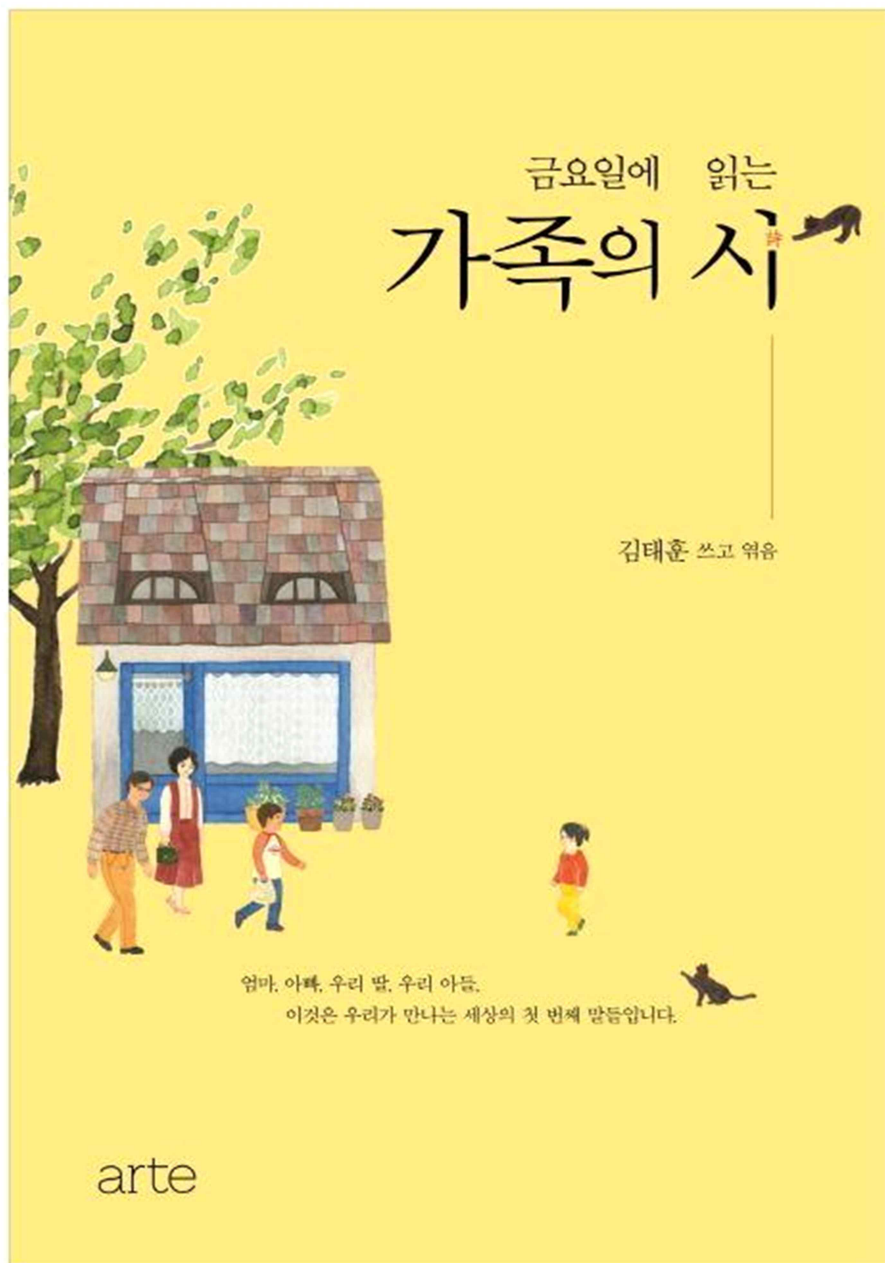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 저 자 ||
김태훈

|| 발행연도 ||
2016

|| 출판사 ||
아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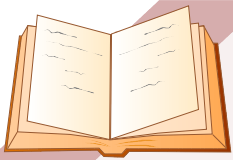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 청구기호 ||
811.7-김8327



【책소개】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시'를 통해 전달해 보는 시간, 금요일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금요일 저녁, 일주일 내내 바쁘다는 핑계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을 소재로 한 한국 현대시 50편을 소개하고, 시에 얹힌 뒷이야기를 감상으로 풀어나간다. 가족을 노래한 시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이 애송하거나 이해하기 쉽고 낭독하기에도 좋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며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생을 버티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문학

모월모일

모월모일

某月某日



박연준 산문집

"삶이 1퍼센트의 찬란과 99퍼센트의 평범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나는 99퍼센트의 평범을 사랑하기로 했다."

『소란』 박연준 시인의 신작 산문집

문학동네

|| 저 자 ||

박연준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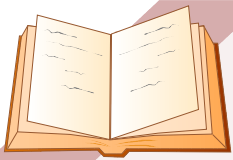
|| 청구기호 ||

814.7-박640

【책소개】 박연준 시인이 발견한 모월모일의 특별한 평범함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일상이 한순간에 달라졌다. 타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가급적 말도 섞지 않는 것이 예의인 요즘, 마스크와 에탄올 소독제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외출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집 앞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는 지극히 사소한 일상마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평범한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때에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 『모월모일』을 펴낸다.

끔찍한 날도 좋은 날도, 찬란한 날도 울적한 날도, 특별한 날도 평범한 날도 모두 '모월모일'이 아닐지. "빛나고 싶은 적 많았으나 빛나지 못한 순간들, 그 시간에 깃든 범상한 일들과 마음의 무늬"가 시인 특유의 깊고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새로이 발굴된다.



5월 18일, 맑음

5·18기념재단 기획
임광호 배주영 이민동 정수연 지음
박만규 감수

청소년과 함께 읽는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



역사

5월 18일, 맑음

|| 저 자 ||
임광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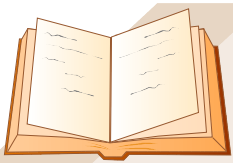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19

|| 출판사 ||
창비

|| 청구기호 ||
911.0745-소67초

【책소개】 청소년과 함께 읽는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

1980년 5월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5·18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다. 하늘이 맑아서 더욱 슬펐던 그해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진 항쟁, 그리고 그날의 죽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더욱 맑은 곳으로 만들고자 애써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어, 청소년들이 5·18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갖추 수 있도록 했다. 5·18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역사적 배경들, 특히 유신 시대와 6월 민주 항쟁 등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담았다. 5·18기념재단이 소장한 귀한 사진 자료들도 이해를 돕는다.



철학

친밀한 타인들

|| 저 자 ||
조반니 프라체토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프린티어

|| 청구기호 ||
189.2-프231초이

소중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심리학

친밀한 타인들

TOGETHER, CLOSER

조반니 프라체토 지음 | 이수경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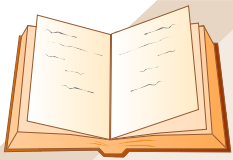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 정여울 작가

가디언지 선정 최고의 인문 심리 과학자 | <뉴욕타임스> <커커스> 추천
우리는 왜 서로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할까

프린티어

“소중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 심리학”

이 책은 친밀함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욕구, 불안에 대한 모든 의문점을 낱알이 살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친밀한 존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으로 풀어낸다.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과 가까워지고 이후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철학

[주제도서] '청렴'

바른 마음

|| 저 자 ||
조너선 하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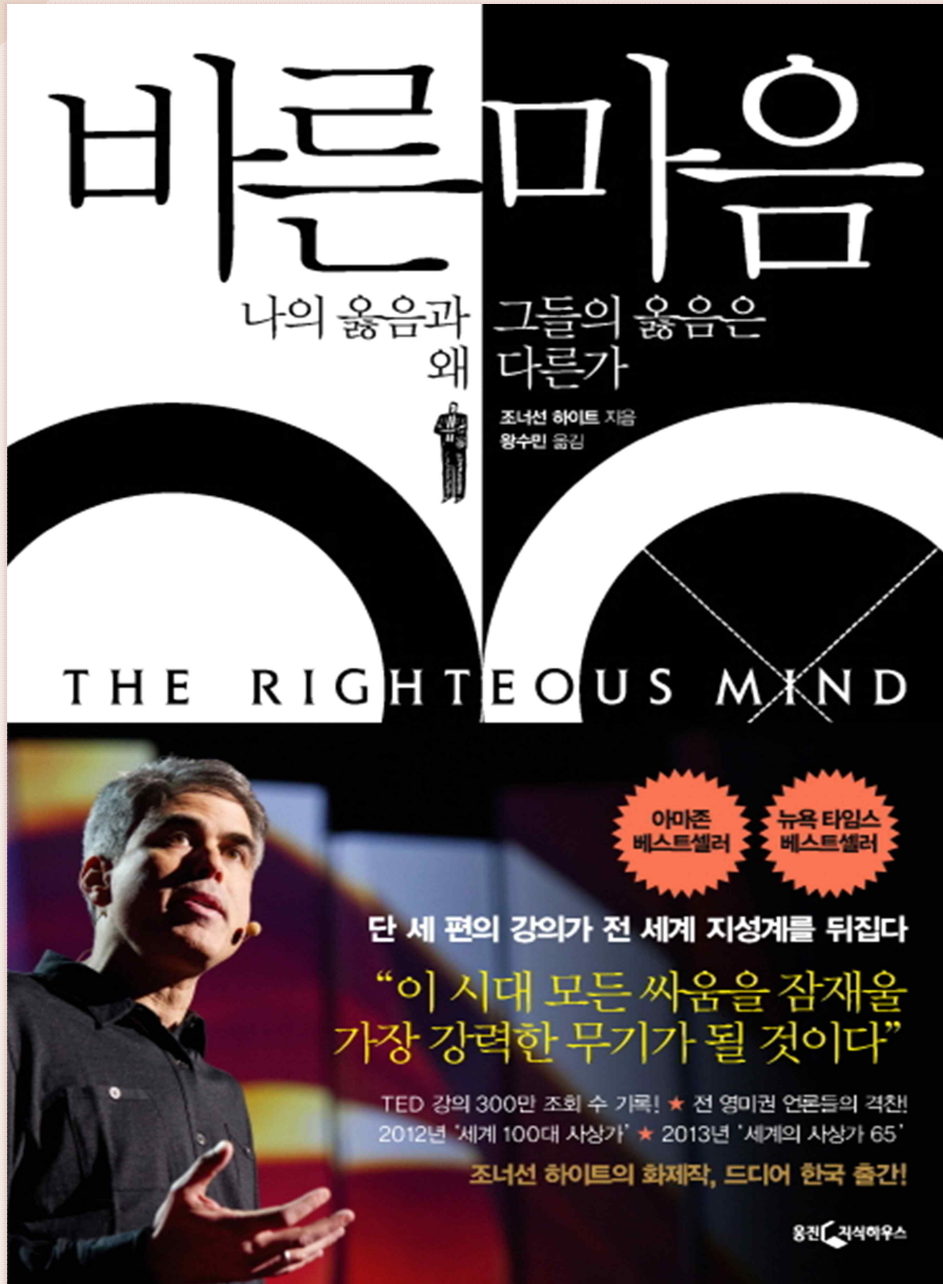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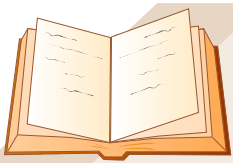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출 판 사 ||
웅진지식하우스

|| 청구기호 ||
190-하69b왕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 종교적 믿음,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중 자신이 선택한 것이 '가장 옳다'고 믿는다. 그 '옳음'을 위해 집단을 이루고, 행동하며, 심지어 삶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옳음의 힘은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도덕적 우위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뀌는가. 현재 영미권의 가장 '핫'한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근원에 놓인 '바른 마음'을 발견한다. 그동안 윤리와 정의를 다룬 책들이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이트는 직접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혔다.





오창호수도서관 종합자료실 《6월의 도서》

사회
과학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 저 자 ||
이본 쉬나드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라이팅하우스

|| 청구기호 ||
325.1-쉬211표이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인사이드 파타고니아"

이 책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계 최고가 된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과 이본 쉬나드의 60년 경영 철학을 공개한 최초의 책이다. 2005년 미국에서 첫 출간됐을 당시 사내용 경영 철학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연구 자료로 쓰였다. 경영서로는 이례적으로 아마존 환경 분야 1위를 기록한 이 책은 미국 풀뿌리 환경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이 기본이 된 시대에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원칙과 비전을 예언적으로 담고 있다.

patagonia®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인사이드 파타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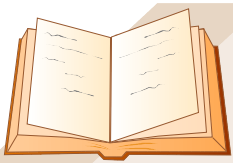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이본 쉬나드 지음 | 이명례 옮김

"7세대를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하라!"
금융위기에도 25% 성장한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

"감동적인 스토리, 독보적인 경영 철학,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사진"

→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저자

라이팅하우스



자연
과학

통념과 상식을 거스르는 과학사

|| 저 자 ||
로널드 L. 넘버스 외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글항아리사이언스

|| 청구기호 ||
409-넘43ㅌ김

"뉴턴에서 멘델까지, 과학을 둘러싼 역사적 오해들"

이 책은 중세시대부터 20세기를 거쳐 현재까지, 과학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짚으며 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의 '활동사'를 밝힌다. 과학을 비롯해 과학사, 과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8명의 학자가 참여한 이 책은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교육계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통념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탐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통념이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하며 과학 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펼쳐 보인다. 2014년 9월 워싱턴 앤드 리 대학교에서 열린 콘퍼런스를 바탕으로 엮었다.

통념과 상식을 거스르는 과학사



NEWTON'S APPLE
AND OTHER MYTHS
ABOUT SCIENCE

뉴턴에서 멘델까지, 과학을 둘러싼 역사적 오해들

YY

RR

ME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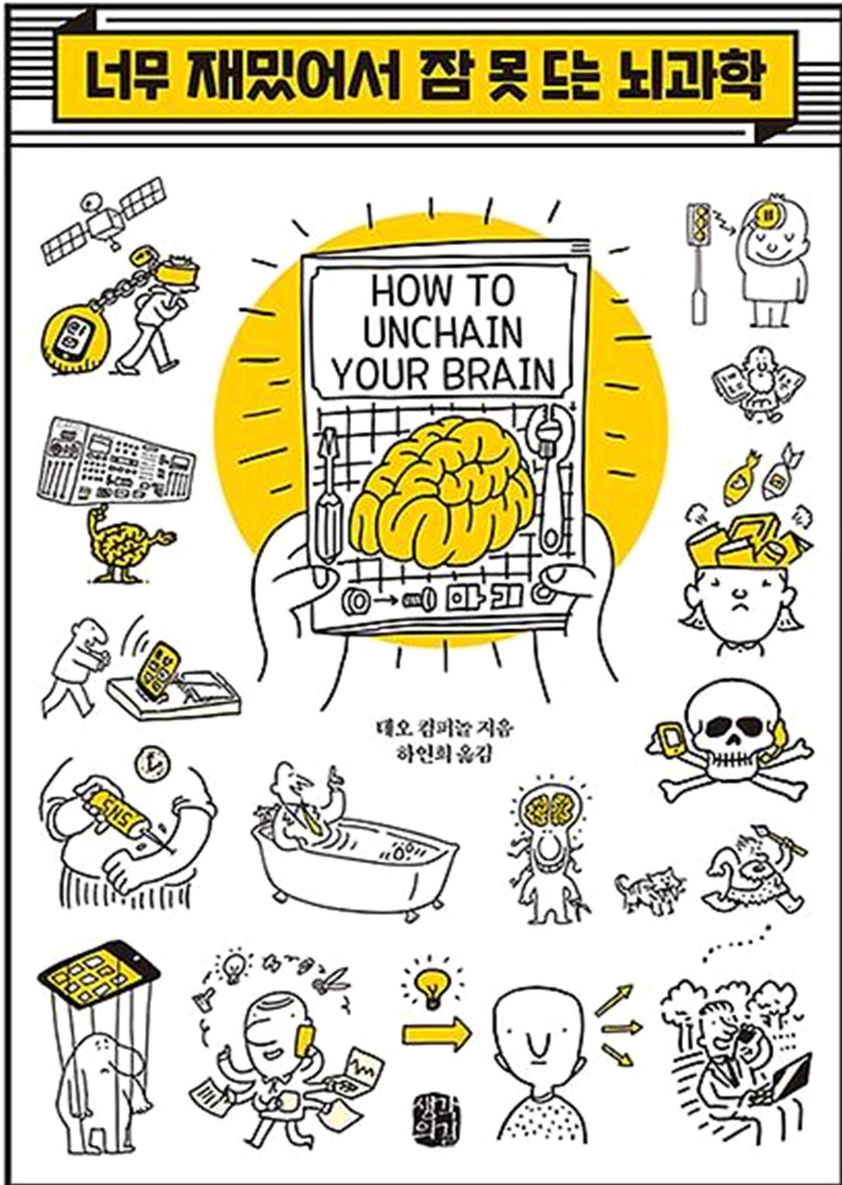
52

로널드 L. 넘버스,
코스타스 캄푸라키스
외음 권유문 옮김

글항아리사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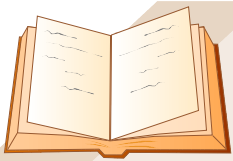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뇌과학



511.1813-컴843노하

"뇌과학을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최고의 책"

이 책은 우리 뇌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한다면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낮추면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도 더 창의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해 최신 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무한한 지적 능력을 키우는 “두뇌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 첨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뇌 활동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두뇌 활동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사용법을 뇌과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위대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한다.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 '예술'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

|| 저 자 ||
이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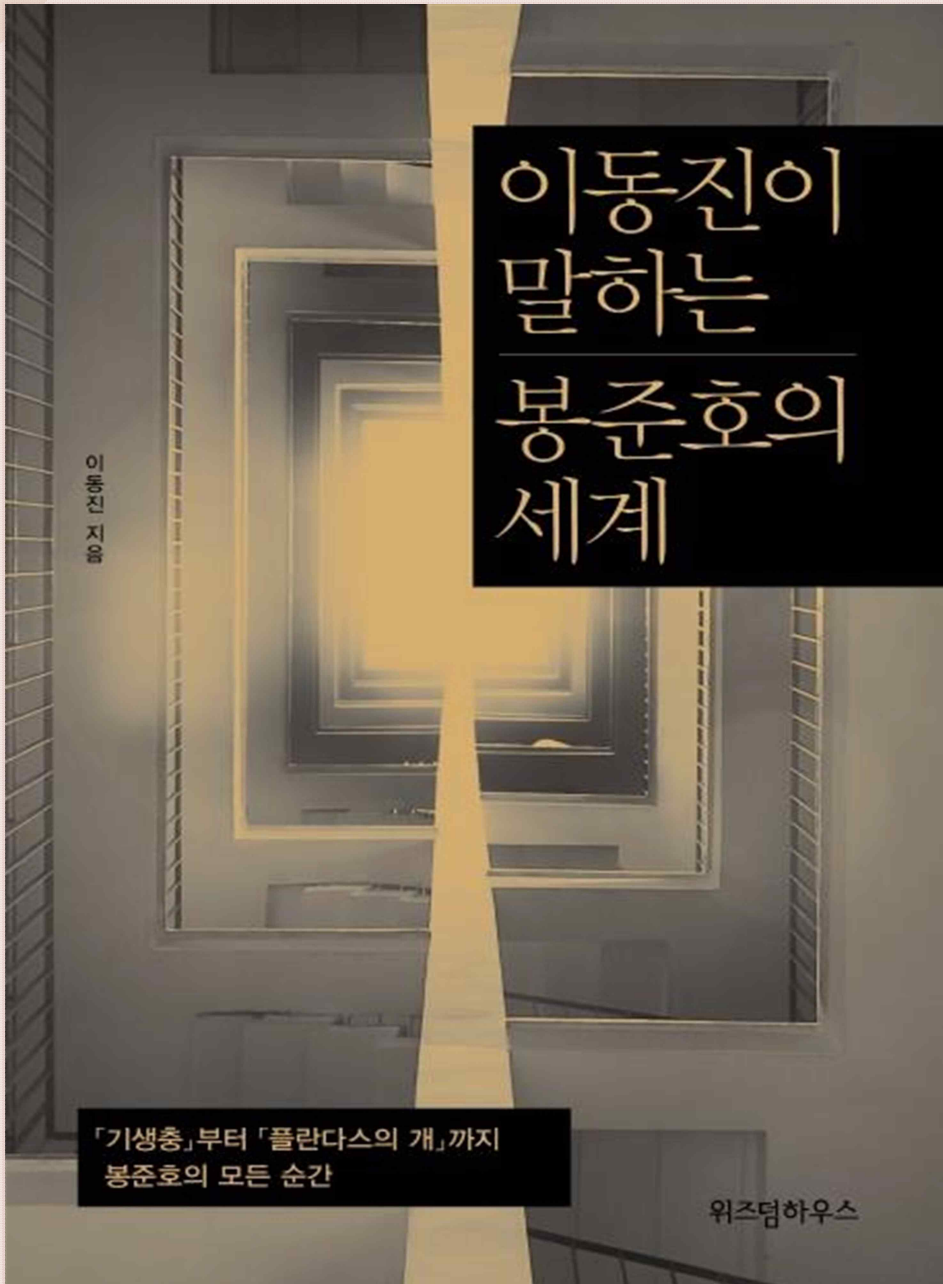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 청구기호 ||
688.0911-이2254

"「기생충」부터 「플란다스의 개」까지
봉준호의 모든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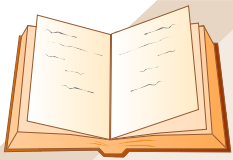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 비영어권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최초의 영화인 「기생충」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영화사에 새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의 작품세계를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고찰하는 책으로, '봉준호 감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장편영화 일곱 편을 다양한 시각에서 풍성하게 논하고 있는 유일한 책으로, 봉준호 감독의 현재가 갑자기 들이닥친 예외적 행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한계를 차례로 돌파하면서 여물어온 열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동진 지음

「기생충」부터 「플란다스의 개」까지
봉준호의 모든 순간

위즈덤하우스



언어

지적 리딩을 위한 워드 파워 30일

|| 저 자 ||
노먼 루이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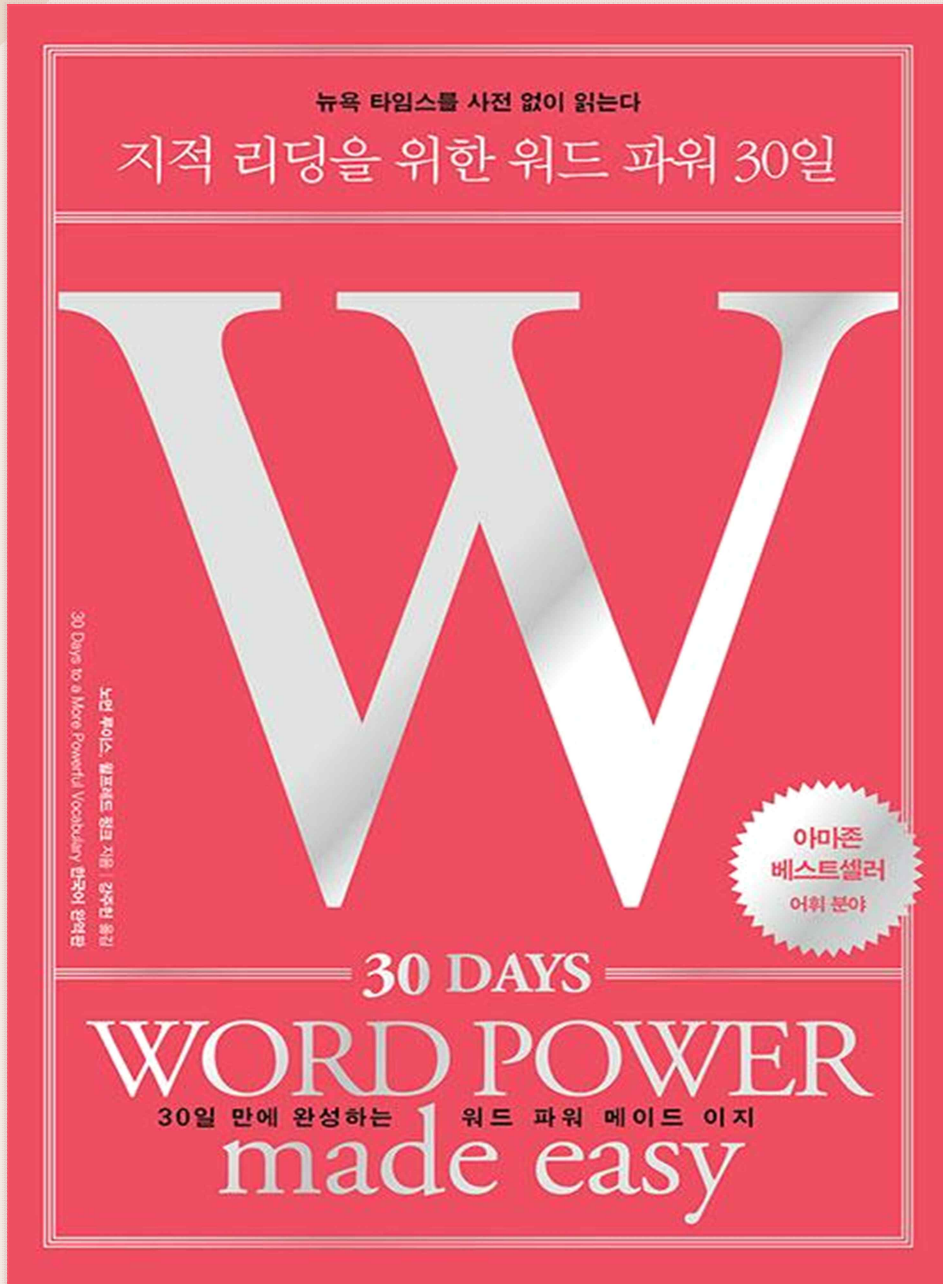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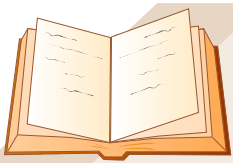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출판사 ||
월북

|| 청구기호 ||
744-루692강

"1942년 출간 이래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보카의 고전"

'어원 연구의 데일 카네기'라는 평가를 받는 노먼 루이스와 '당대 가장 지적인 사전편찬자'로 명성 높은 윌프레드 핑크의 합작 도서다. 이 책의 전제는 단순 암기식이나 개별 암기로는 영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어원과 토픽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단어를 덩어리로 묶어 주제어들을 개념 중심으로 설명한 후 다양한 연습문제를 풀고 또 풀어보면서 영단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하나의 어근으로 시작해 연관 단어들을 묶고 연습문제를 직접 풀면서 기억이 점점 단단해지는 계단식 구성을 따르고 있다. 원문을 100% 수록하여, 원서 한 권을 읽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책을 닫을 때쯤이면 아무리 어려운 텍스트라도 걸리는 단어 없이 읽게 될 것이다.





문학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 저 자 ||
황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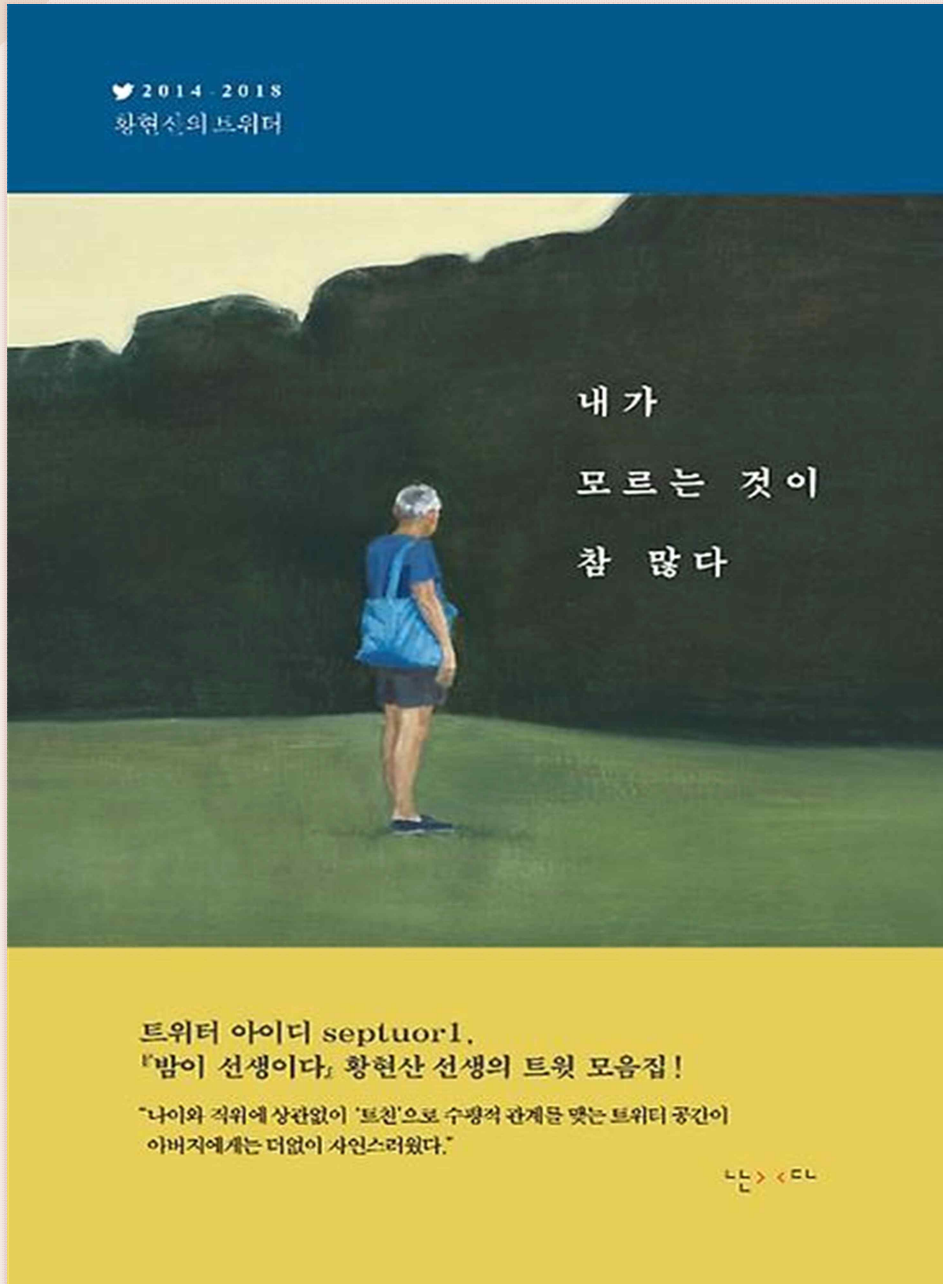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19

|| 출판사 ||
난다

|| 청구기호 ||
818-황94ㄴ

“소통하는 법을 아는 학자 황현산의
트위터에서 꺼내온 살아있는 이야기”

2018년 세상을 떠난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의 1주기를 맞아 생전에 그가 애정으로 즐기게 기록해왔던 트위터의 글들을 모아 엮어낸 책으로 우리 시대 참 스승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던 저자가 지치지 않고 이야기하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저자의 잡다한 사유가 마음껏 발휘된 글들, 저자의 평소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글들을 통해 평소 즐겨하던 농담들, 비상식적인 많은 것들에 대한 한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애정 어린 인사, 어느 곳에서 건져 올렸는지 가늠할 수 없는 은유와 이야기들까지 모두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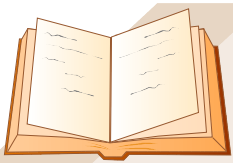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2014-2018
황현산의 트위터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트위터 아이디 septuor1.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선생의 트윗 모음집!

“나이의 격위에 상관없이 ‘트친’으로 수평적 관계를 맺는 트위터 공간이
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사연스러웠다.”

난다 < E.L.



문학

플로리다

|| 저 자 ||
로런 그로프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문학동네

|| 청구기호 ||
843.6-그235표청



『운명과 분노』의 젊은 거장 로런 그로프 최신작

“이 절박한 시대에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소설.” 뉴욕타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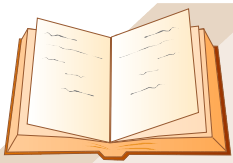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소설가 손보미 추천!

문학동네

“절박한 시대에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소설” -뉴욕타임스

작가가 12년간 플로리다에 거주하며 쓴 이 작품은 플로리다를 직접, 간접적인 배경으로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때로는 플로리다를 벗어나 이국적인 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지만 정서적으로는 플로리다에 계속 매여 있다. 플로리다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디테일하게 그려내며 한 장소가 품고 있는 정서와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이를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작품 전체에 위협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플로리다』는 소설집이라기보다 하나의 생태계다”(〈애틀랜틱〉)라는 평처럼, 로런 그로프는 시적인 아름다움과 본능적인 날카로움으로 그만이 창조할 수 있는 세계를 쌓아올린다.



역사

참모로 산다는 것

|| 저 자 ||
신병주

|| 발행연도 ||
2019

|| 출 판 사 ||
매일경제신문사

|| 청구기호 ||
911.05-신44초



왕권과 신권의 대립 속
실제로 조선을 이끌어간
신하들의 이야기

참모로 산다는 것

신병주 지음

조선시대 최고 전문가 신병주 교수가
참모의 정치를 말하다

건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도전에서
실록에 삼천 번 넘게 등장하는 송시열까지
역사 속 진정한 참모를 통해 현재의 답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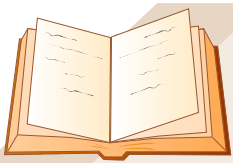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매일경제신문사



“왕권과 신권의 대립 속

실제로 조선을 이끌어간 신하들의 이야기”

조선시대 전문가 신병주 교수가 왕을 도와 조선을 이끌어간 참모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 조선의 역사를 담아낸 책이다.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기보다 참모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정을 운영해왔다. 조선시대 참모들은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저히 견제하기도 했는데,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40명의 참모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정치적,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거나 국난을 극복한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국정 농단의 주역이 된 참모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총류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

|| 저 자 ||
설민석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단꿈아이

|| 청구기호 ||
001.3-설39ㅅ

“ 지금, 당신의 인생 책은 무엇입니까? ”

25년간 역사를 공부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설민석이 인류 유산인 고전들을 이야기로 푼 인문교양서. 설민석은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강독을 진행하면서 만난 가슴 벅찬 인생 책들을 추려 못다 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두껍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인문서의 구조와 디테일을 시원하게 꿰뚫는 남다른 통찰력과 독자를 초집중시키며 쉽게 설명해 나가는 뛰어난 담화 능력. 설민석만이 가진 보석 같은 친절함이다.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는 그동안 책은 샀지만 읽지 못하고 서가에 꽂아 두었거나 방송을 보고 책을 사야겠다고 책 바구니에 넣어 둔 독자에게 직접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빠져드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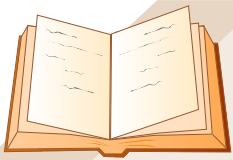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책 읽는 남녀를
위하여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tvN 인사이트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철학

[주제도서] '청렴'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 저 자 ||
김경집

|| 발행연도 ||
2016

|| 출판사 ||
샘터사

|| 청구기호 ||
193-김14즈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하나라는 깨달음"

누구나 살면서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 뭔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정의를 떠올린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정의란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거창한 구호로만 느껴지고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 김경집 교수는 정의는 일상 속 질문에서 시작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로 실현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들에 관해 질문을 던지며, 이처럼 끊임없이 묻고 캐고 따지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말한다. 정의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며 과정과 절차가 정당한지, 누군가의 고통이나 불행을 통해 내가 행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똑바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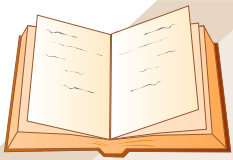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하나라는 깨달음

김경집 지음



샘터



사회
과학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 저 자 ||

존 카우치, 제이슨 타운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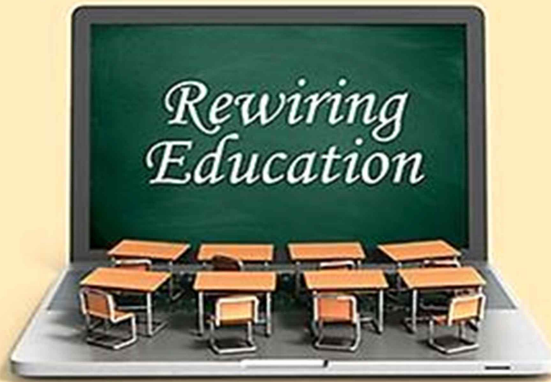
|| 출판사 ||

어크로스

|| 청구기호 ||

373-카677김

디지털 시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존 카우치·제이슨 타운 지음 | 김영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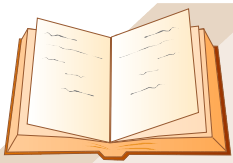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현실로 다가온 온라인 교실, 그 변화 속에서 놓쳐선 안 될
미래 교육의 핵심과 교육의 본질!

어크로스

" 디지털 시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

지금 교육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온라인 교육'이다. 최첨단 기술이 교육과 만나면서, 학습은 더 이상 교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개별화·맞춤형 교육의 시대가 온 것이다. 새로운 흐름과 함께 질문은 점점 늘어간다. 인터넷 검색이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눈앞에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필요한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다면, 학교나 교사는 왜 필요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다. 주요 교육 심리 이론과 다양한 교육 현장의 사례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교육의 새로운 공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미래 교육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사회
과학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 저 자 ||
악셀 하케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샘앤파커스

|| 청구기호 ||
385-하823口장

“차별과 배제,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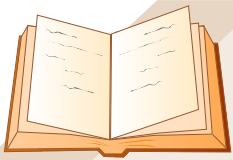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이 책은 유럽 전역에서 사랑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악셀 하케가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 품위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지점은 어디인지 다룬다. 악셀 하케는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품위와 관련한 철학적 사유, 문학 작품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쩌다 차별과 배제, 혐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 변론하면서 ‘품위 있는 삶’을 회복할 방법을 고민하도록 이끈다.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법

악셀 하케 지음 | 장윤경 옮김

차별과 배제,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하여

샘앤파커스



자연
과학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

|| 저 자 ||
브라이언 W. 커니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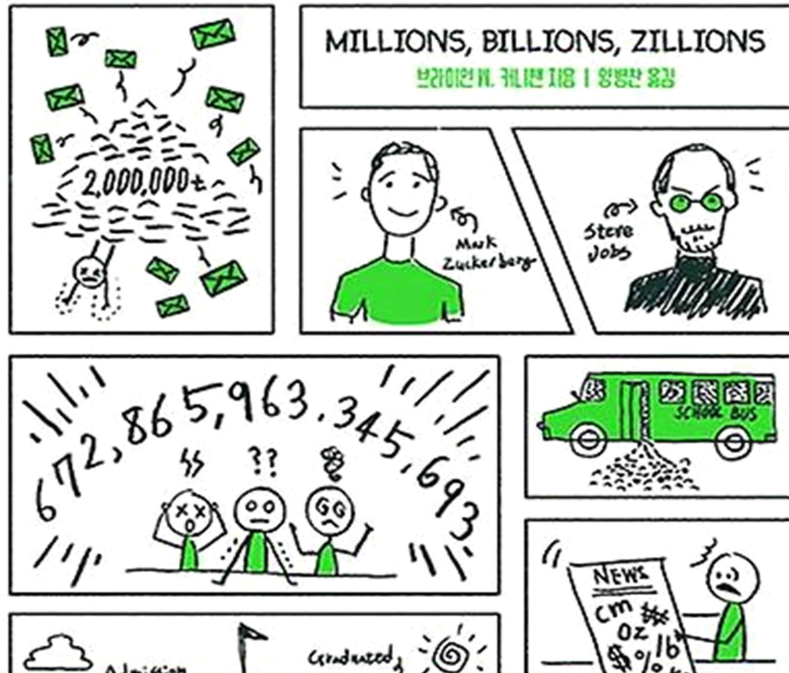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어크로스

|| 청구기호 ||
410-커219s양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

한 번 배우고 평생 써먹는 숫자 감각 기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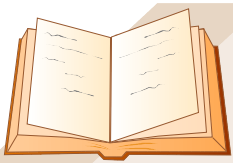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 큰 수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법
- ★ 크기와 양에 대한 감을 잡는 법
- ★ 쉽게 속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프린스턴 대학
논리학 교수의
수학적 바이블

어크로스

"한 번 배우고 평생 써먹는 숫자 감각 기르기"

"유닉스의 창조자", "C 언어의 아버지", "현대 컴퓨팅의 삼현(三賢)"으로 손꼽히는 프린스턴대학교의 브라이언 W. 커니헨 교수가 20년간 프린스턴대학에서 수학에 자신 없는 비이공계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숫자 감각'을 익히는 핵심적 방법을 모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숫자 감각을 기르기 위해 수학 공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에는 머리 아픈 수학 공식이나 확률, 함수, 미적분 같은 고급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W. 커니헨 교수는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례를 사칙연산으로 해결하며, 계산이 더욱 만만해지는 간편셈의 규칙들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기술
과학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 저 자 ||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동녘라이프

|| 청구기호 ||
513.8525-베238ㄷ추



우울증과 번아웃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저음
|
추미란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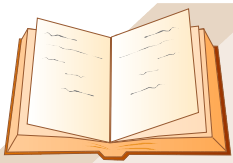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종일 피곤한 나
우울증일까, 번아웃일까?



“우울증과 번아웃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

“나는 우울증일까, 번아웃일까?” 살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자신이 우울증인지, 번아웃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얻고 싶은 독자를 위한 우울증·번아웃 필독서다. 독일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저자는 우울증과 번아웃을 약물로만 치료해선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생활 습관부터 인간관계까지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이 책만의 장점이다. 당신이 지금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책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유쾌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 '예술'

나만의 소중한 플레이리스트

|| 저 자 ||

김현경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문학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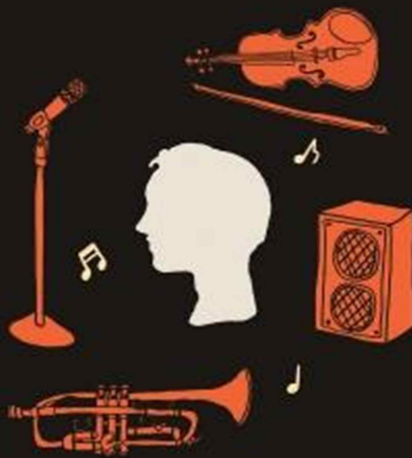
|| 청구기호 ||

670.4-김94ㄴ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교양서

나만의 소중한 플레이리스트

김현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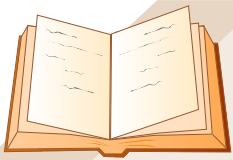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플레이리스트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음악 해설서

#리스트 #슈만 #차이콥스키 #스윙재즈 #듀크엘링턴 #비밥 #마일스데이비스
#방탄소년단 #워너원 #랩음악 #비틀스 #퀸 #마이클부블레 #필리프자루스키 & more

문학세계사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교양서"

중세의 클래식 음악을 시작으로 현대의 재즈, 팝, 록, 랩음악, 펄페라, 케이팝 등 대중음악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나만의 소중한 플레이리스트』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음악에 문외한인 이들에게도 빼놓지 않고 들어야 할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인 김현경은 음악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적 흐름을 짚어가며 독자들을 음악의 세계로 편안하게 이끈다. 무한한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클래식 음악, 본능적 자유로움의 대명사인 재즈 음악,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 분출에 환호하며 공감할 수 있는 대중음악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는 음악적 현상에 대해 살피는 한편, 음악을 듣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선사하며 음악 교양의 세계로 친절하게 안내한다.



언어

언어의 우주에서 유쾌하게 항해하는 법

|| 저 자 ||
신견식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사이드웨이

|| 청구기호 ||
701-신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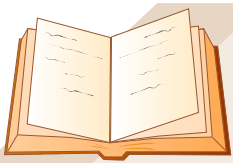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언	어	의	+	,	.	-	-	.	/	0	신
우	주	에	4	5	6				7	8	9
유	쾌	하	C	D	E	★	H	I	J	K	전
항	해	하	Y	Z	[]	\				적
는	법		f	g	h	i					
			w	x	y	z	{	}			
			»	¼	½	¾	À	Á	Æ	Ç	
			Ø	Ù					ß	à	ā
			ı	★		Ł	ł	ŕ			지
			Th					Ÿ			음
			F					™	Ω		
Δ	Π	Σ	-	/	√	∞	∫	≈	≠	≤	≥
	!	"	#	\$	%	&	()	*	+	.
어	느	어	도	락	가	의	9	:			
삶	과	공	부	W	X	Y	Z	[]	\	
				K	L	N	Ξ	O	Π	P	Σ
Φ	X	Ψ	Ω	α	β	γ	δ		θ	ι	κ
ρ	σ	τ	υ	φ	χ	ψ	★	Η	K	Λ	M
Φ	Π	Υ	Ω	α	β	γ	δ	ι	κ	λ	μ
い	う	え	お	か	き	く		さ	し	す	せ
に	ぬ	ね	の	は	へ	ほ	ま	み	む	め	も
・	ー			四	五	六	入	ス	タ	ト	チ
武	★	「	」	『	』	《	》	・	『	』	§
→	←	※	!!								★

15개 언어에 통달한 '언어천재'
번역가 신견식의 세계를 만나다 ———★

"언어의 세계로 이끄는 가장 믿음직한 안내자" _황석희(번역가)

"어느 어도작가의 삶과 공부"

이 책은 거의 독학으로 15개가 넘는 외국어에 통달하고, 25개 언어를 우리말로 옮긴 경험을 가진 번역가의 이야기다. 저자의 언어에 대한 치열한 호기심과 탐구의 자세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외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떠도는 외국어 공부법 또는 학습서보다 더 중요한 지점을 다루는 교양서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정말로 우주와도 같이 드넓고 탁 트인 저마다의 세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언어라는 우주, 언어의 바다에서 항해하던 일을 온몸으로 즐기고 있고, 그런 유쾌한 자세가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즐기치게 이야기하고 있다.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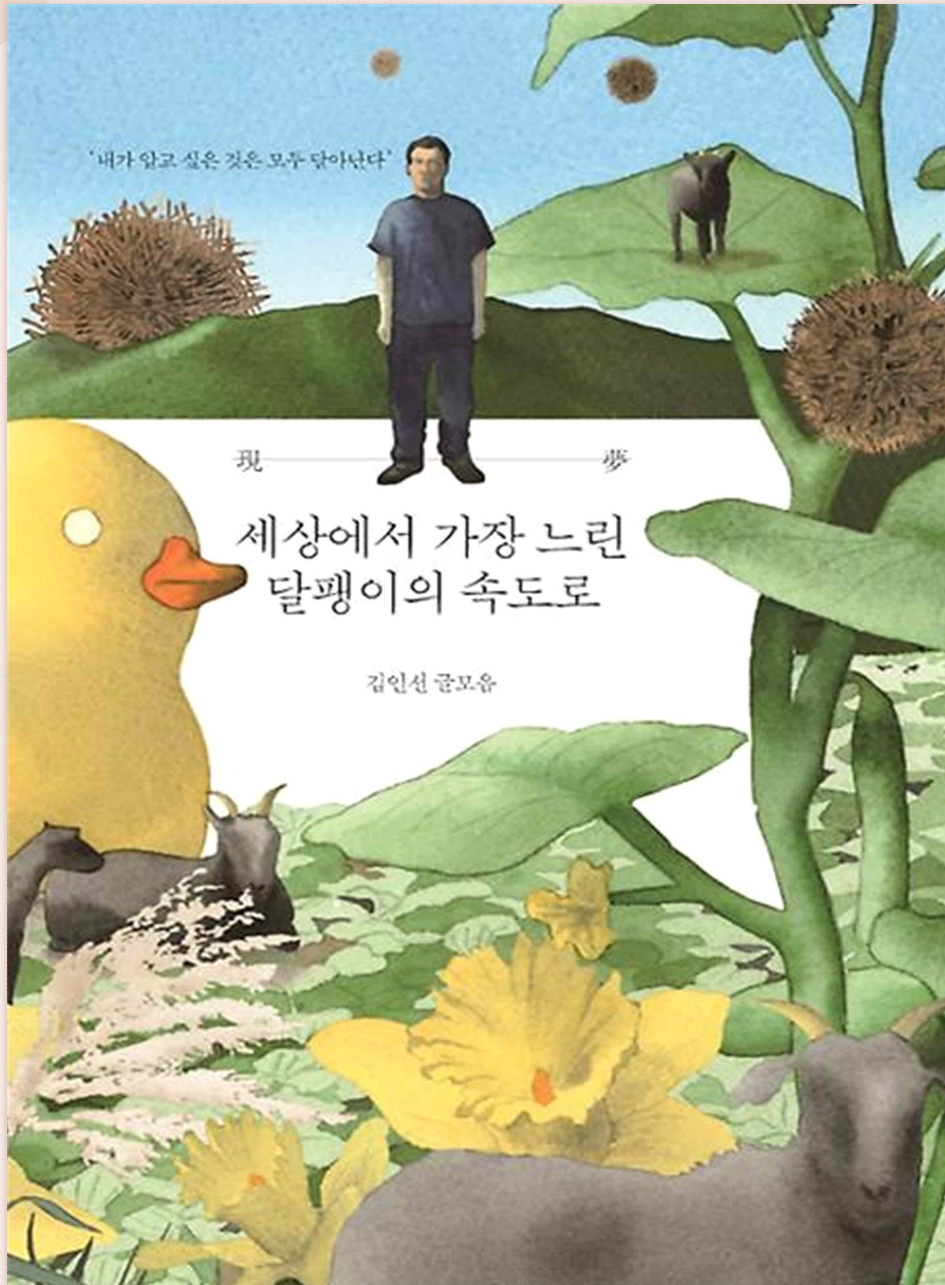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 저 자 ||
김인선

|| 발행연도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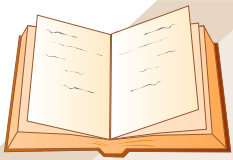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출 판 사 ||
메디치미디어

|| 청구기호 ||
814.7-김69ㅅ



“작가 김인선이 남긴 서정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럽고,
소박하면서도 신비로운 처음이자 마지막 문장들!”

저자는 1980년대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 등의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이미 뛰어난 문장으로 두각을 드러냈지만, 일찌감치 낙향한 이후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았다. 저자가 급환으로 홀연 세상을 떠나자, 평소 그의 글재주를 알고 사랑하던 이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에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동식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즐거움, 농촌의 인간군상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묘사와 함께 곤궁한 생활을 버티게 하는 허풍, 삶과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 현실과 꿈의 경계를 뛰어넘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에는 부적응자이자 아웃사이더인 동시에 자연 속에서 천진하게 살아가는 사색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꾼, 자신마저 웃음거리로 삼는 탁월한 농담가의 면모가 담겨 있다.



역사

아네스 바르다의 말

|| 저 자 ||
아네스 바르다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마음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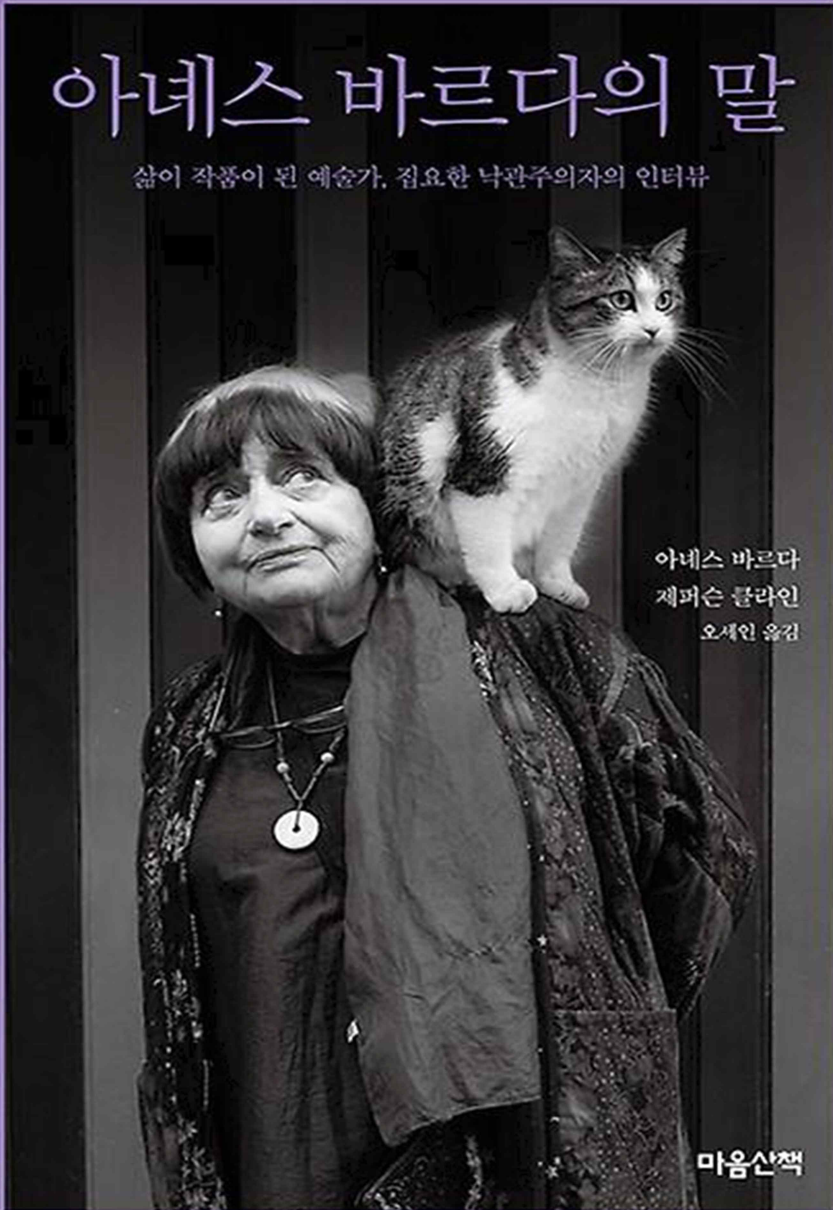
|| 청구기호 ||
998.68-바238△소

"삶이 작품이 된 예술가, 집요한 낙관주의자의 인터뷰"

처음으로 국내에 바르다를 소개하는 책 『아네스 바르다의 말』에는 1962년부터 2017년까지 55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스무 편의 인터뷰가 담겼다. 연도순으로 각본가, 영화평론가, 배우 등 각기 다른 스무 명의 인터뷰어와 나누는 때론 유쾌하게 장난스럽고 때론 묵직하게 진솔한 대화들은 읽는 이를 웃고 울게 한다. 유년 시절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자란 덕에 자유의 감각을 얻게 되었다는 일화부터 영화감독이자 창작자로서 느끼는 고충과 희열, 외부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며 예술적 자아를 유지하는 힘, 삶과 사람을 향한 애정, 여성운동의 흐름에 대한 견해까지 내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네스 바르다의 작품 세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까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 책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료집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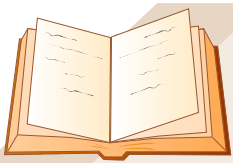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아네스 바르다의 말

삶이 작품이 된 예술가, 집요한 낙관주의자의 인터뷰



아네스 바르다
제퍼슨 클라인
오세인 옮김

마음산책



철학

[주제도서] '청렴'

살면서

한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

|| 저 자 ||

알렉산더 조지(엮음)

|| 발행연도 ||

2015

|| 출판사 ||

흐름출판

|| 청구기호 ||

190-조79서이

사소한 고민부터
.....
밤잠 못 이루는 진지한 고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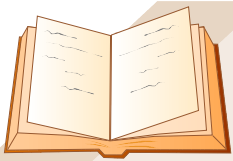
살면서
한번은
묻게
되는
질문들

알렉산더 조지 엮음 이현주 옮김

흐름출판

"사소한 고민부터 밤잠 못 이루는 진지한 고민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늘 문제와 마주친다. 옳고 그름, 선과 악,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문제들은 개인의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고 괴로워하기 십상이다. 저자는 일상에서도덕과 윤리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일반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간단하고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바로 일반인이 궁금한 철학 문제를 질문하면 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다. 그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의 질문과 철학자의 답변을 사이트에 올렸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지만 속 시원히 해답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머릿속 한구석에 남아 있던 물음들. 솔직해서 엉뚱한 이웃들의 질문에 대해, 동시대를 사는 철학자들의 쉽고 명쾌한 응답이 이어진다.



철학

인생의 태도

|| 저 자 ||
웨인 다이어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더퀘스트

|| 청구기호 ||
199.1-다694이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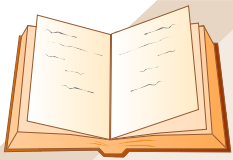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전 세계 3,500만 독자들이 존경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전하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는 법



더퀘스트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계속 달라지지 않아 고민이라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결국 태도가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누군가에게 'YES'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NO'를 말할 것인가 등 무수히 많은 결정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한다. 웨인 다이어는 그런 선택에 앞서 그것이 외부동기에 의한 것인지 내적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내가 나를 어떤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라며, 당당하게 살 것을 독자에게 전한다.



종교

요가, 몸으로 신화를 그리다

요가, 몸으로 신화를 그리다

뒤집히고 얹히고 버티는 신들의 요가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을 배우다

클레망틴 에르피쿰 Clémentine Erpicum 지음
류은소라 옮김



신화와
어원으로
읽는
요가
이야기



|| 저 자 ||
클레망틴 에르피쿰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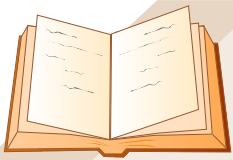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출판사 ||
미래의창

|| 청구기호 ||
219.15-에238ㄹ류

"당신의 요가에 깃든 신화를 만나다"

아사나(요가 자세)의 이름은 복잡하고 생소하다. 그러나 이 모든 자세는 저마다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요가 자세에 이름을 남긴 신과 인간, 동물과 사물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보자.

이들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 요가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요가라는 마법에 이끌리고 있는 당신에게 이들의 사랑과 다툼, 만남과 모험의 이야기가 진정한 요가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요가는 몸으로만 이루는 수행이 아니다. 자세에 담긴 의미와 상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다면, 당신의 삶에도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들의 요가를 몸과 마음으로 담아내려는 당신에게 이 신비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사회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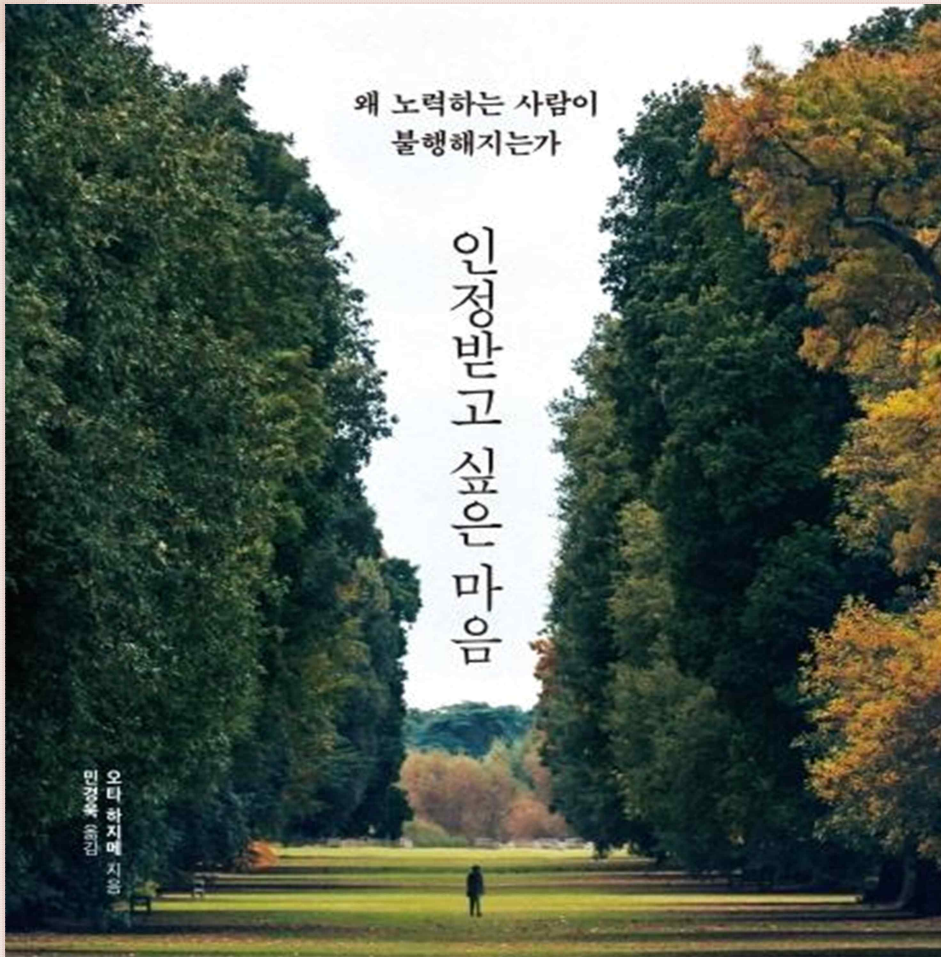
인정받고 싶은 마음

|| 저 자 ||
오타 하지메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웅진지식하우스

|| 청구기호 ||
325.3-소831ㄸ민



오타 하지메 지음
리자카루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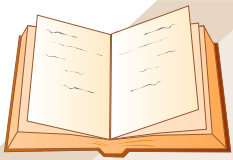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두 사람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인정 욕구라는 감옥

SNS '좋아요' 중독부터 번아웃까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왜 인간을 무너뜨리는가

웅진지식하우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왜 인간을 무너뜨리는가"

이 책은 '인정 욕구 중독'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인정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조차 본질적으로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짚어준다. 이를 통해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이 우리의 일과 생활 속에 얼마나 퍼져 있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힌다. 나아가 스스로를 옹아매지 않기 위해, 상대를 인정 욕구에 가두기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인정 욕구라는 거대한 괴물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알려 준다.



자연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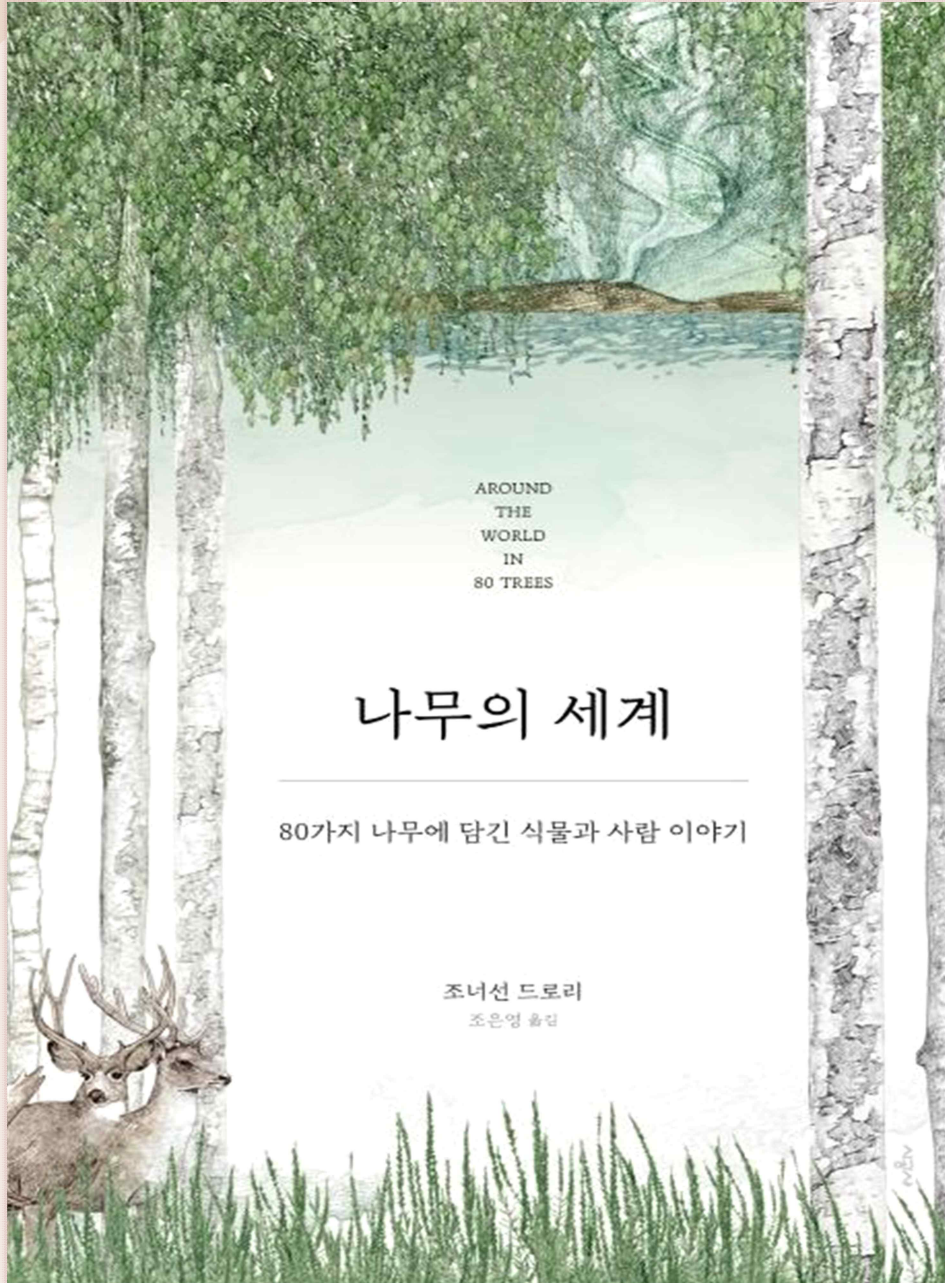
나무의 세계

|| 저 자 ||
조너선 드로리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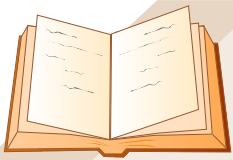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출판사 ||
시공사

|| 청구기호 ||
485.16-드235-조



“가장 흥미롭고 매혹적인 80가지 나무 이야기”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명소인 영국 런던 큐 왕립식물원의 이사였으며, 여러 차례 식물에 관한 TED 강연으로 인기를 얻은 영국의 식물학자 조너선 드로리의 나무에 관한 아름다운 책으로 전 세계 최소 6만 종이 넘는 나무들 가운데서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나무 80종의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부터 동쪽으로 떠나는 나무 여행은 여섯 개의 대륙을 거쳐 북아메리카에서 끝을 맺는다. 이 여정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도 있고, 처음 볼 법한 나무도 있지만 모든 나무에 얹힌 사연을 접하다 보면 오늘 길에서 마주친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기술
과학

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 저 자 ||
클라이브 D. L. 윈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현암사

|| 청구기호 ||
527.4186-원8287전

"개가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외출했다가 돌아온 가족을 본 개는 꼬리를 흔들고 얼굴을 핥으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한다. 집 없는 떠돌이 개도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고, 주인과 산책하던 개도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개들은 대개 인간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처음 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개를 보고 이런 의문을 한 번쯤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개는 인간을 왜 좋아하는 걸까? 어쩌다 개는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을까? 저자는 미국의 보호구역에서 늑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러시아의 유전학 연구소에서 가축화된 여우를 만나고, 니카라과 원주민의 개 동반 사냥에 따라나서는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간다. 개의 사랑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책은 개와 인간이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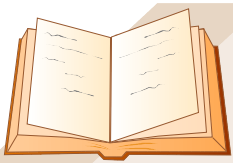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개의 특별한 애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
클라이브 D. L. 윈 지음 전행선 옮김

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 하는가

Dog is Love :
Why and How Your Dog Loves You



현암사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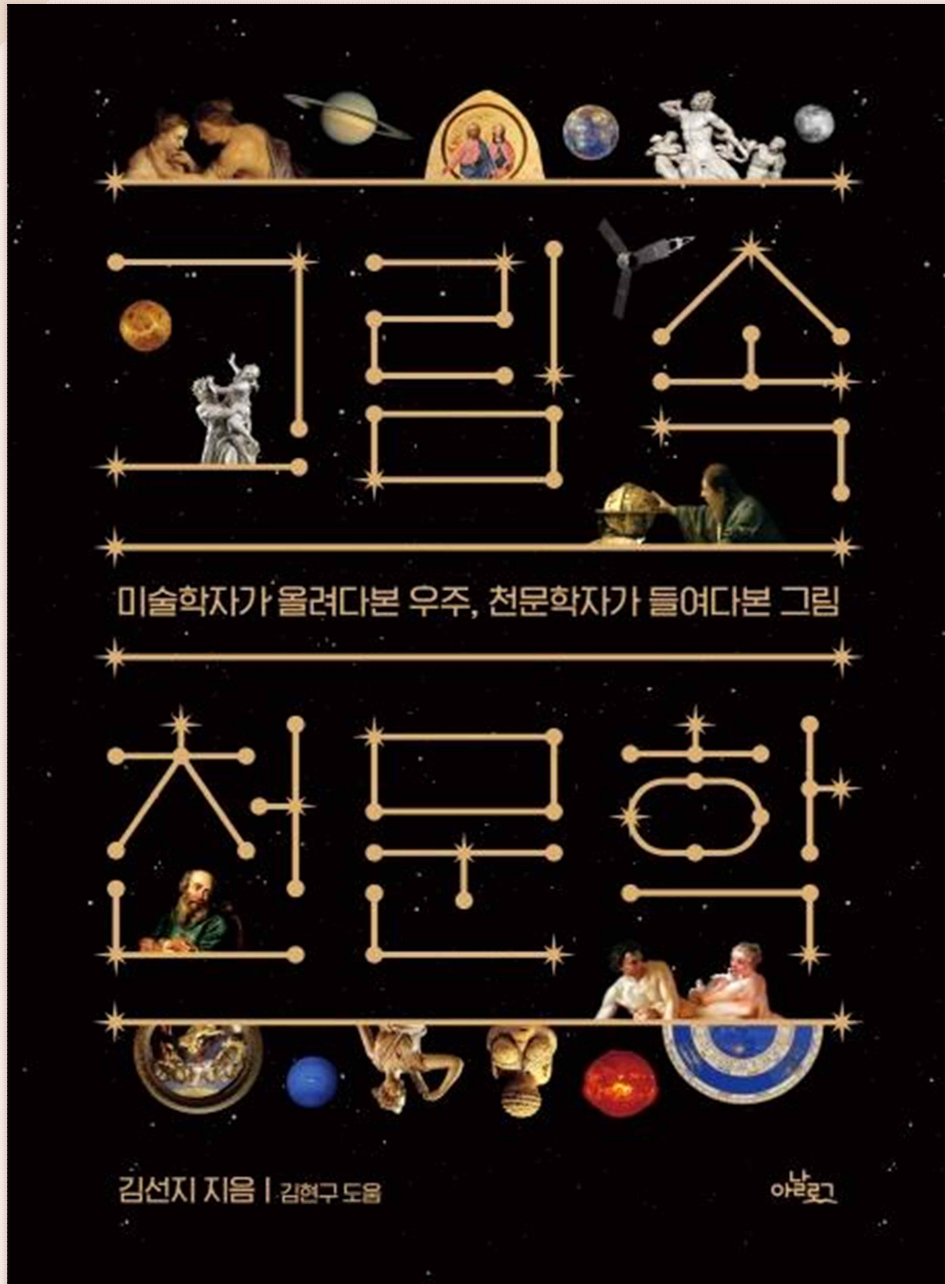
그림 속 천문학

|| 저 자 ||
김선지, 김현구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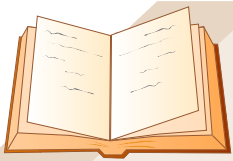
|| 출 판 사 ||
아날로그

|| 청구기호 ||
650.4-김537



"미술학자가 올려다본 우주, 천문학자가 들여다본 그림"

이 책은 천문학의 시선으로 예술작품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행성 특징을 살펴보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신들을 묘사한 작품을 알아본다. 2부에서는 명화 속에 나타난 천문학적 요소와 밤하늘의 별과 우주를 살아한 화가들의 삶과 그들 작품을 살펴보았다. 뒤러, 랭부르 형제 등의 작품에 숨겨져 있는 천문학 요소들을 찾아보았고, 엘스하이머, 루벤스, 고흐, 미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철학, 상상력으로 그린 밤하늘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미술을 전공한 저자가 천문학자 남편 김현구 박사와 함께 별과 행성, 우주, 그림과 화가들의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완성한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주라는 미술관으로 독자들을 안내할 것이다.



언어

정정혜 샘과 함께하는 첫 영어 그림책

|| 저 자 ||
정정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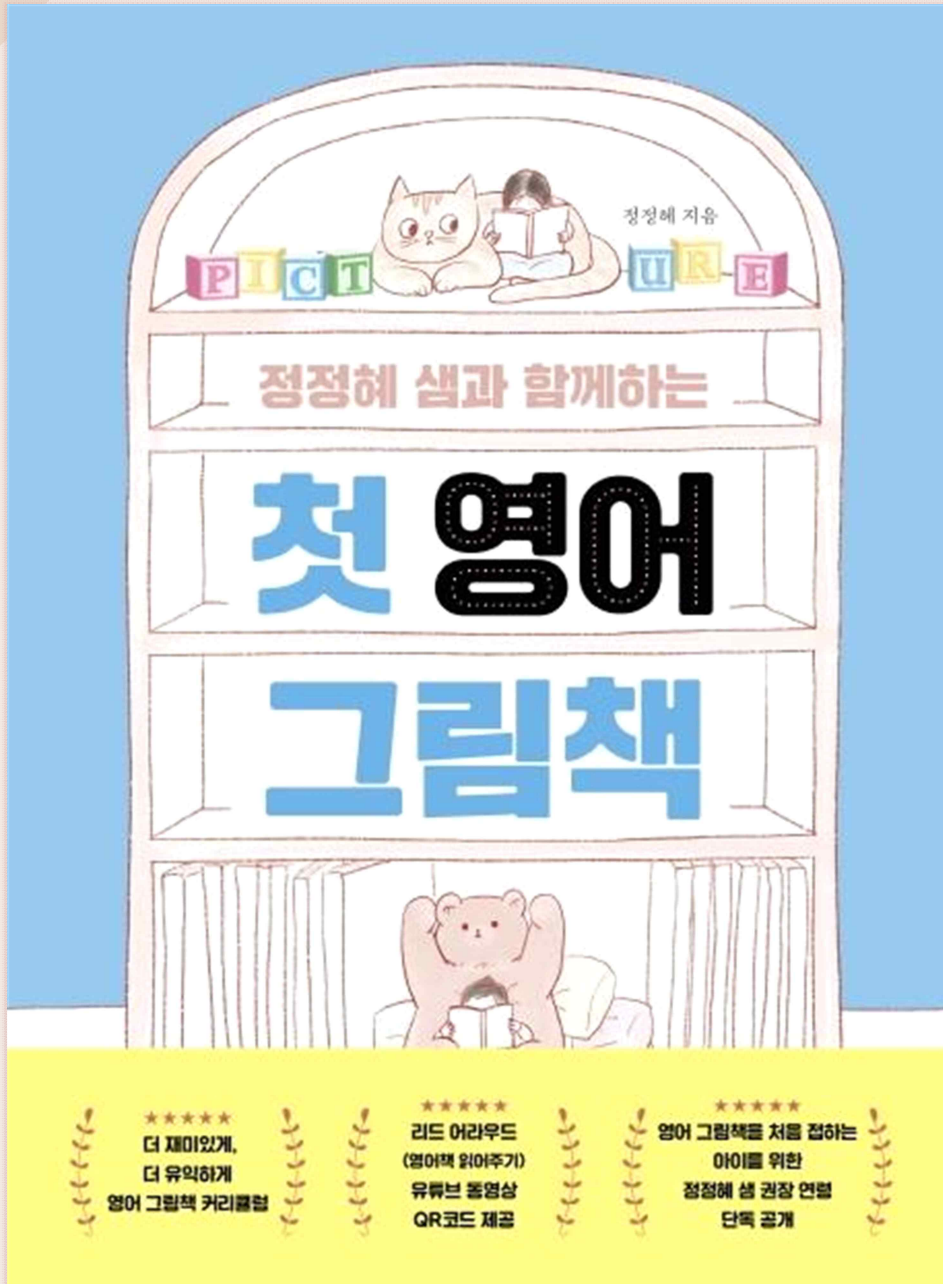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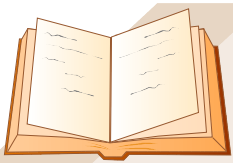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출판사 ||
북하우스

|| 청구기호 ||
740.7-정73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라면 영어 그림책으로 놓아주세요”

이 책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책이다. 저자는 『혼자서 원서 읽기가 되는 영어 그림책 공부법』 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리드 어라운드 방법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왜 읽어주어야 하는지, 영어 읽기와 그림 읽기의 조화로운 독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어떻게 읽어주어야 아이가 영어 그림책을 재미있어하는지 알쏭달쏭하다는 것. 이번 책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과 리딩 스킬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교사들을 위한 ‘하우 투 리드 어라운드’, 즉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 책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문학

시티 픽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저 자 ||
조남주 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한겨레출판

|| 청구기호 ||
813.7-시839ㄴ

“ 당신의 도시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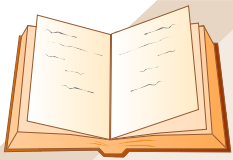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이 책은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을 펼치는 7인의 작가가 나의 일상, 나의 도시를 새롭게 감각한 일곱 편의 단편소설과 함께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작가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작가들은 종묘, 광화문 교보문고, 울산 공중 관람차 등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균열을 써내려간다. 그 장소에 가본 사람만이 아는 느낌, 기분, 분위기는 7인의 상상력으로 조금씩 뒤틀리고 전복되며 우리가 아는 도시를 새롭게 채운다. 그들이 펼쳐낸 익숙한 도시의 낯선 풍경은 갑갑한 매일이 반복되어 마음까지 움츠러든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조남주
정용준
이주환
조수경
임현
장지문
김초엽



시티 픽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한겨레출판



역사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 저 자 ||
심용환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비에이블

|| 청구기호 ||
911-심664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KOREAN HISTORY 한국사365

MON	TUE	WED	THU	FRI	SAT	SUN
사건	인물	장소	유적·유물	문화	학문·철학	명문장

백제금동대향로

부여 능산리 일대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 향로다. 화려한 청동기 예술품을 제작하는 기술은 고대 중국에서 전래를 이루었다. 중국 산둥성에는 백산(博山)이 있는데, 그 산의 모양을 본뜬 향로가 현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청동으로 만들고

은 빛을 발하며 각종 백제의 종교 전통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통으로 묘사된 팔룡은 천룡·상룡을 반영했고, 향로 하단부의 연꽃은 불교를 상징한다. 무령무에서는 무로, 선원이 사는 이상 세계를 묘사했는데, 불교장엄하는 신선이 살고 있는 장선산, 다섯 가지의 재, 스승에 게의 산봉우리 그리고 나무, 마취, 곡물, 사냥물이 실려있어 묘사에 있다. 또, 유교의 예악을 표현하기 위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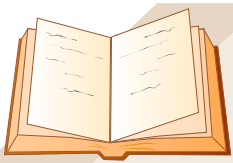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1일 1페이지 365일이면 역사의 흐름이 보인다
한국사를 처음 배우는 사람, 다시 배우는 사람 모두를 위한 단 한 권의 책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 365개를 1권에 담았다”

이 책은 매일 1페이지씩, 365개의 주제를 읽으며 한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건, 인물, 장소, 유적·유물, 문화, 학문·철학, 명문장 총 일곱 분야의 지식을 다루고 있어 한국사의 주요 장면을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다. 관심 있는 내용부터 읽어도 좋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도 좋다. 재미있게 읽기만 하면 지식이 쌓이고, 대화가 풀리고,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주제를 1페이지씩 담아 글은 짧고 쉽지만, 내용은 깊고 충실하다. 그래서 한국사를 처음 배우는 사람, 다시 배우는 사람 혹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교양을 쌓고 싶은 사람,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총류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

|| 저 자 ||
강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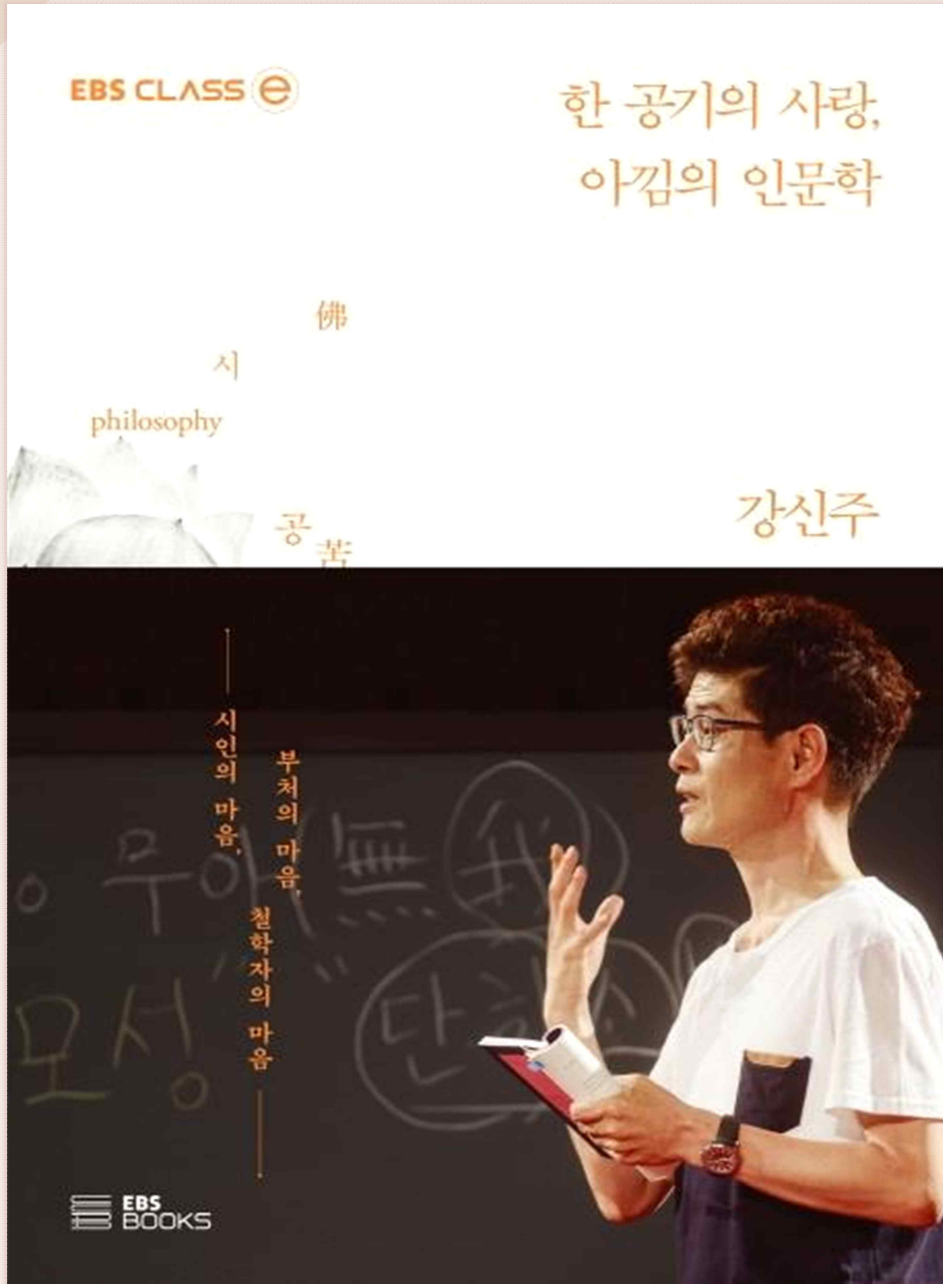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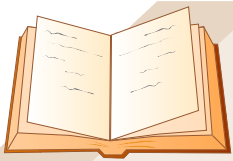
|| 출 판 사 ||
EBS Books

|| 청구기호 ||
001.3-강59ㅎ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공기의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한 시대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를 자꾸만 공허하게 만든다. 누군가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 '아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철학과 삶을 연결하며 대중과 가슴으로 소통해온 철학자 강신주의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 불교 철학을 담은 여덟 단어와 동서양 철학, 문학을 통해 '사랑'과 '아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책이다.





사회
과학

[주제도서] '청렴'

판사유감

|| 저 자 ||
문유석

|| 발행연도 ||
2014

|| 출 판 사 ||
21세기북스

|| 청구기호 ||
360-문67표



判 事 有 感

판사 유감

문유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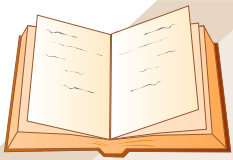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
부장판사 문유석의 법원 유감!

개정
증보판

문학동네

"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

저자가 법과 계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그의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 준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법정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사들의 사례도 소개한다. 또한 법원이란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사회 단면과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았다. 판사인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그동안 책임만 물었던 판사라는 직업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사회
과학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 저 자 ||
조혜경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원앤원북스

|| 청구기호 ||
327.04-조940

밀레니얼의 돈 관리 가이드



조혜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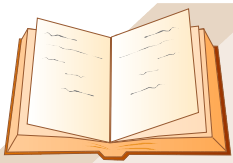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돈을 불리는 가장 쉬운 방법!

원앤원북스

“오늘도 월급이 통장을 스친다.
아아, 그는 좋은 월급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월급날만을 기다렸지만 행복은 잠시뿐, 월급은 통장을 가볍게 스쳐지나간다. 각종 카드사와 보험사의 “퍼가요~♡” 공세에 월급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재테크는 남 일 같다고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재테크 책이 나왔다.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라는 질문에 “매달 적금 넣고 있어요.”라거나 “엄마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어요.”라고 답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 혹은 주식에 대한 이해 없이 직장 동료의 추천만으로 다짜고짜 주식 투자에 뛰어든 전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장 이 책을 펼쳐보아야 한다.



사회
과학

사람에 대한 예의

|| 저 자 ||

권석천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어크로스

|| 청구기호 ||

330.911-권53사

사람에 대한
예의
권석천

"극단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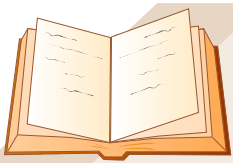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우리가 놓친 것들을 낫선 눈으로 돌아보다"

우리는 재벌과 공직자의 갑질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 말하는 자들에게 신경이 곤두선다. 성폭력에 분노해 모여서 외치고, 막말을 참지 못해 언론사에 제보한다. 그리고 말한다. 제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변화는 계속되는데 왜 사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걸까. 우린 왜 사람을 종종 잊고 마는 걸까. 칼럼이 나오는 날이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독자들이 달려가며 읽는 거의 유일한 글쟁이, '중앙일보의 송곳'으로 불리는 그는 책에서 극단적인 대립, 각자도생의 한국 사회를 통과하며 우리가 놓쳐버린 가치들을 되돌아본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극단의 시대, 각자도생의 세상을 통과하며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을 되돌아보다

어크로스



자연
과학

새는 건축가다

|| 저 자 ||
차이진원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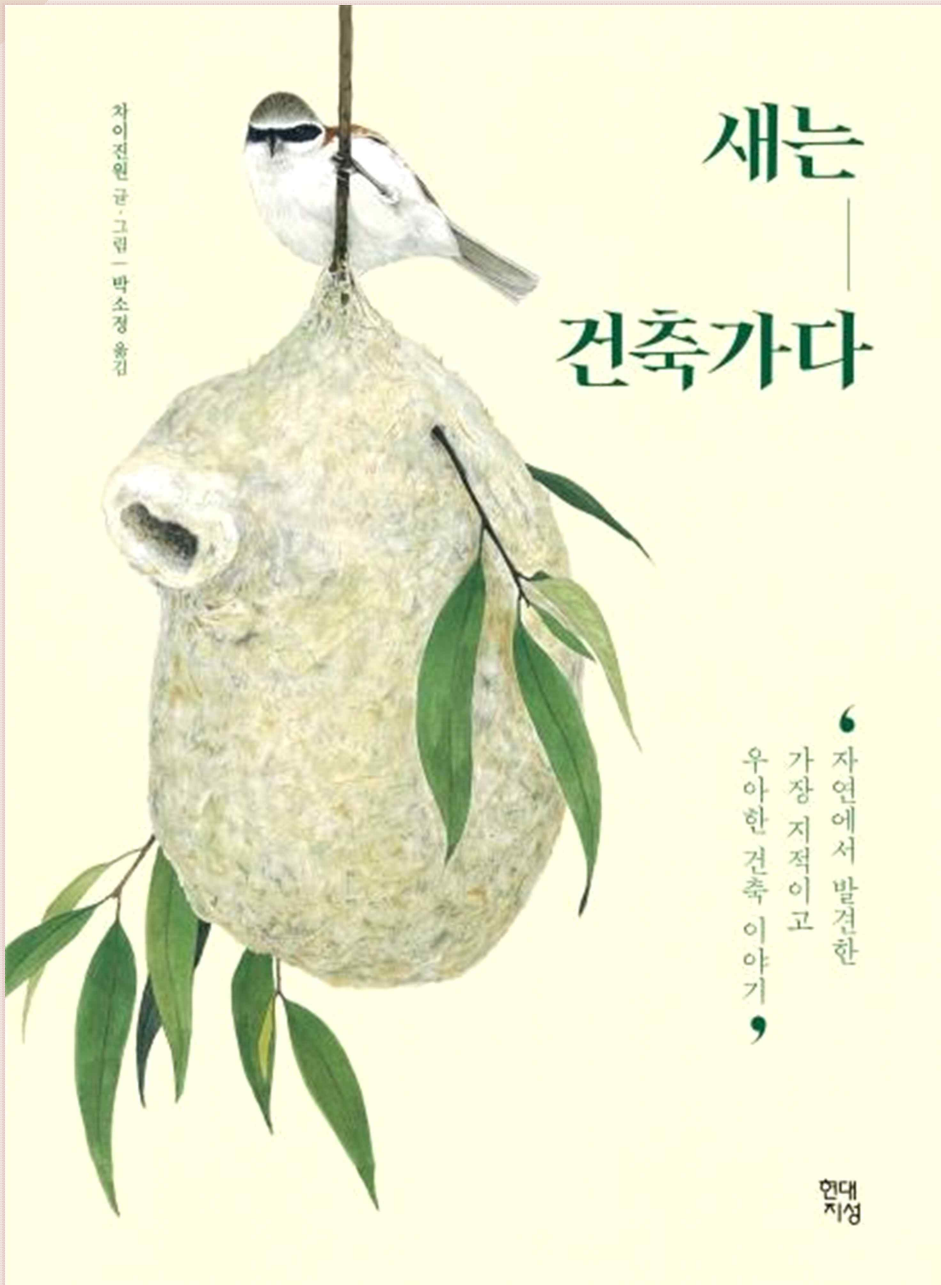
|| 출판사 ||
현대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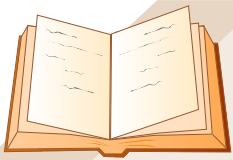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청구기호 ||
498-차69s박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지적이고 우아한 건축 이야기"

연구자이자 생태 화가인 차이진원은 대자연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조류가 어떻게 온기 가득한 집을 짓는지 관찰하고 이를 섬세한 손길로 그려냈다. 조류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공룡부터 까치, 제비 등 익숙한 새는 물론, 둥우리를 바느질하는 새, 자동차 만한 둥우리를 짓는 새, '깃털 달린 피카소'라 불리는 새까지 신기하고 놀라운 새들의 건축 이야기와 생활상을 한곳에 담았다. 생생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멀고도 가까운 새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이다.





기술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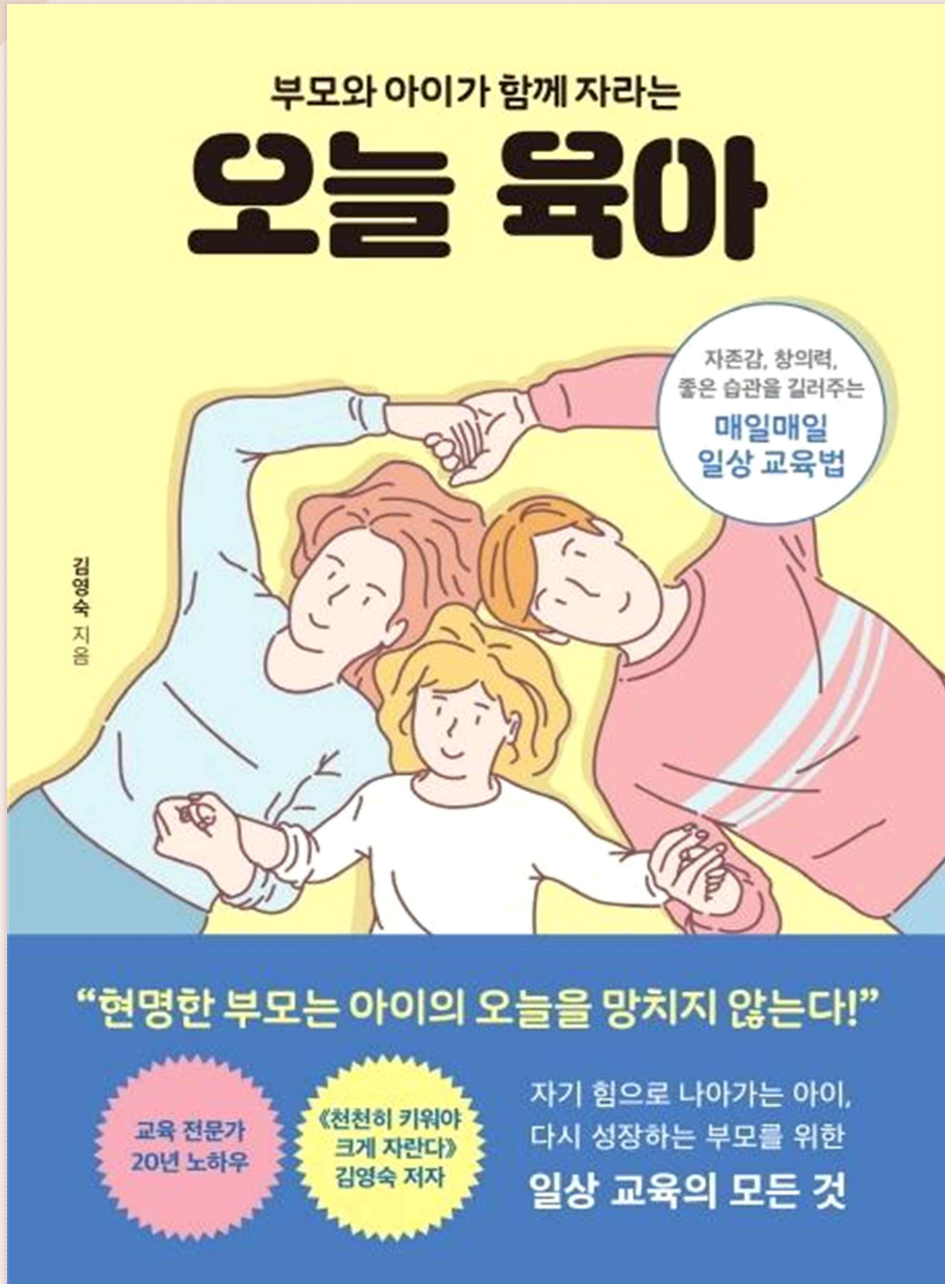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오늘 육아

|| 저 자 ||
김영숙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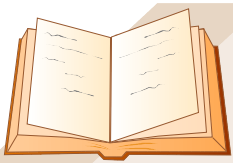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출판사 ||
북하우스

|| 청구기호 ||
598.1-김644



“자존감, 창의력,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매일매일 일상 교육법”

편안하고 즐겁게 키우고 사교육도 하지 않았는데, 두 아이 모두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 아이들에게서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신의 삶도 놓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 20년, 엄마 경력 30년 김영숙 저자의 이야기다. 전작 《천천히 키워야 크게 자란다》를 통해 ‘천천히’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부모와 선생님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던 그가 보다 풍성해진 경험, 깊어진 통찰로 ‘일상 교육’을 말하는 《오늘 육아》로 돌아왔다. 아이에게 자존감, 창의력,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상 교육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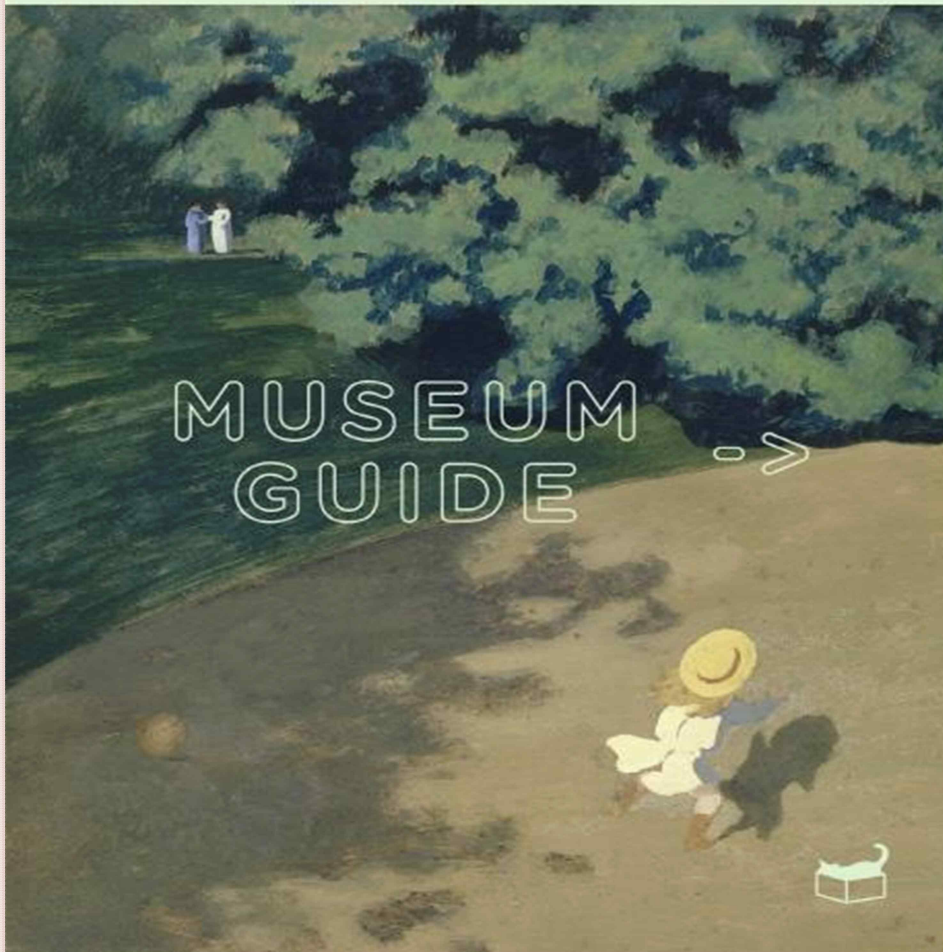


오창호수도서관 종합자료실 《9월의 도서》

우리 각자의
➡ 미술관 <➡

Title. A Museum of One's Own
Writer. 최혜진

지식 없이 즐기는 그림 감상 연습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 '예술'
우리 각자의 미술관

|| 저 자 ||
최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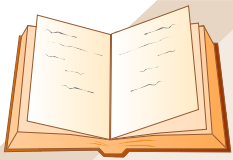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휴머니스트

|| 청구기호 ||
650.4-최940

" 지식 없이 즐기는 그림 감상 연습 "

이 책은 지식 없이도 그림과 깊이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림 감상 실용서'다. 미술관과 미술 애호가인 최혜진 작가가 수년간 실천해온 그림 감상법을 담았다. <그림에게 묻고 답하기>라 이름 붙인 이 감상법은 지식과 이론으로 이해하는 감상이 아닌, 작품과 순수하게 교감하며 즐기는 길을 알려준다. 그림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막막했던 이들에게 든든한 감상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다.



언어

언 다르고 어 다르다

|| 저 자 ||
김철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돌베개

|| 청구기호 ||
714-김8134

"슬기로운 낱말 공부"

이 책은 우리말 어휘들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하여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우고, 나아가 언어를 통해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16개의 표제어(신체·안면·안목·수면·연애·비애·언어·지식·의복·가옥·도로·군중·육지·해양·수목·과실)와 그로부터 파생된 69개 의미소에 딸린 낱말과 표현 3천여 가지를 접할 수 있다.

언 다르고 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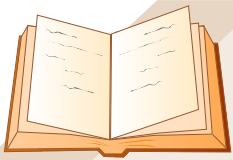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슬기로운 낱말 공부

김철호 지음

하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말공부
표현은 정확해지고, 문장은 정밀해진다

"말 하나하나가 빛난다. 책을 읽으며 마치 첫아이의 입에서 말문이 터지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처럼 나는 자주 경탄했다." 은유, 작가

돌베개



문학

어떤 물질의 사랑

|| 저 자 ||

천선란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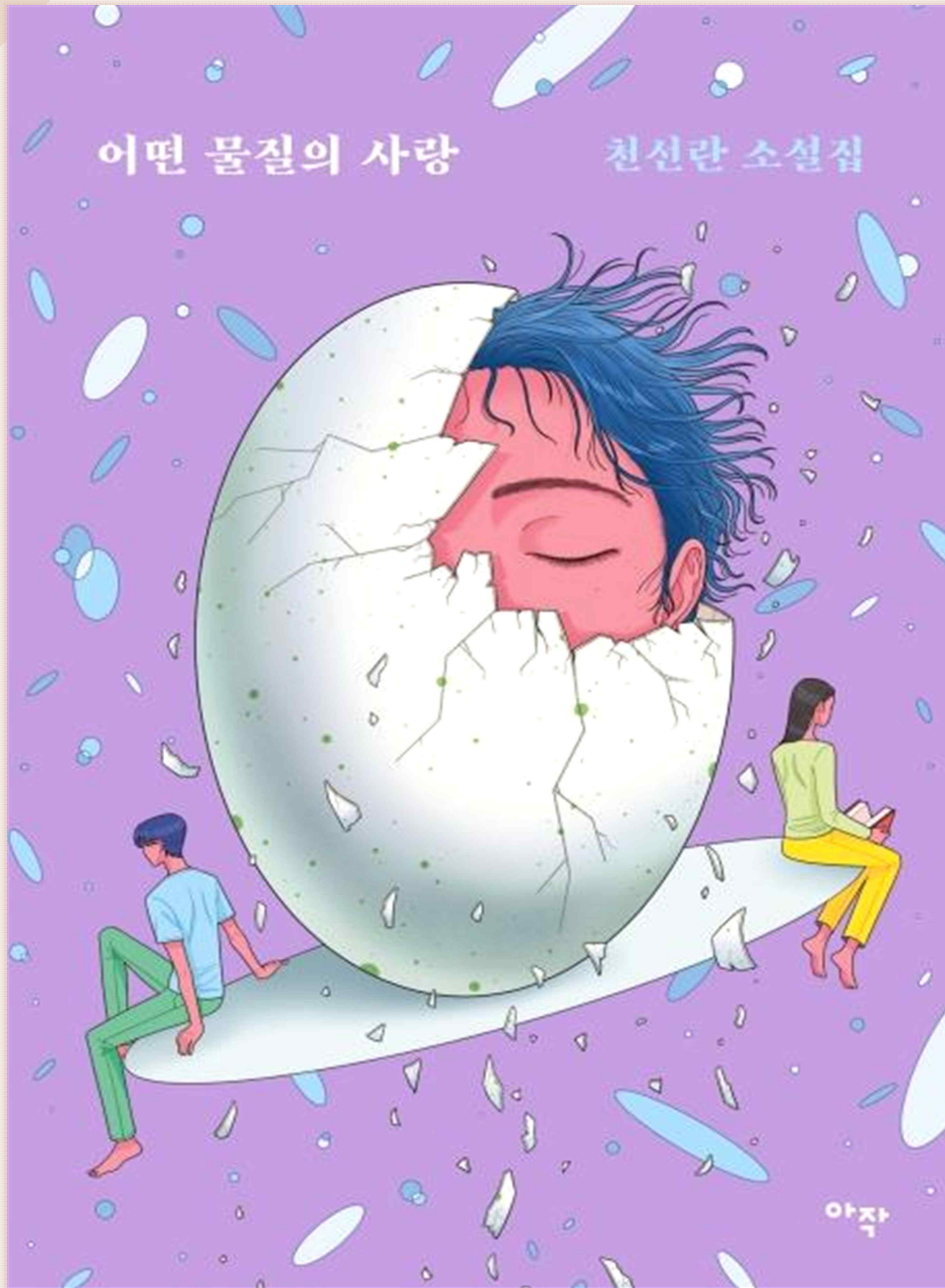
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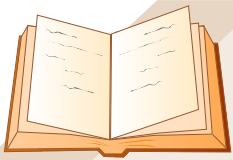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청구기호 ||

813.7-천534

“《천 개의 파랑》으로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천선란 첫 소설집!”

치매 어머니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어인 '작가', 그 기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몇 년간 매일 4시간씩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쓴 소설들이다. 우주비행사가 된 딸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그린 <사막으로>에서 시작해, 지구의 바다 생물 멸종을 극복하기 위해 토성의 얼음 위성 엔셀라두스로 날아간 탐험대가 만나게 된 외계 생명과의 극적인 조우를 다룬 <레시>, 한때 과거를 함께 했으나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생겨버린 2인의 애기를 다룬 <그림자놀이>, 알에서 태어나 배꼽이 없는 소녀도 소년도 아닌 "어떤 외계인"의 '우주를 가로지른' 사랑 이야기를 비롯 작가 천선란의 눈부신 등장을 알려줄 여덟 편을 수록했다.





역사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 저 자 ||
타밈 안사리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커넥팅

|| 청구기호 ||
909-안51ㄷ박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충돌과 연계의 인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깊은 통찰이 담긴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 추상적인 생각을 문화로 발명하고 소통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따른 세계사적 결과를 조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얽히고설킨 우리의 현재, 즉 지금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내러티브, 우리가 여전히 서로 싸우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THE
INVENTION
OF
YESTERDAY

인류의 문화, 충돌, 연계의 빅 히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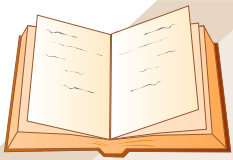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타밈 안사리 지음 · 박수철 옮김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어제는 역사지만 미래는 미스터리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류 5만 년 역사를 되돌아보다

Connecting



총류

이름들의 인문학

|| 저 자 ||
박지숙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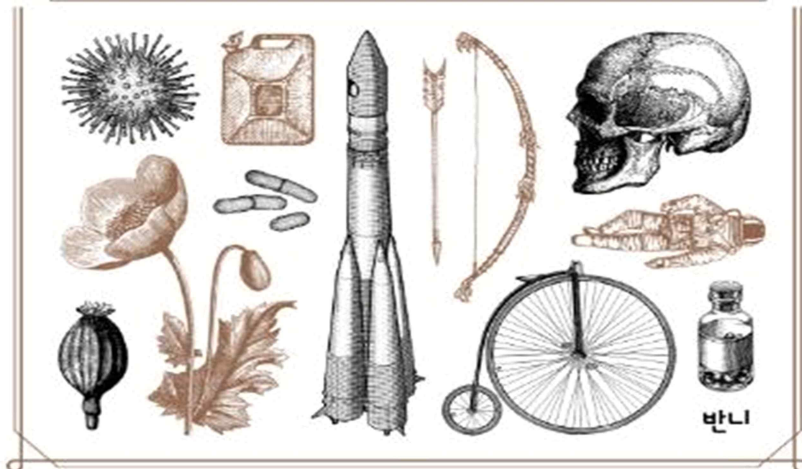
|| 출판사 ||
반니

|| 청구기호 ||
001.3-박790

이름들의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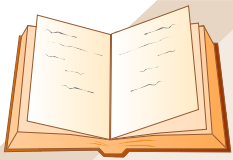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인류가 쌓아온 교양 속으로 떠나는 지식 여행

박지숙 지음



“인류가 쌓아온 교양 속으로 떠나는 지식 여행”

세상은 그 존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을 건디며 살아남은 이름도 있고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태되어 사라지는 이름도 있고, 하나의 본질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이름들도 있다. 이름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상의 날개도 달아준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풀벌레를 통해 진화의 역사를 기억하듯, 무심히 부르던 이름을 통해 인류 지성사를 단숨에 호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름이 그냥 이름은 아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상의 날개도 달아주는 그런 존재가 이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름 속에 담긴 인류사의 교양을 찾아 떠나는 친절한 안내서다.



총류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생각하는 인간 편

|| 저 자 ||
이시한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흐름출판

|| 청구기호 ||
001.3-이59즈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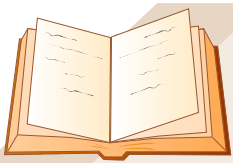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이시한 지음 —

tvN
〈책 읽어드립니다〉
도서 선정 위원
이시한

지식의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신식 내비게이션
흩어져 있는 지식을 —————
단 한 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경험!

“세상을 변화시킨 고전에서 찾아낸 묵직한 인사이트”

『지식 편의점』 시리즈는 시대를 관통하여 이어져온 주요 고전을 살펴보고 구조화하여 명쾌하게 전달하되 현대인이 쉽게 써먹을 수 있게 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독자 스스로 인사이트를 발견하도록 돕고자 기획된 시리즈이다. 이번 『지식 편의점: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는 “유례없는 발전의 속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시작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인류의 여정이 어떻게 꾸려져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시한은 시대를 향해하는 고전 18권을 하나의 궤로 엮었다.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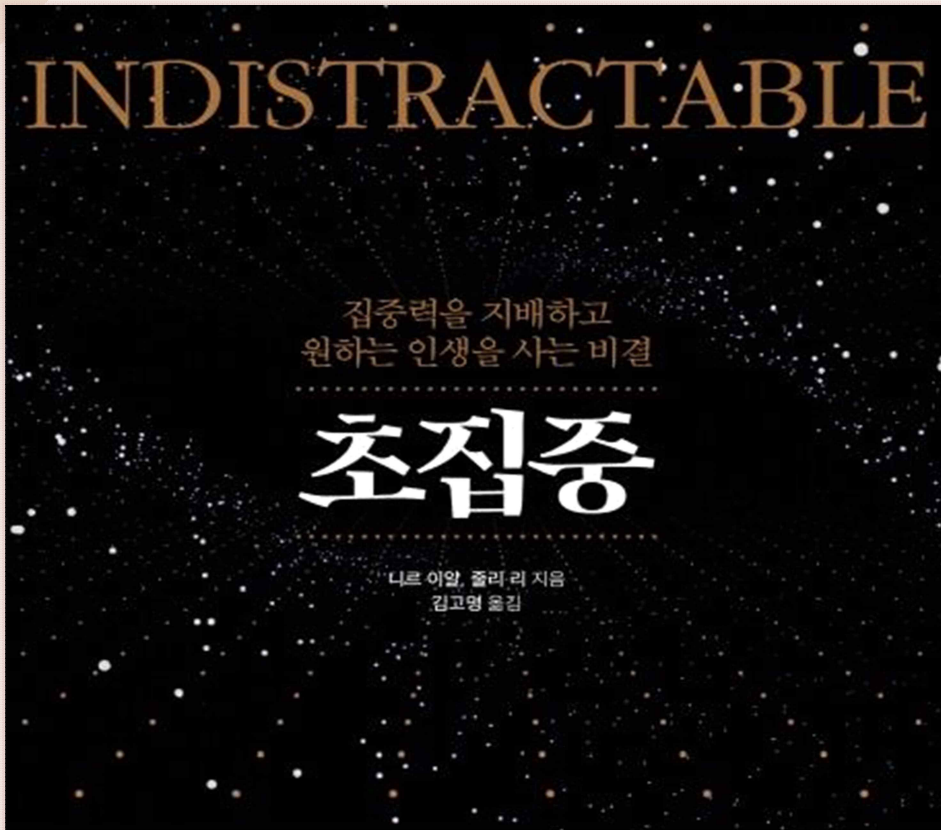
초집중

|| 저 자 ||
니르 이알, 줄리 리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안드로메디안

|| 청구기호 ||
199.1-이62초집



“초집중은 이 시대의 필수능력이다.”

- 그렉 맥커운, 《에센셜리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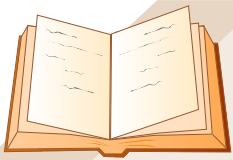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애덤 그랜트, 제임스 클리어, 마크 맨슨, 조너선 하이트 등

세계 최고의 멘토들이 극찬한 집중력을 지배하고
원하는 인생을 누리며 성공을 맛보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


Andromedian

“ 집중력을 지배하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 ”

이 책은 저자가 끌리는 제품, 특히 디지털 상품에 혹 빠져든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SNS나 넷플릭스 등 디지털 상품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 그는 충격을 받고 변화를 시도한다. 디지털 기술을 모조리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배제했음에도 딴짓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나쁜 딴짓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진짜 변하고자 한다면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끊어야 한다고. 한번 뿐인 인생을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라지게 할 것인가. 혹 빠지게 만들면서도 초집중하게 만드는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초능력을 선사할 것이다.



사회
과학

[주제도서] '청렴'

판결과 정의

|| 저 자 ||
김영란

|| 발행연도 ||
2019

|| 출 판 사 ||
창비

|| 청구기호 ||
360.4-김64표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김영란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화두 『판결과 정의』.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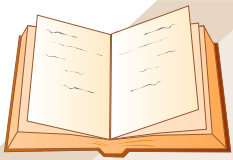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김영란 著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

창비
Changbi Publishers





자연
과학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었어

|| 저 자 ||
안드레아스 바를라게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애플북스

|| 청구기호 ||
481.508-마238스류

"화분을 가꾸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식물 이야기"

싱그러운 초록의 플랜테리어 사진이 눈에 들어오고, 언젠가 정원 가꾸기 취미를 가져보리라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책은 식물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떠올렸을 법한 궁금증들을 해결해준다.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식물부터 정원의 채소와 과일들, 도심 속의 가로수부터 대자연의 숲까지 우리가 생활하며 스치듯 생각하고 지나갔을 법한 질문까지 모두 담았다. 놀라운 자연에 대한 예찬이 담긴 이 책은 식물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땅도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과 고민해야 할 것들까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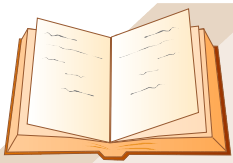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정원과 화분을 가꾸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식물 이야기

실은 나도 식물이 알고 싶었어



2019 독일 정원도서상 수상 작품
식물들의 조용하고 영리한 생활

애플북스



기술
과학

당신의 특별한 우울

|| 저 자 ||
린다 개스크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월북

|| 청구기호 ||
513.8525-개58ㄷ홍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치료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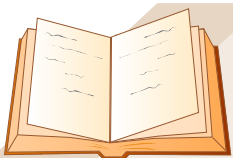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우울에 대한 회고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만났던 내담자들의 기록이다. 사려 깊고 따스하여,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된다. 왠지 모를 허전함과 침잠하는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담은 속 깊은 글이 이어진다. 우울은 언어로 표현될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저자는 각자에게 내면의 힘, 치유의 힘이 있음을 넌지시, 그러나 강력하게 알려준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환자로서의 이름 모를 혼란, 학자로서의 균형 감각이 잘 어우러진 지적이고 우아한 책이다. 우울을 겪는 이들, 우울을 치료하는 이들 모두에게 힘이 될 책이다.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의
치료 일기

당
신
의
특
별
우
울

린다 개스크 지음
김홍경 옮김

월북



오창호수도서관 종합자료실 《10월의 도서》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관] (예/출)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 저 자 ||

습혜정

|| 불행연도 ||

2020

|| 출판사 ||

을유문화사

|| 청구기호 ||

600.04-5942

“ 삶에 깊은 영감을 주는 창조자들과의 대화 ”

지금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예술 거장 19인의 삶과 철학을
윤혜정 피쳐 에디터가 섬세하게 담아낸 인터뷰집이다. 20여 년간
『보그』, 『바자』 등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만나 온 베테랑
인터뷰어 윤혜정은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는
동시에 삶과 세상에 대한 대화도 함께 나눔으로써 독자에게
풍요로운 사유와 영감의 시간을 선사한다. 또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문장이 돋보이는 윤혜정의 글은 예술가들의 내면세계를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안내한다.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의 예술 현장을
선도하는 거장들의 솔직한 조언을 담은 이 책은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작품 및 인물 사진을 100점 이상 만나는 즐거움도 함께
안겨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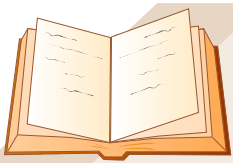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삶에 깊은 영감을 주는
창조자들과의 대화

윤혜정 인터뷰집

◆ 을유문화사





언어

맞춤법 절대강자 김남미 교수의 더+맞춤법

|| 저 자 ||
김남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태학사

|| 청구기호 ||
711.25-김211ㄷ

맞춤법 절대강자 김남미 교수의

더 + 맞춤법

발음 원리로 이해하는 맞춤법, 한 권으로 끝내기

정확하고 '땀날'로 변해 가는 '땀날' ... '땀날' 속 '땀'의 유래 ... '땀날'이 가진 규칙 ... '땀날'을 읽고 '땀날'을 걸치다 ... 산 '너머'를 보려고 저 신을 '넘어' ... 선조들 말의 질서가 반영된 '알은책' ... 신뢰감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고품격 맞춤법 안내서

원문성에 얽매 보려는 '원이고삼기다'

소통에서 통하는 것은 '대응'일까 '남자'일까

'언제'를 '언제' 사용에 연결부호를 쓴다

'것'을 '것'을 '것'을

'꽃길, 머릿속, 등굣길, 하룻길'을 '꽃길, 머릿속, 등교길, 하교길'로 쓰면 간결하고 의미도 분명해질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 했다. 하지만 불만 너머에 먼저 경탄할 일이 있다. 우리는 사이사위를 써야 할 이 단어들을 정확히 된소리로 발음한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 규칙들 덕분에 우리가 우리말답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표기가 우리의 발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발음이 표기를 만드는 것이다.

'너무'는 '넌'로부터 온 단어다. 어떤 수준을 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부정적이라 인식하던 관념에서 본다면 '너무'의 부정적 사용법이 이

해된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서 우리의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졌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적다, 너무 번잡다'

같은 문장을 많이 사용한 것이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너무'

에 관련된 우리말의 용법을 바꾸게 된 것이다.

과거 우리말의 '주책'이라는 단어는 뒤에 '있다, 없다'가 모두 연결될 수 있었다. '주책이 있다'는 '주권이 있다'는 의미로, '주책이 없다'는 '주권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주책이 있다'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뒤의 '있다'가 가진 '부정적 의미'가 '주책'에도 옮겨 오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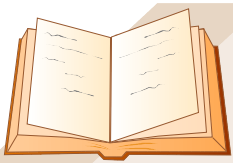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맞춤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만의 규칙들을 확인하는 일이다.

'귀찮다'라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귀찮다'가 '귀하지 않다'에서 왔다는 것조차 생소하다. 본 말과 준말의 고리가 끊어져 결과만 남은 것을 '굳어진 말'이라 한다. 굳어진 말은 원말과는 독립적인 말이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태학사

"신뢰감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고품격 맞춤법 안내서"

한글 맞춤법을 규정과 조항 중심으로 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말의 발음 원리부터 들여다보는 신선한 접근법을 보여 주는 신개념 맞춤법 강의. 한글 맞춤법 제○항에 어떠어떠하게 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는 표기이다.' 같은 식의 맞춤법 설명은 간단하고 분명하기는 하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알아 가는 방식은 규칙을 외우는 것이지 그 속에 담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리를 알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문학

어른의 어휘력

|| 저 자 ||
유선경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앤의서재

|| 청구기호 ||
802-유530

“말에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이 책은 1장에서는 일상에서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어휘력의 중요성과 다양한 의미를 짚는다. 2장에서는 성인이 어휘력을 키우는 기술을 습득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휘력에 직결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어휘를 문장 구조와 떼어놓을 수 없으니 작가는 글쓰기와 연계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한 개의 낱말에 대해 궁금해하고 음미하는 일이 어떻게 어휘력을 늘리고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 직접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작가의 시선이 담긴 산문을 읽듯 편하게 읽다 보면, 상황에 따른 어휘에 민감해지고 적절하게 낱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어른의 어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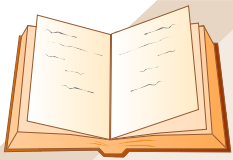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유선경 지음

말에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공감, 소통도
어휘력이 먼저다

지금, 우리가 다시
어휘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사

리더라면 정조처럼

|| 저 자 ||
김준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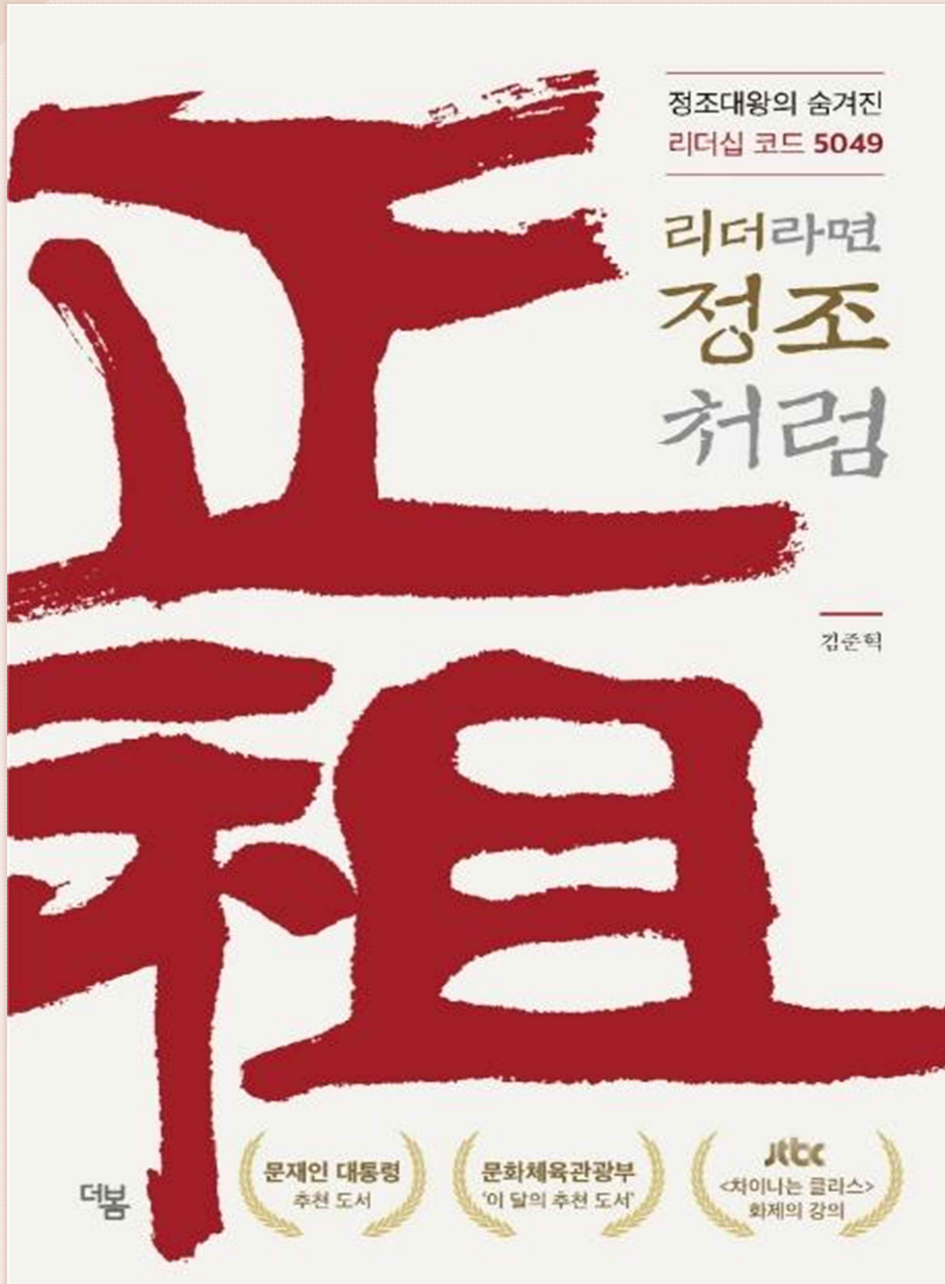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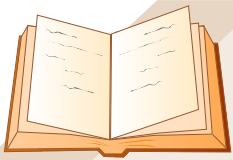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출판사 ||
더봄

|| 청구기호 ||
911.05-김77ㄹ

"정조대왕의 숨겨진 리더십 코드 5049"

이 책은 정조의 리더십을 49가지의 정책과 실천의 사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찌 그의 리더십과 백성을 위해 한 일이 49가지만 있겠는가?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격한 언어를 쓰기도 했다. 한편으로 노회한 정치가라는 소리도 듣고 보수적인 군주란 소리도 듣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정조만 한 인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땅의 개혁을 위해 매진하는 리더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총류

뉴욕도서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 저 자 ||
뉴욕공공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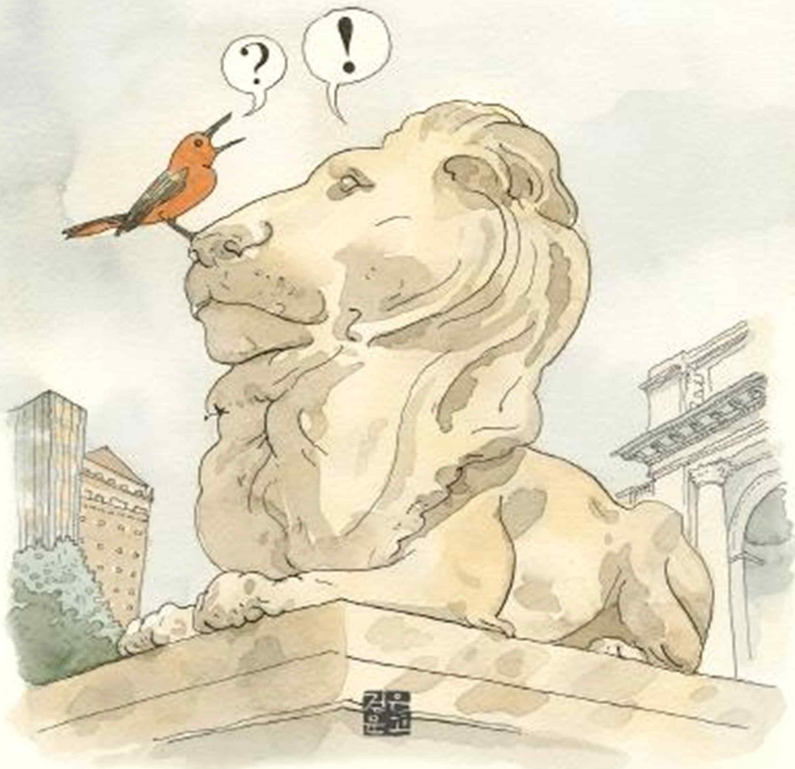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정은문고

|| 청구기호 ||
034-뉴66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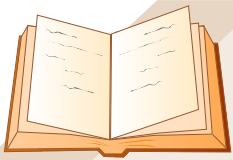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뉴욕도서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뉴욕공공도서관 지음 | 배리 볼리트 그림 | 이승민 옮김



"뉴욕공공도서관 창고에서 얻은 지혜의 조각들"

어느 날 뉴욕공공도서관 창고에서 사서가 오래된 질문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 속에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뉴욕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질문한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질문이 가득했다. 웃음을 자아내는 엉뚱한 질문들은 당시 시대상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구체적인 관심사를 담고 있다. 11명의 뉴욕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그 질문 가운데 106개를 간추려 답변을 달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철학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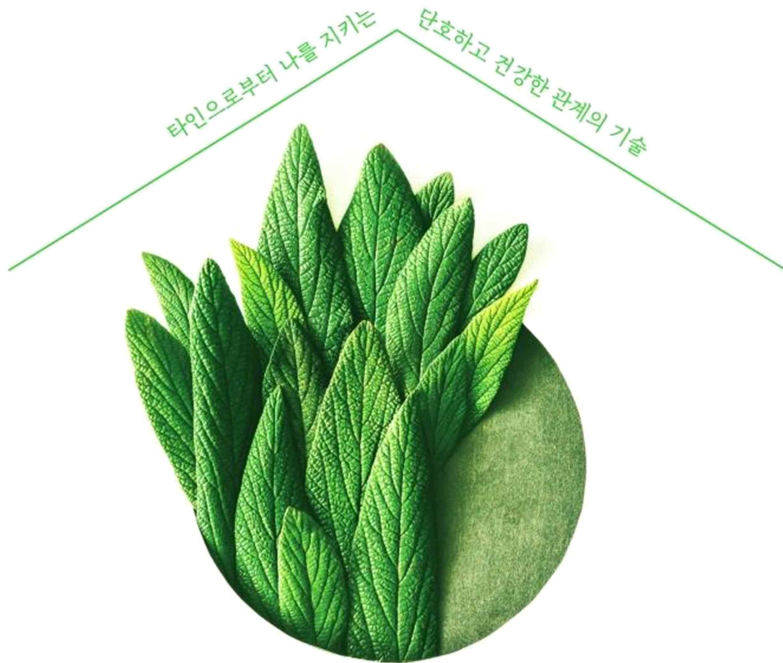
|| 저 자 ||
박상미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웅진지식하우스

|| 청구기호 ||
189.2-박517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박상미 지음



“좋은 평판 얻으려 애쓰지 말고
소외될까 불안해하지 말고 적당히 편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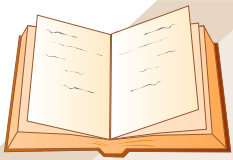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은 이를 위한 관계 수업

웅진지식하우스

“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단호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술 ”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급변한 소통방식의 체계는 다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오프라인, 온라인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 맺기, 소통에 유연해지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관계 연습’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고 만다.

10년간 1,000회 이상 관계 수업을 진행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누구나 쓰면서 연습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도 친절하게 안내한다.



사회
과학

[주제도서] '청렴'

정의를 부탁해

|| 저 자 ||
권석천

|| 발행연도 ||
2016

|| 출판사 ||
동아시아

|| 청구기호 ||
330.4-권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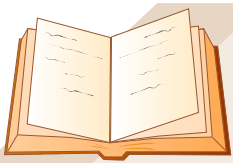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지금 처음 손에 쥔 사람들에게 그냥 서문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서문에서 어떤 문클함을 함께한 독자라면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권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해도 글은 그 본질을 추구하며 권석천은 어떤 허장성세도 없이 그 본질로 들어간 글쟁이다.”

_ 손석희

정의를 부탁해
권석천의
이탈

“우린 결국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해야 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대와 이념, 그리고 지역의 벽 너머에 있는 진실을 직시하려 애쓴 권석천 기자. 그는 세월호와 메르스의 한복판에서 권력과 검찰, 법원의 심장부까지 참혹한 살인부터 절박한 취업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며 그 속사정을 파고들어왔다. 이번에 출간된 책 『정의를 부탁해』는 25년차 베테랑 기자 권석천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목청 높여 무언가를 주장하기보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독자들을 불러 세운다.



사회
과학

콘텐츠가 전부다

|| 저 자 ||
노가영 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미래의창

|| 청구기호 ||
331.65-노11ㄴ

“ 콘텐츠의 시대, 즐길 준비 되셨나요? ”

지금 시장의 생태계는 플랫폼이 주도하던 판에서 콘텐츠가 주도하는 판으로 바뀌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이 소외되거나 열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는 콘텐츠의 차별화가 플랫폼을 결정하며 콘텐츠가 더 이상 플랫폼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 모델이 됐음을 뜻한다. 저자들은 급진적인 시대 변화의 핵심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관련 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어디에서도 접하기 힘들었던 현장 정보와 치밀한 분석, 입이 딱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말하는 남다른 ‘부(富)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산업 최전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살펴보자. 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콘텐츠 온라인’의 시대
콘텐츠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진다

콘텐츠가 전부다

노가영, 조형석, 김정현 지음

Contents is
Everything!

미디어 산업 최전선에서
전하는 전문가 3인의
심층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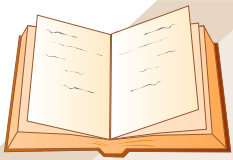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영화, 방송, 유튜브, SNS, 게임과 음악, 팟캐스트까지.
콘텐츠는 왜 거대 자본의 블랙홀이 되었나?

“콘텐츠가 전부인 세상. 콘텐츠 없이 비즈니스를 논하지 말라.”

- 1일 10억 시간의 위용. 해가 지지 않는 콘텐츠제국, 유튜브
-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 콘텐츠는 과연 무엇?
- 검색에 커머스까지 인스타그램, 안 되는 게 뭐야?
- 영화보다 게임. 한국 남자들의 트워치 삼매경.
- 스포티파이, 과연 한국에서도 통할까?





자연
과학

의자의 배신

|| 저 자 ||
바이바 크레건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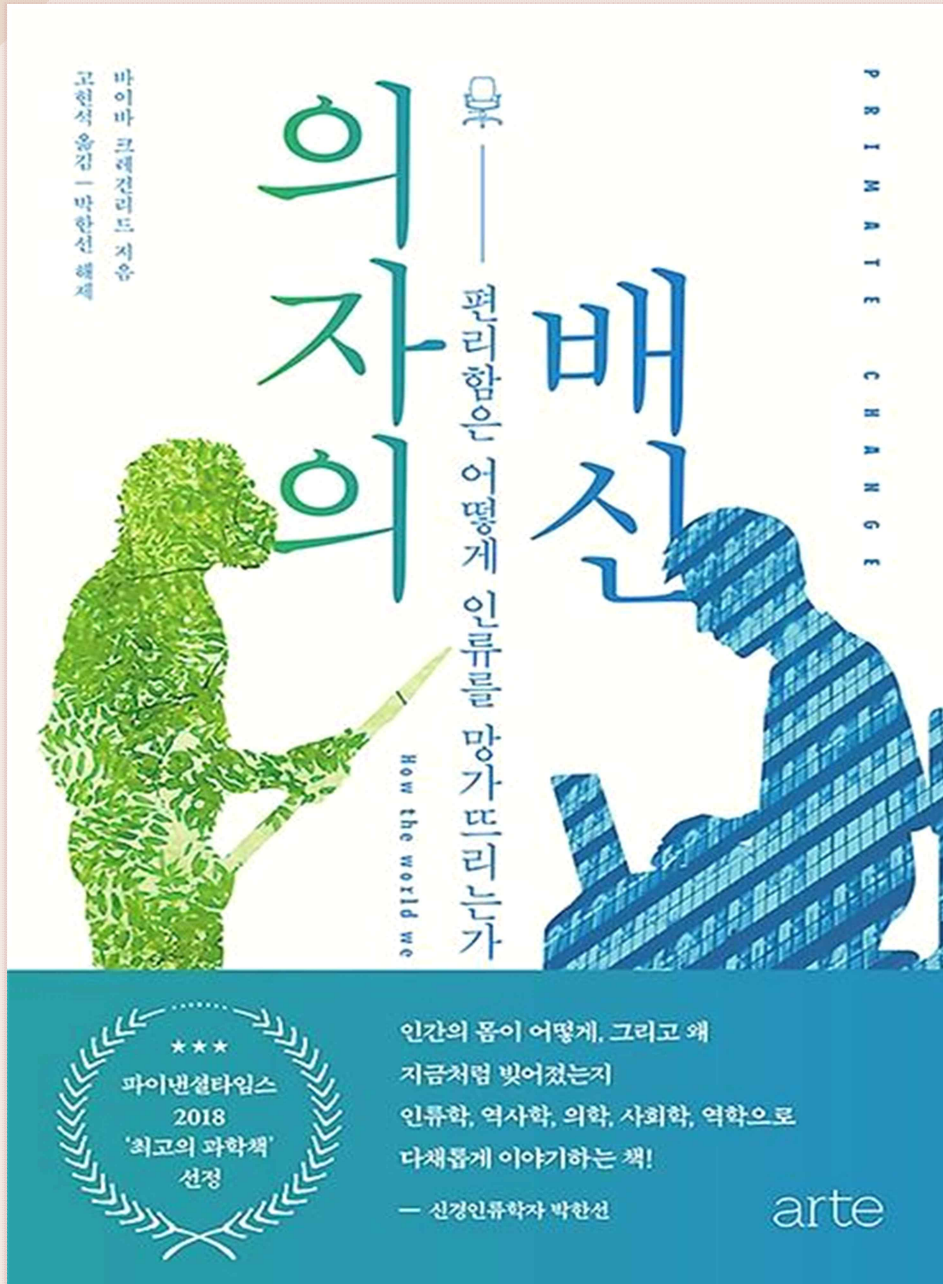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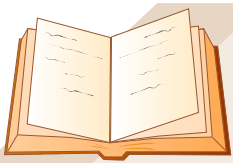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출 판 사 ||
아르테

|| 청구기호 ||
471.5-크233ㄱ고

"편리함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가"

저자는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세, '앉아 있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주장에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목표, 풍요와 편리함의 추구가 놓여 있다. 그러한 이상이 집약된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안락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지만 새로운 관절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병, 기후변화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싹틔웠다. 『의자의 배신』은 진화와 환경의 불일치가 인간에게 어떤 질병을 안겨 주었는지, 인류학, 역사학, 의학, 사회학 등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적인 접근으로 써 내려간 '인류세 인간' 보고서다.





기술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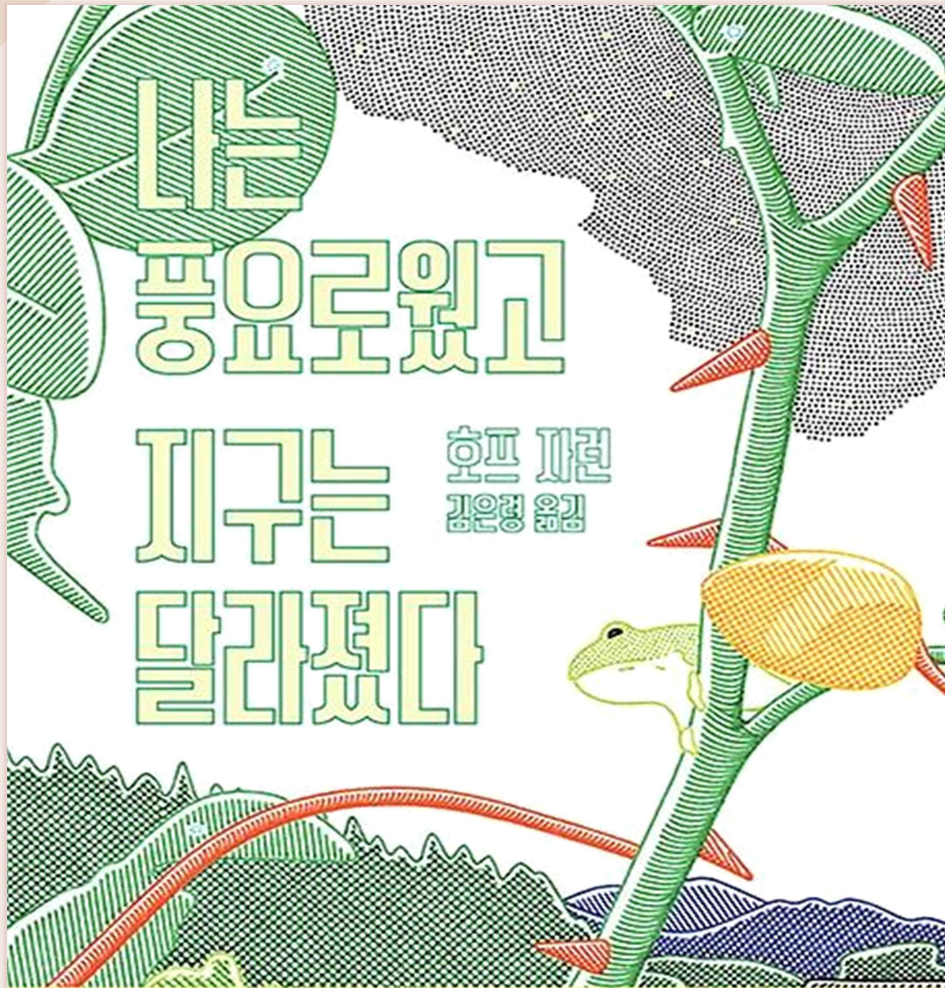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 저 자 ||
호프 자런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김영사

|| 청구기호 ||
539.92-자233ㄴ김



《랩 걸》 호프 자런이 이야기하는 나의 삶, 나의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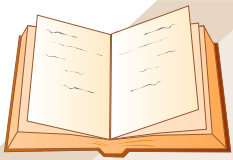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이 책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읽으며 새로운 풍요를
모색하고 싶다. 지구를 더 이상 망치지 않는 풍요를."

...어슬어(작가, <일간 어슬어> 발행인)

김영사

"나의 삶, 나의 지구"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위협과 두려움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제 'The Story of More'가 암시하듯이 이 책은 더 많이 빨리 소비하는 생활이 만들어낸 심각한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삶,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구 환경의 지속성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호프 자런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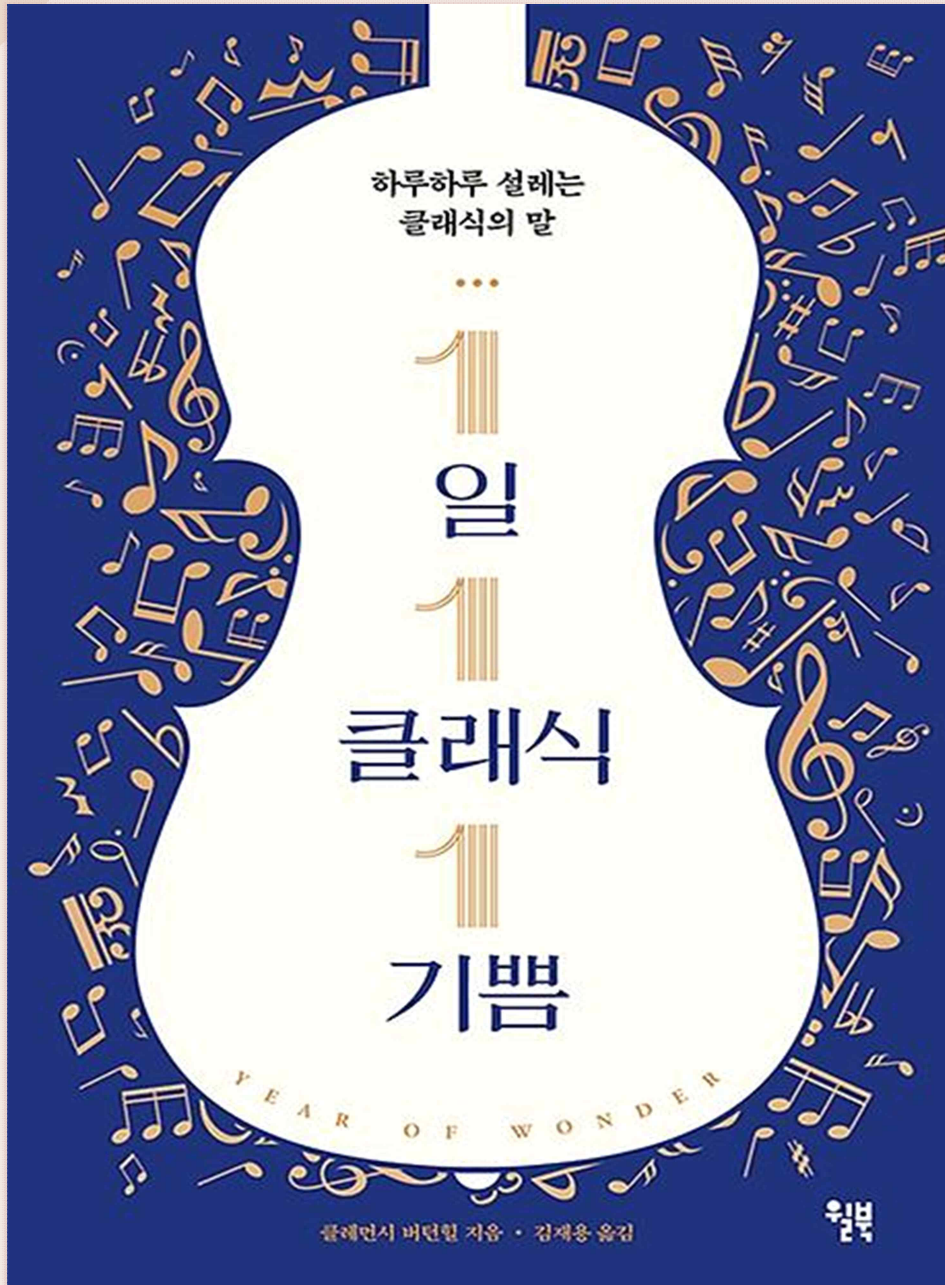
1일 1클래식 1기쁨

|| 저 자 ||
클레먼시 버턴힐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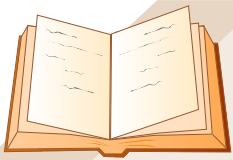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출판사 ||
월북

|| 청구기호 ||
670.9-버8334김



" 하루하루 설레는 클래식의 말 "

영국의 BBC 클래식 방송 진행자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클레먼시 버턴힐이 수년간 모아온 보물 같은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일 1클래식 1기쁨』. 불후의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일 한 곡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날짜와 그날의 추천 음악에 계절 감각, 젠더 감수성까지 갖춘 1년분의 클래식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혹은 이미 클래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도 그 매력에 충분히 빠져들 만한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된 이 책의 주요한 특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사실이다. 작곡가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해당 음악의 탄생 배경까지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다운 문체로 써내려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자연스럽게 음악 속으로 젖어들게 한다.



언어

언어의 뇌과학

|| 저 자 ||
알베르트 코스타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현대지성

|| 청구기호 ||
701-코584김

| 이중언어자의 뇌로 보는 언어의 비밀 |

언어의



뇌과학

알베르트 코스타 지음 | 김유경 옮김

“『언어의 뇌과학』을 읽고 있으면,
인간은 마치 언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보인다.”
-김겨울, 작가·유튜브 〈겨울서점〉 운영자

2가지 언어에 익숙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뇌를 바꾸는 놀라운 언어의 세계를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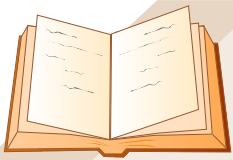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현대
지성

“이중언어자의 뇌로 보는 언어의 비밀”

“어떻게 하나의 뇌에 두 언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중언어, 나아가 다중언어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또 일상에서 2개 국어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뇌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까? 이 책은 언어사용 과정에서 주의력과 학습능력, 감정, 의사결정 등과 같은 인지 영역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최신 연구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 본인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생생한 깨달음이 뇌과학과 심리학, 사회학적인 지식과 어우러져 시종일관 신선하고 즐거운 지식 여행으로 독자들을 인도할 것이다.



문학

불과 나의 자서전

|| 저 자 ||
김혜진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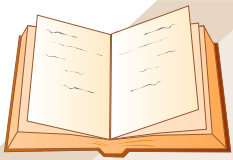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 출판사 ||
현대문학

|| 청구기호 ||
813.7-김94b



“편견과 배제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참예한 작가들을 선정, 신작 시와 소설을 수록하는 『현대문학』 2019년 4월호에 발표한 소설을 토대로 내놓은 이 소설은 한국 사회에서 항상적인 향수와 회복의 대상인 마을 공동체를 김혜진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대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재개발 이후 빈부 격차로 양분된 지역사회 갈등으로 황폐한 곳, 대물림되는 빈부에 대한 불안과 집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위태로운 욕망을 깊이 있게 그려진 소설이다.



역사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

|| 저 자 ||
박건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휴머니스트

|| 청구기호 ||
911.06-박13ㄱ

"평범한 물건에 담긴 한국근현대사"

30여 년 전,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우연히 찾은 토기 파편 하나가 열정적인 역사 수집의 시작이었다. 사진 한 장에서부터 일기장, 편지, 영수증, 사인, 사직서, 온갖 증명서까지 개개인의 삶과 일상이 담긴 물건들을 모으고 또 모았다. 자료에 숨겨진 역사적 코드들을 하나둘씩 추적하고, 그날을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면서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시간은 희열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30여 년간 한결같이 컬렉터를 사로잡은 수집과 역사 읽기의 흥미로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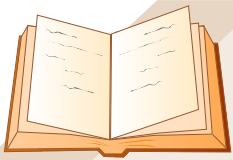


평범한 물건에 담긴 한국근현대사

컬렉터,

박건호 지음

역사를 수집하다



총류

독서의 위안

|| 저 자 ||
송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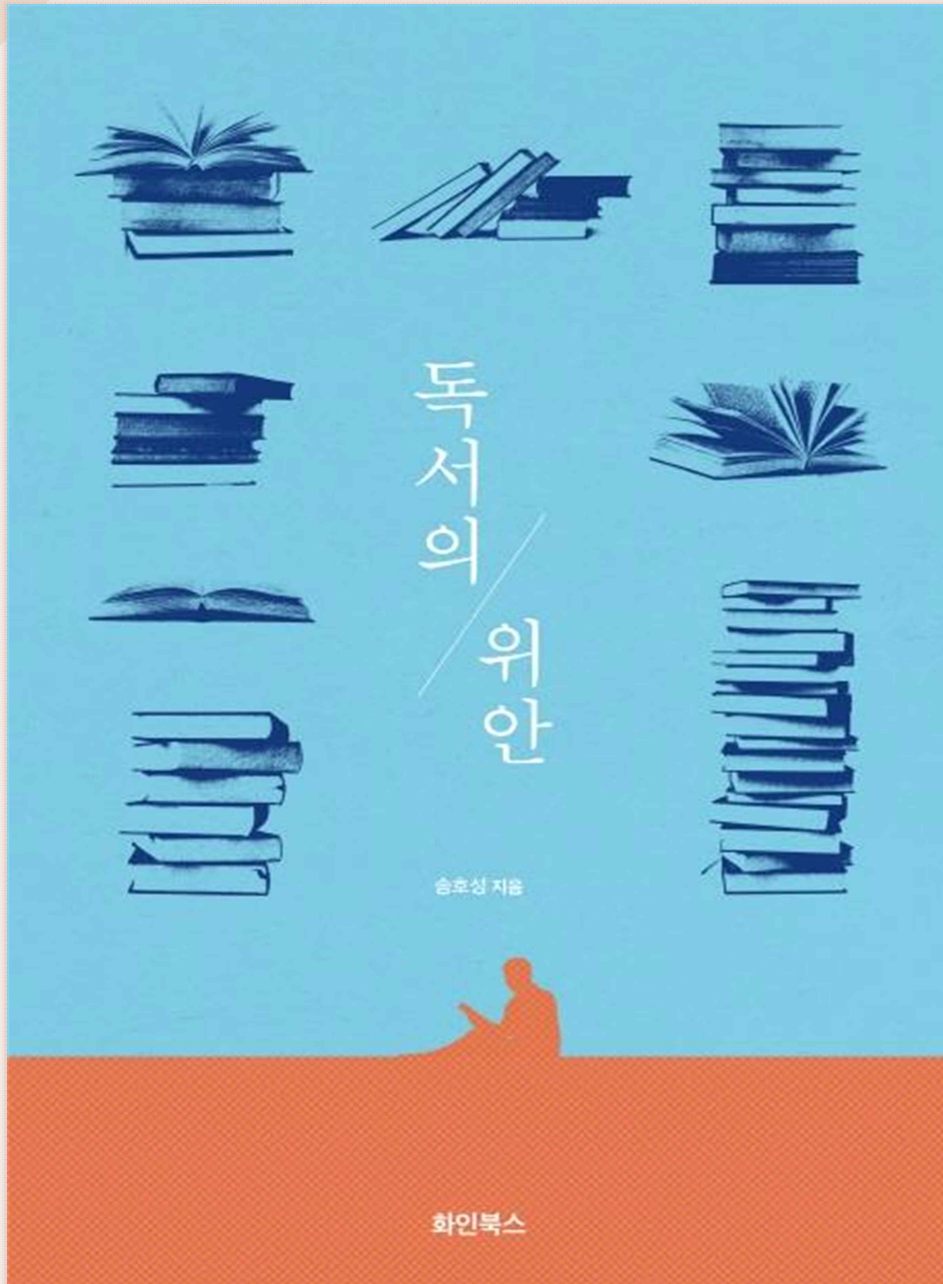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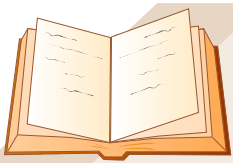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출판사 ||
화인북스

|| 청구기호 ||
029.1 송95ㄷ

"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위안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T.S. 엘리엇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것은 언어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고 할 수 있다. 영상이나 그림 혹은 음악처럼 직접적이고 강렬하지는 않아도, 언어의 매력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실재하는 가치임에 틀림없다. 언어는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 '행위의 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유의 역사'이며, 사유의 역사가 곧 철학이다. 이 책은 철학에 관한 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공자, 묵자, 노자, 맹자, 순자를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진솔하고 인상적인 언어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책으로 엮었다.





철학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수업

|| 저 자 ||
시라토리 하루히코 외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포레스트북스

|| 청구기호 ||
199.1 시231조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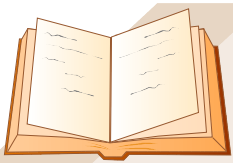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수업

시라토리 하루히코 · 지지엔즈 지음 | 김지은 옮김

포레스트북스

"철학은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 책은 각각 일본과 대만을 대표하는 두 저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흄, 칸트, 사르트르 등 12명의 철학자가 남긴 지적 유산을 바탕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상 철학을 전한다. 두 저자는 철학을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당장 우리 눈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은 두 저자의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지지엔즈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예로 들어 철학적인 사고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한편, 시라토리 하루히코는 세상의 상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전한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지적 대담 코너는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궁금해할 만한 문제를 친절하게 되짚어준다.



사회
과학

1인용 인생 계획

|| 저 자 ||
지식채널e 제작팀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EBS BOOKS

|| 청구기호 ||
332.277 지594

“1인 가구 600만 시대, 혼자 사는 즐거움을 위해”

이 책은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와 싱글들의 생활 면면을 살펴 보며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싱글 라이프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제시한다. 학교와 직장 때문에 독립을 시작하는 20대부터 30~40대 싱글, 여러 사유로 '홀로 서기'를 결심한 중년과 노년 세대까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을 현명하게 설계하고 즐겁게 실행할 수 있도록 주거 방식, 취미생활, 반려동물 키우기, 노후 생활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한 권에 담았다.

지식채널
×
1인용
인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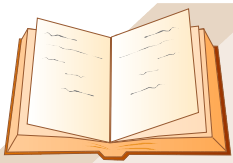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SOCIETY

S I N G L E L I F E

지식채널e 제작팀 지음

EBS
BOOKS





오창호수도서관 종합자료실 《12월의 도서》

사회
과학

[주제도서] '청렴'

공정하다는 착각

|| 저 자 ||
마이클 샌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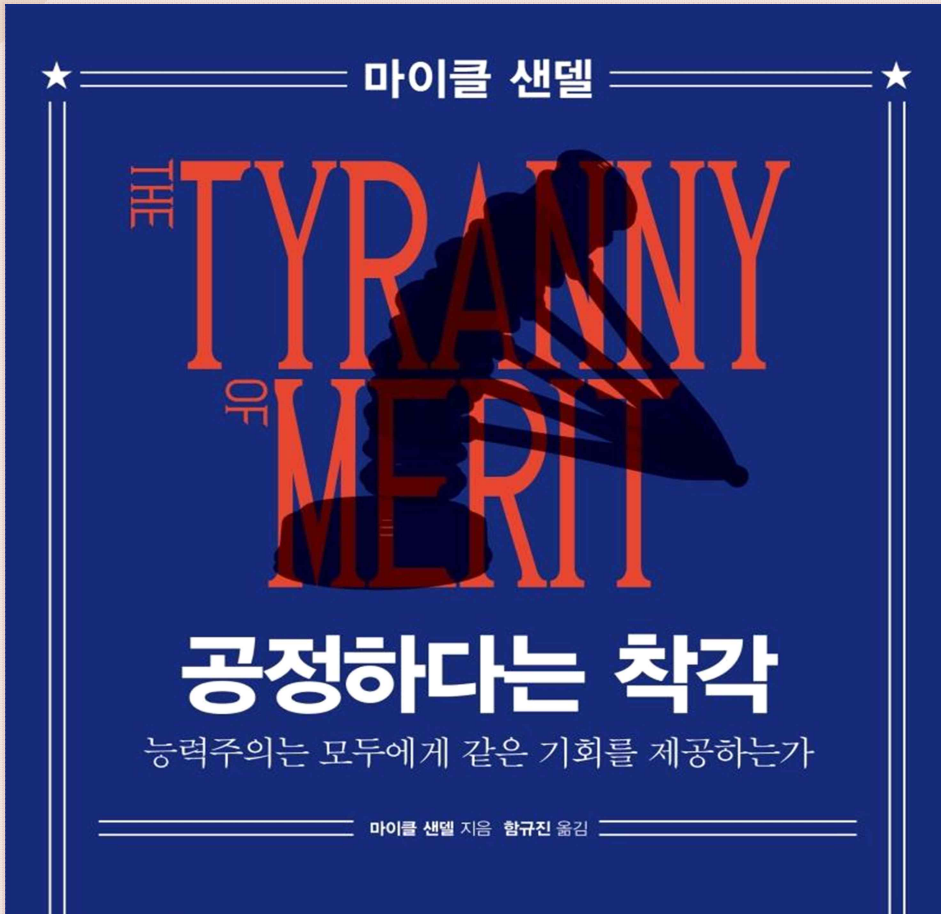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와이즈베리

|| 청구기호 ||
332.6 샌2237참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에 던지는 충격적 화두!
“지금서 있는그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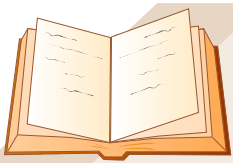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책”
타라 웨스트오버,
《배움의 기술》 저자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시기적절한 비판”
《타임스》

“좌우 진영
모두 읽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뉴욕타임스》

능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낙원, 현대사회의 그림자를 들추다





자연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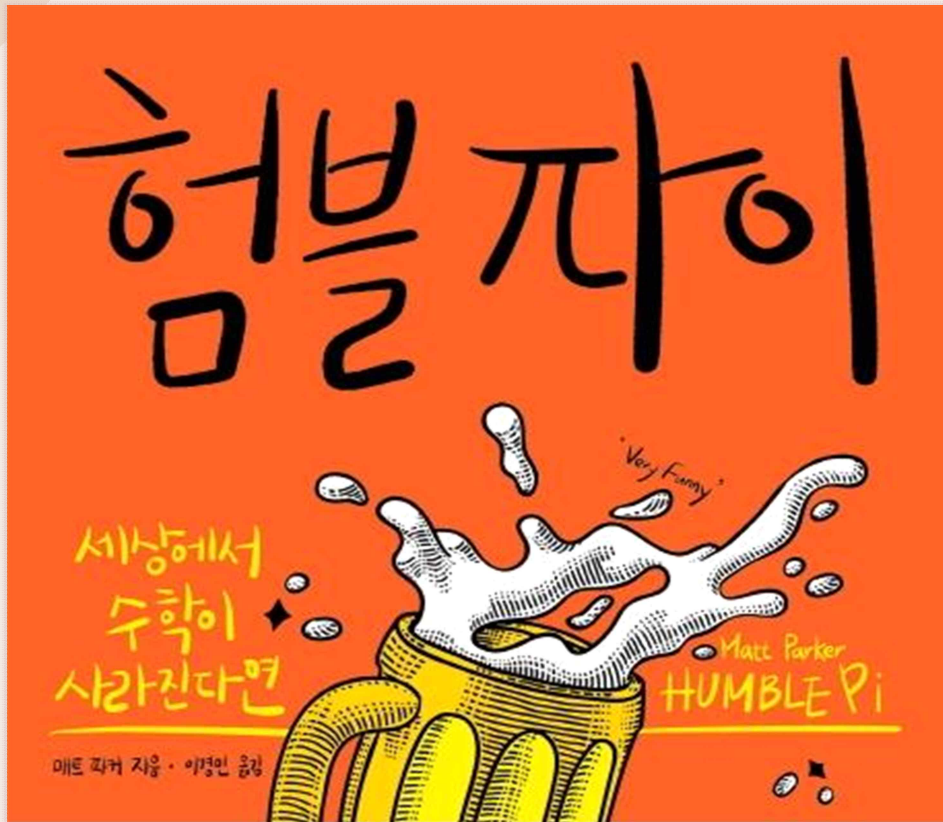
험블 파이

|| 저 자 ||
매트 파커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다산사이언스

|| 청구기호 ||
410 파823ㅎ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인터내셔널
1위

선데이타임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뷰 돌파

애덤 새비지
북클럽
키오프 도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수학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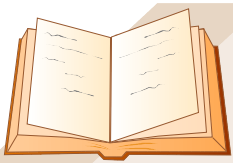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그의 유머수학은 긴장감이 필요한 마음 자세와
즐겁고 유연한 사고의 유희 사이에 절묘한 평형점을 찾아준다.”

— 김민형(수학자, 「수학이 필요한 순간」 저자)

다산사이언스

“세상에서 수학이 사라진다면”

이 책은 실수 혹은 오류로 인해 수학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대참사를 한데 모은 책이다. 맥주 양조용 보리를 거래한 기록에 남겨진 인류 최초의 계산 실수부터 수식 하나 때문에 벌어진 금융권의 수천억, 수조 원 단위의 사고, 그리고 NASA의 화성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 실패까지, 우리들이 저질러 온 세기의 수학 실수를 한데 모았다. 저자는 책 속에서 수학이 잘못되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실감 나게 보여준다. 인터넷, 빅데이터, 선거, 거리 표지판, 복권, 고대 로마, 올림픽 국가대표 사격팀의 작은 실수, 경미한 사고, 위기일발의 상황을 설명하며 수학의 기괴한 실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낸다. 어느 아마존 독자가 ‘책을 읽는 시간보다 인터넷 검색에 사용한 시간이 더 많았다’고 리뷰를 남겼는데, 놀랍게도 책 속의 사례는 모두 실화다.



오창호수도서관 종합자료실 《12월의 도서》

기술
과학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 유럽 문화예술 편

|| 저 자 ||
김종원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청림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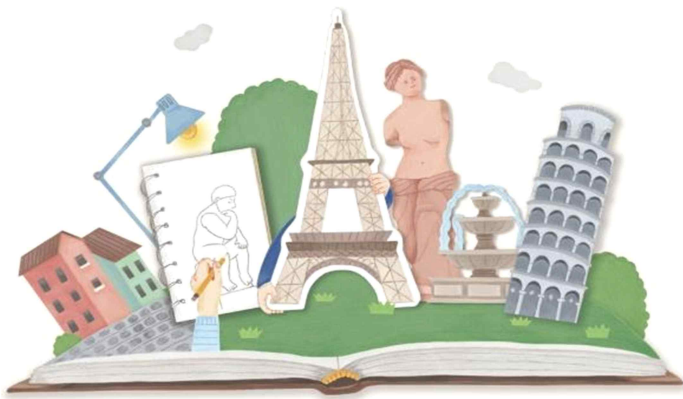
|| 청구기호 ||
598.1 김754

아이의 세계와 시각을 넓혀줄 예술 문장 100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유럽 문화예술 편

김종원 지음



“독일 괴테 하우스에는 왜 의자가 없을까?”

99줄 필사보다 1줄 생각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10만 부모의
압도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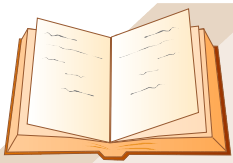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재능교육 분야
인문학 결정판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며 질문을 창조하는 하루 한 줄 인문학의 힘

청림life

“아이의 세계와 시각을 넓혀줄 예술문장 100”

저자는 매년 철학의 본고장 유럽을 방문해 새롭고 낯선 자극 속으로 자신을 내던진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상의 사색과 창작의 결과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소개해왔다. 이번에는 유럽 최고의 건축물과 예술작품은 물론 그것을 창조해낸 예술가들의 생애를 따라가며 발견한 고전의 가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랜드 투어를 떠난 여행객들은 돌아오는 길에 책이나 그림, 공예품 등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사서 돌아왔다고 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 언택트 시대이자 새로운 교육의 시대에 꼭 필요한 8가지 인문학 가치를 지금 바로 만나보자. 전 세계 지성들의 필수 교양은 물론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답,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근사한 시선을 당신의 아이에게 선물하는 멋진 여정이 될 것이다.



예술

[장서특성화 도서] '예술'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미술 365

|| 저 자 ||
김영숙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비에이블

|| 청구기호 ||
609 김640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THE STORY OF ART

김영숙 지음

미술365

MON	TUE	WED	THU	FRI	SAT	SUN
작품	미술사	화가	장르·기법	세계사	스캔들	신화·종교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도 알리니 그는, 작품에 최고 경매가를 경신했다는 타이틀로 자주 뉴스에 등장하지만, 언뜻알지도 않아 생전 공식적으로 판매된 그림은 딱 한 점에 불과했다. 그는 자주 자신을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는데, 작품에 자

면도한 모습이 있다. 어머니에게 드린 선물로, 더 깊은 이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시도했다.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자화상으로 남았다. 1889년 프랑스 파리를 떠나 아홉은 온 빈센트는 남프랑스의 생텍쥐페리라는 노란색에 더욱 야망을 가졌다. 대표작 《파리의 밤》과 《밤의 카페 테라스》는 현재, 파리 노란색에 대한 그의 평명으로 가는 큰 작품이다. 그는 《밤의 카페 테라스》를 두고 "경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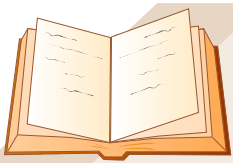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이 그림 앞에 앉아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10년은 행복할 것이다.” — 반 고흐



“문득, 미술관에 가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은 매일 1페이지씩, 세계 명화 365점과 함께 미술의 모든 지식을 단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명작, 미술사, 화가, 장르·기법, 미술로 보는 세계사, 스캔들·미스터리, 신화·종교 총 일곱 분야의 지식을 다루고 있어 꼭 알아야 할 미술 교양을 빠짐없이 쌓을 수 있다. 반 고흐, 렘브란트처럼 잘 알려진 화가부터 콜비츠, 키르히너 등 우리가 미처 잘 몰랐던 근대화가의 눈부신 명작들을 엄선해 다뤘고, 회화뿐 아니라 조각, 고대벽화,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을 충실히 담았다. 단지 화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얹힌 세계사·신화·기법·미스터리 등 풍성한 뒷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재미있게 읽기만 하면 인문학 지식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언어

걸어다니는 어원 사전

|| 저 자 ||
마크 포사이스

|| 발행연도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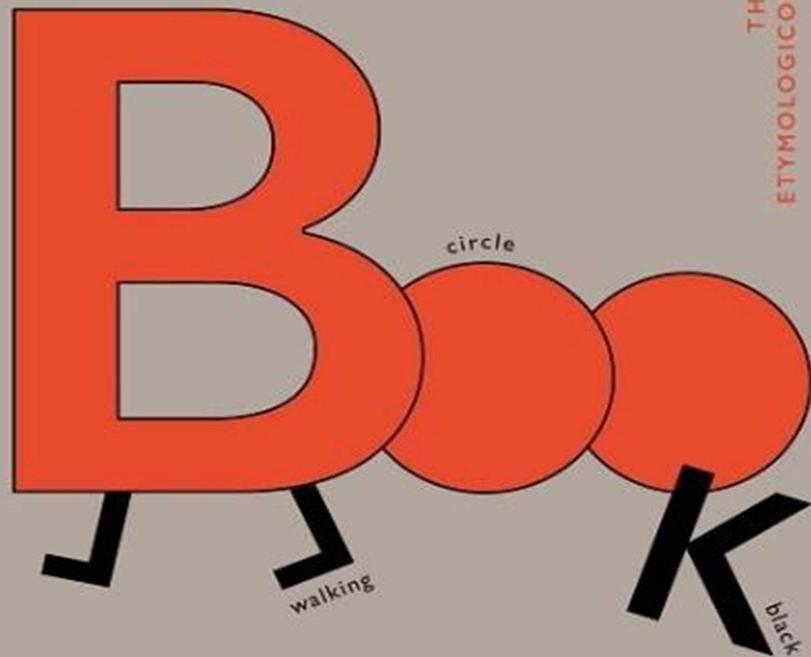
|| 출판사 ||
월북

|| 청구기호 ||
742 포514홍

" 모든 영어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

이 책은 영어 어원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역사, 과학, 문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다. 한마디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일단 알려주고 보는 'TMI 어원 사전'이다. "이 단어의 어원이 이런 거였다니!" 인정하자. 어원의 세계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방대하고 흥미롭다. 유전학, 천문학, 독성학, 정신분석학과 같은 과학부터 전쟁사, 문화와 문학, 종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에 한번 놀라고 가늠할 수 없는 인문적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란다. 우리가 몰랐거나 어설프게 알았던 어원에 대한 112가지 이야기에 빠져보자. 언어계의 '투 머치 토크' 마크 포사이스가 정교하고 유쾌한 지식 여행에 당신을 끌어들인다. 영어 실력이 느는 건 덤이다. 책을 덮을 때쯤 저자를 따라 당신도 어원 덕후가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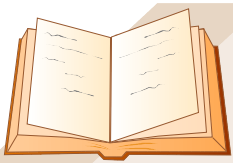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Book
걸어다니는 어원
사전



모든 영어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마크 포사이스 지음 · 홍한결 옮김

월북



문학

들어본 이야기

|| 저 자 ||
구병모 외

|| 발행연도 ||
2020

|| 출판사 ||
미디어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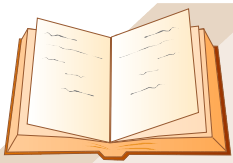
|| 청구기호 ||
813.7 들630

"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세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

젊은 독자들이 사랑하는 작가 5인의 시선을 담은 앤솔러지 『들어본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촘촘한 문장으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구축하는 구병모부터 한국문학의 묵직한 무게중심 권여선, 독창적인 색깔을 지닌 탁월한 이야기꾼 듀나, 세대와 시대를 사유하며 독자들을 늘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박솔미, 독보적인 한국소설의 최전선 한유주에 이르기까지 지금, 가장 주목받는 다섯 작가의 신작 소설이 수록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본 적 없는 세계, 듣고 싶은 이야기
구병모 권여선 듀나 박솔미 한유주 신작 단편



역사

혼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 : 역사

|| 저 자 ||
남경태

|| 발행연도 ||
2020

|| 출 판 사 ||
휴머니스트

|| 청구기호 ||
909 남14호

“혼자 공부할 때 곁에 두어야 할 최소한의 역사가이드”

지식의 고수 남경태가 한국사와 동양사, 서양사를 한 번에 꿰어내 우리의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오늘의 시사(時事)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혼자 공부가 필수인 시대, 인문학 공부의 핵심은 역사에 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역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며 '혼공'의 달인이 된 저자가 오랜 역사 공부를 통해 얻은 통찰을 혼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풀어놓는다. 이 책은 누구나 혼자 공부할 때 곁에 두어야 할 최소한의 역사 가이드로서, 역사를 읽는 재미와 시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선사하는 최적의 입문서다.

